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제주도 송당마을 본향당의
굿과 단골신앙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김 승 연

2011년 2월

제주도 송당마을 본향당의 곳과 단골신앙 연구

지도교수 허 남 춘

김 승 연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2월

김승연의 문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인

위 원 _____인

위 원 _____인

제주대학교 대학원

2011년 2월

A study on Main Shamanic Ritual "Kut"
(called Bonhyangdang-Kut) and the Religious
faith of its believers (called Dangol) on
SongDang Jeju island

Seoung-Yon Kim

(Supervised by professor Nam-Chun Heo)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Korean Studies

2011. 2.

195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Interdisciplinary Postgraduate Program
in Koreanology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A study on Main Shamanic Ritual "Kut" (called Bonhyangdang-Kut) and the Religious faith of its believers (called Dangol) on SongDang Jeju island

Main Shamanic Ritual Site Ceremony (called Bon-hyang-dang-kut), a shamanic ritual, is held at Songdang-Ri, Gujwa-eup, in Jeju island four times a year. Main Shamanic Ritual site (called Bon-hyang-dang) of Songdang is the origin of Shrine Religion (called Dang-sin-ang). Shimbang who is a shaman in Bonhyangdang and Dangol who believes and follows shamanic religion take over Bonhyangdang religion precious and are rooted deeply. Traditionally, there is the Bonhyangdangsin, the village god, for every village in Jeju island and villagers and those who are originally from the village become Dangol. So Dangols pray Dangsin who is actually their ancestor for the welfare of themselves and their family through shamanic ritual. Considering traditional shamanic ritual in modern society, Songdang-Bonhyangdang is really valuable. Therefore, this paper is a study on Songdang-Bonhyangdang-Kut and religious inheritance of Dangol in the religious life of Dangol. Songdang-Bonhyangdang is a Bonhyangdang which includes Utsongdang, Setdongdang and Alsongdang at Songdang village but before 4.3 Utsongdang is a Bonhyangdang. And the tradition of shrine religion has been maintained precious because of Maeinsimbang who have been inherited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in Bonhyangdang. Bonpuri (mean the shamanic interpretation of god's origin) of the god of Bonhyangdang and Bonhyangdang regulations such as Dangol, taboos, and so on are regarded importantly. So Dangols and shamans think that they are punished by Bonhyangdangsin, if they break that regulation. Especially, after the 1981's death of Maeinsimbang who had been inherited continuously, two shamans died suddenly. Dangols talked about the death of two shamans, connecting with Bonhyangdangsin, the village god. Dangols thought that shamans broke the regulation as they didn't perform Dangsin-Bonpuri properly. Dangols consider it a rule that shamans who are responsible for Bonhyangdang perform the shaman's song for Dangsin exactly as shamans in the past did. Dangols are

interested in the elements of shrine religion, thinking the shaman's song for Dangsin (Dangsin-bonpuri) important. Main Shamanic Ritual site of Songdang was a Bonhyangdang where Kwangsan Kims lived primarily and the sons of them said that they had to takeover the religion as Dangols of Bonhyangdang. So Dangols have inherited the shrine religion of Main Shamanic Ritual site (Bonhyangdang) as they keep the traditional regulation strictly and they said that if they broke the rule, they would be punished. Dangols said the experience of the miraculous efficacy story in takeovering the shrine religion of Bonhyangdang, which was based on the Religious transmission of Dangol. In addition, there was the traditional regulation of Bonhyangdang by which shamans criticized and understood the transmission of shaman's song (Bonpuri). It was what dangol have learned from the ancestors and the knowledge of Bonhyangdang that was piled by seeing Bonhyangdang-kut preformed by the shamans in the past. The shrine Religion of Bonhyangdang was keeping the tradition as Maeinsimbang was in charge of Bonhyangdang-kut for generations. Dangols are saying that the shrine religion of Bonhyangdang will be taken down continuously as they are sure of their own religion. Dangols raise the value of lives which aren't force by avarice and philosophical thoughts through the shrine religion (Dangsinang). Bonhyangdang-kut and the Religion of Dangols have been continued with a strong tradition. This result has the sense and the value by which Bonhyangdang-kut that is broken in other villages and the religious lives of Dangols can be understood.

Key words : The elements of shrine religion, Maeinsimbang and Bonpuri, the Religious transmission of Dangol, The traditional regulation strictly.

목 차

Abstract

I. 서 론	1
1. 문제제기와 연구 목적	1
2. 선행연구 검토	3
3. 연구대상과 방법	5
II. 송당본향당의 당굿과 당신본풀이	11
1. 마을 개관	11
1) 자연환경과 설촌 역사	11
2) 마을 연혁과 당신앙 배경	13
2. 본향당굿의 요소와 진행	18
1) 본향당굿의 요소	18
(1) 4대제일(四大祭日)	19
(2) 당(백주할망당)	21
(3) 매인심방	23
(4) 제물과 금기	31
2) 본향당굿의 진행	34
(1) 당굿의 제차	34
(2) 당굿의 특이점	40
3. 당신본풀이 구성	45
1) 본풀이 구성과 문제	46
2) 역대 심방의 본풀이 비교	48
III. 송당본향당의 단골과 신앙전승	53
1. 단골	53

1) 전승주체 단골	53
2) 상단골 광산김씨와 광대본 유래	56
3) 영험담	58
2. 본향당 신앙의 전승과 변화	60
1) 본향당 신앙의 통합	60
2) 단골의 신앙전승	61
3) 심방의 당굿전승에서 드러난 전통성	68
IV. 결론	75
참고문헌	78
녹취원문자료	84
<지도 차례>	
<지도 II-1> 송당마을에 위치한 본향당과 옛 지명	16
<사진 차례>	
<사진 II-1> 본향당굿 전경	18
<사진 II-2> 본향당 신위	19
<사진 II-3> 제물올림	31
<사진 II-4> 자손이 올리는 백주할망 옷과 팔찌거리	34
<사진 II-5> 예명올림	35
<사진 II-6> 도래둘러멤	36
<사진 II-7> 군문열림	37
<사진 II-8> 삼헌관헌작배례	37
<사진 II-9> 대명대충	39
<사진 II-10> 백중마불림제	43

<표 차례>

<표 I-1> 단골면담과 변호일람	6
<표 I-2> 단골면담과 조사 일정	7
<표 I-3> 단골구술 인용문 변호일람	8
<표 II-1> 송당마을과 주변마을 인구변화 추이	14
<표 II-2> 2010년 농가의 토지 이용 및 가축사육 현황	15
<표 II-3> 송당마을 소재 신당 개요	17
<표 II-4> 메인심방에 따른 백주할망본풀이 채록 방법과 시기	48
<표 II-5> 역대 메인심방 본풀이 비교	49
<표 III-1> 현 메인심방과 단골 김○생 본풀이 비교	65



I. 서론

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송당 분향당곳은 제주도 구좌읍 송당마을에서 일 년에 네 번 음력 정월 열사흘 신년과세제, 이월 열사흘 영등손맞이, 칠월 열사흘 백중마불림제, 시월 열사흘 시만국대제로 이루어진다.

제주도에는 송당마을을 비롯해 마을마다 수호신으로 좌정한 분향당신이 있다.¹⁾ 제주도 사람들에게는 출신지역으로 분향이 저마다 있다. 이곳은 선조인 조상이 정착하여 후손을 낳아 기른 곳이다. 이곳을 분향당이라고 하며 마을과 가족의 안위를 빌며 당곳을 봉제하는 사람들을 단골이라고 한다.

신년이 되면 단골들은 분향당신에게 세배하러 가는 것을 중요한 일로 생각한다. 그래서 선달그믐부터 마음과 몸가짐을 조심하며 정월 제일까지 정성을 다한다. 단골들은 일 년에 한 번이나 두 번 분향당에서 당신인 조상에게 신앙을 봉제하는데 분향당곳이라고 한다.²⁾ 분향당곳은 조상신을 모시는 자손이 당신과 일체감을 느끼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당곳을 통해 단골들은 당신본풀이를 신화로 인식하며 당신을 추앙한다. 분향당곳은 이러한 상황이 토대가 되어 이루어진다. 분향당곳의 요소인 당과, 제일, 심방이 분향당곳에서 당신에게 봉제하여 올리는 당신본풀이는 신화기능이 살아있다는 반증이 된다.

단골은 분향당에서 주체적이다. 단골은 분향당곳의 요소인 심방의 당신본풀이 전승에서도 신앙형태를 나타낸다. 분향당은 단골의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단골들은 당신본풀이가 어떠한 과정으로 전승되고 있는지에 관심을 보이며 문제를 지적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단골들의 신앙생활과 신앙전승

- 1) '분향당신'의 직능으로는 마을내의 토지, 산수, 나무 등이 자연의 주인임과 동시에 주민의 호적, 출산, 사, 등 생활전반을 차지하고 있다. 토지, 산수, 나무, 등이 자연의 주인이라 하는 것은 그 지역의 토지의 임자와 같은 성격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분향당신을 지금도 <토주관> 또는 <토지관>이라고 부른다. : 현용준, 「제주도무신의 형성」, 『탐라문화』 창간호,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1982, 17쪽.
- 2) 분향은 태순명, 원초적인 고향, 마을의 시원이다. 그러므로 분향당신을 조상이라고 부른다. : 현용준, 「제주도무신의 형성」 앞의 책, 8~21쪽.

과정이 그들의 삶에 어떤 가치로 나타나고 있는지 본향당신앙의 요소를 통해서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무속신앙의 의례인 당굿에서 당과 당신, 당신본풀이는 단골에게 종교, 철학, 윤리와 문학 형태의 양상으로 드러난다.³⁾ 당굿은 사회·경제뿐만 아니라 단골의 삶과 가치지향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단골의 본향당신앙 형태를 파악하는 것은 절실하게 요구된다. 그래서 민속연구로써 본향당신앙의 주체인 단골의 생활을 통해서 당신앙체계와 그 전승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다.

본 글은 본향당신앙의 주체인 단골의 신앙생활을 통해 본향당의 전통적신앙 전승과 그 가치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래서 제주도 송당마을 본향당굿의 요소인 단골의 신앙과 그 전승과정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목적을 이루고자 한다.

첫째, 제주도에서 당신앙의 시조라고 일컫는 송당마을 본향당굿과 신앙의 주체인 단골의 신앙생활을 살펴보고 제주도 본향당신앙의 가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단골의 신앙생활 속에서 당신본풀이가 구비전승 되는 과정을 찾고 그것을 통해 신화 기능을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단골의 신앙생활 주변에서 영험담을 찾아 본향당 신앙전승의 영향력을 파악해 보겠다.

넷째, 본향당신앙에서 당굿과 단골 유지는 심방과의 유기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심방과 단골의 유대관계를 찾아보고 본향당 전통성 유지에 심방의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다섯째, 본향당신앙을 언제까지 이어갈 것인지 단골의 신앙전승 의지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3) 현용준, 「제주도 堂神話考」,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1992, 160쪽.

2. 선행연구 검토

제주도 당신앙 연구는 1930년 대 일본 학자인 秋葉陸⁴⁾·赤松智城⁵⁾ 국내학자인 장주근⁶⁾ 이두현⁷⁾ 현용준⁸⁾ 진성기⁹⁾ 현길언¹⁰⁾ 고광민¹¹⁾ 김화경¹²⁾ 문무병¹³⁾ 이¹³⁾ 있다.

- 4) 秋葉 陸, 「濟州道の蛇鬼」 『朝鮮民俗誌』 名著出版, 1951, 참조.
- 5) 赤松智城·秋葉 陸, 『朝鮮巫俗の研究』 上卷, 日本大阪屋號書店, 218~227쪽, 참조.
秋葉 陸는 『朝鮮巫俗の研究』 上卷 : 서키편 남무 朴奉春翁의 구송본으로 16편의 본풀이를 채록하고 있다.
<서키편향당본풀이><도산당본풀이><신중도본풀이> 다.
『朝鮮民俗誌』 : <도산당본풀이>를 분석하고 제주도의 사귀신앙蛇鬼信仰을論하였다. : 문무병, 『제주도 본향당本郷堂 信仰과 본풀이』 민속원, 2009, 29쪽.
- 6) 장주근, 「濟州巫歌」 (1)·(2) 『국어국문학보』 19호, 1958, 22호, 1960, 송당리·상창리 등의 <당본풀이> 채록, 참조.
『韓國의 民間信仰-濟州島의 巫俗と 巫歌』 論考篇, 日本金花舎刊 1974, 참조. : <일뤼당>과 풍토병의 관계를論함. 「濟州島堂神話의 構造와 意味」 『濟州島研究』 제3집, 1986, 249-256쪽, 참조. : 서당본풀이 속에는 종교관념의 체계와 실제의 문화사와 地理性이 반영되며, 神話的 想像性이 종합되어 나타난다고 하였다.
『제주도무속과 서사무가』 2001, 역락, 참조 : 제주도 무속 개관과 당본풀이와 일반신본풀이를 수록했다.
- 7) 이두현, 「濟州島民俗調査」 『民俗學論考』 學研社, 1984, 538-570쪽, 참조 : 고성리와 수산리의 세시풍속과 堂神信仰을 조사함.
- 8) 현용준, 「濟州島 堂神話考」 『제주도』 3호, 濟州道, 1962, 참조. 「堂神話의 Motf와 基本 形式:濟州島 堂神話考 (2)」, 『국문학보』 2호, 濟州大國語國文學會, 1964, 참조. 「당구의 儒式化와 三姓神話」 『제주도』 14호, 제주도, 1964, 참조.
「도산당구」 文化財管理局, 1966, 참조. 「濟州島 마을 祭堂」 『마을祭堂』 文化財管理局, 1969, 참조.
「濟州島の 영등굿」 『한국민속학』 1호, 民俗學會, 1969, 참조. 「濟州島の 儒式마을祭」 『石宙先生回甲論叢』 同刊行委員會, 1971, 참조.
「三姓神話 研究」 『耽羅文化』 2, 濟州大 耽羅文化研究所, 1983, 참조.
『巫俗神話와 文獻神話』 집문당, 1992, 참조 : <당본풀이>의 形成과 基本形式, 內容構成과 背景民俗信仰을 밝히고 있다. 濟州道 始祖神話인 삼성신화를 본격적으로 분석하여 地中湧出·箱丹漂着의 모티브는 堂神話에서 차용된 것이라 하였다. 이는 堂神話에 대한 전반적이며 본격적인 연구로 神話論·傳播論 등을 토대로 한 比較民俗學的 觀點에서 뚜렷한 업적을 남겼다.
- 9) 진성기, 「堂神의 人格化와 本풀이 神話」 『濟州島 民俗과 觀光』 濟州, 1965, 참조. 「太子괴노기都 神話」 『제주도』 26호, 제주도, 1966, 참조. 「濟州島 神堂과 堂神」 『韓國民俗學』 2, 민속학회, 1970, 참조. 「本郷堂 信仰과 堂神의 類型」 『韓國文化人類學』 5호, 韓國文化人類學會, 1972, 참조. 『南國의 巫俗-濟州島巫俗論考』 螢雪出版社, 1987, 참조
- 10) 현길언, 『濟州島の 장수설화』 흥성사, 1981, 참조 : 당신화를 전설의 유형으로 보고, 제주도의 민중사와 접맥시켜 제주도민의 삶과 역사를 현재의 시각으로 재현하려 했다. 본풀이는 堂神의 내력담이면서 마을 사람들이 내력담이고, 마을의 역사와 상통하는 것이라 하였다. <당본풀이>를 역사시대의 신화, 전설의 테두리에서 다루며, 제주도민의 생활사를 '좌절과 저항의 삶의 양식'으로 파악하고자 했고, 문학적, 역사적으로 당신화에 접근하려했다.
- 11) 고광민, 「제주도 처녀당 본풀이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1982, 참조 : 「당본풀이에 나타난 갈등과 대립」 『탐라문화』 2호,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1983, 참조. 「堂神들의 역할분화와 그 신앙형태」 『비교민속학회』 창간호, 비교민속학회, 1985, 참조.
- 12) 김화경, 「서키편 本郷堂 本풀이의 구조 분석」 『口碑文學』, 5호, 韓國精神文化研究院 語文研究室, 1981, 참조.
- 13) 문무병, 「濟州島 도깨비당 연구」 『耽羅文化』 10호,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1990, 참조. 「영평마

당신앙 연구는 당본풀이 채록과 분석을 통하여 이해하려는 시도가 주류를 이루면서 국문학 연구의 범주에서 비교민속학, 사회민속학, 역사민속학으로 확대되었다.

진성기의 『南國의 巫俗-濟州島巫俗論考』에서 본향당의 형성과 유형 씨조신과 당신의 관계, 단골과 본향당의 관계, 신당과 혈연관계 등 당신·당·단골의 관계를 살피고 있다. 그리고 당신과 조상숭배, 당신의 내생관, 단골의 관계, 신당의 발생 등 사회민속학적 관점에서 당본풀이를 다루고 있다. 고헌민, 김화경, 문무병에 의해서 특정지역에서 신앙과 삶을 공유해 온 집단이 오랜 세월을 걸쳐 전승되어 온 당신본풀이 전승양상을 구체적으로 해명하는 연구에 이른다.

문무병은 본향당신앙이 사회통합적 기능을 강화하고 당신앙을 통하여 공동체의 일탈을 예방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당신앙이 한 마을 작은 공동체를 통합하며, 나아가 지연·혈연공동체를 결속·강화하는 공동체신앙임을 밝혔다.

김현선, 이수자, 강정식, 하순애 등의 문학적 연구와 사회학적인 연구가 있다. 특히 강정식¹⁴⁾은 본풀이 조직과 당신앙의 변화가 긴밀한 연관이 있다는 데에 주목하여 당신을 계보화 하였다. 그래서 제주도 무속사회에서 전통을 지키려는 노력과 변화를 적절하게 수용하려는 노력이 있었다고 하였고, 이를 통해 제주도 당신앙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되었다. 하순애는¹⁵⁾ 민간신앙이라는 범주에서 연구를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는 대부분 당신본풀이를 통하여 제주도 민간신앙, 무속신앙을 이해하고자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신앙공동체로서 한마을 한집단의 신앙체계는 제주도 무속신앙 존재와 더불어 당신과 마을 사람들은 마을공동체 유지를 위한 관계에 놓여있음을 보여주었다.

을 사람들의 삶과 信仰」 『영평마을』 제주대학교 박물관, 1991, 참조. 「堂의 形態에 관한 考察」 『心田金洪植教授 回甲祈念論叢』 心田金洪植教授 回甲祈念論叢 刊行委員會, 1990, 참조. 「濟州島 蛇神信仰 研究」 『濟州島 言語民俗論叢』 도서출판 제주문화, 1992, 참조. 「마을의 설촌과 당본풀이-성산읍은평리의 경우」 『白鹿語文』 7, 제주대학교 국어교육학회, 1990, 참조. 「중문마을의 民俗과 信仰 (1)」 『濟州島研究』 9호, 1992, 참조. 「濟州島 堂信仰 研究」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참조. 「제주도 본향당本郷堂 信仰과 본풀이」 민속원, 2009, 참조.

14) 강정식, 「濟州島 당신본풀이의 傳承과 變異 研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2, 참조.

15) 하순애 외, 「제주도 민간신앙의 구조와 변화상」 『제주도 민간신앙의 구조와 변용』, 백산서당, 2003, 참조.

3. 연구대상과 방법

제주도에는 300여 개 자연마을이 있고, 행정구역상 등재된 232개 마을마다 전통신앙 성소인 본향당이 있으며, 다른 마을에 살던 사람이 이사를 올 때 모시고 와서 본향당처럼 모시는 가지당들이 있다.¹⁶⁾ 신당의 수는 400여 개소로 조사된 바 있다.¹⁷⁾ 그중 본향당 수는 175개며 현재 7군데가 폐당되고 3군데는 멸실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써 165개 본향당은 단골들에게 제의를 받고 있다고 입증되었다. 그래서 구좌읍 송당마을 단골들과 그들이 봉제하는 본향당굿을 대상으로 생생한 전승상황을 고찰하고자 한다.

마을 본향당 모습이 그대로 있고 4대 제일에 의례가 행해지고 있는 송당마을 본향당(단골들은 금백주당이라고도 함)이 연구 대상이다. 1982년 신과세체가 본향당굿 자료집으로 만들어져 있다.¹⁸⁾ 본 연구를 하기 위해 직접 채록한 조사는 2009년 2월 7일(음력 정월 열사흘)과 2010년 2월 26일(음력 정월 열사흘)에 행해진 신과세체 본향당굿이다. 그리고 본향당신앙에 대한 연구는 현재 마을에 살고 있거나 송당마을 출신이면서 다른 지역에 사는 단골들을 면담하는 직접면담 조사를 통해 구술 자료를 얻었다. 구술자 선정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연구나 조사에서 구술한 적이 없는 단골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주제에 3인 단골 구술이 적합해서 주된 자료로 사용하였다.

제주도 당굿은 그 제차가 보통 삼석올림→케문열림→열명→당굿→케문음 순서로 진행된다. 송당마을 본향당굿도 이런 제차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제차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당굿에서 본향당신을 청하여 즐겁게 놀리는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은 송당마을 본향당굿을 집전했던 메인심방에 관한 문제이다. 그것은 본향당 메인심방을 맡던 두 심방의 갑작스런 죽음이다. 이것을 당과 관련해서 생각하는 단골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단골들은 심방이 당신과 밀접하

16) 문무병, 『제주도 본향당本鄉堂 신앙과 본풀이』 민속원, 2009, 24쪽.

17) 제주전통문화연구소, 『제주신당조사』 제주시권 2008·서귀포시권 2009, 참조.

18) 문화역사마을만들기 북제주군추진협의회, 『북제주군 송당리 보고서』 각, 2004, 부록편, 참조.

게 관련되어 있다고 인식한다. 그것은 본향당신을 잘 모시며 굿을 잘 집전하는 것에 있다는 것이다. 단골들은 심방과 당신의 관계를 통해 두 심방의 죽음을 본향당신에 관한 매인심방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것을 단골들이 생각하고 평가하는 기준으로 파악해 본다.

그리고 심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본향당신 본풀이를 비교해 보고 단골들이 말하는 본향당 전통전승체계에서 어떻게 구분되는 것인지 살펴본다.

송당본향당은 원래 자연마을인 웃송당본향당이였다. 4·3사건 후에 웃송당, 셋송당, 알송당을 아우르는 신앙권으로 확대되어 형성되었다. 그 후 1980년 대 매인심방 사후 신앙전승체계에 변화가 나타난다. 매인심방과 당신앙체계에서 생겨난 문제를 통해 사회적 변화와 신앙전승체계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 또한 의미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것에 대한 연구방법으로 단골 면담을 통한 구술채록과 본향당굿을 현장 관찰조사를 하였다.

<표 I-1> 본향당굿 현장 관찰조사 일정

번호	조사 날짜	당굿 제일	비고
1	2009. 02. 07 (음력 1월 13일)	신과세제	큰 굿
2	2009. 03. 09 (음력 2월 13일)	영등손맞이	얕인 굿
3	2009. 09. 01 (음력 7월 13일)	백중마불림제	얕인 굿
4	2010. 02. 26 (음력 1월 13일)	신과세제	큰 굿
5	2010. 03. 28 (음력 2월 13일)	영등손맞이	얕인 굿
6	2010. 08. 22 (음력 7월 13일)	마불림제	얕인 굿
7	2010. 11. 18 (음력 10월 13일)	시만국대제	심방불참

<표 I -2> 단골면담과 조사 일정

번호	조사날짜	면담자	면담장소	면담내용
1	2008. 08. 23	김○중씨 (남, 1961년생, 옷송당 태생, 현거주지-송당리)	김○중씨 자택	송당마을 농업, 자연, 역사 관련
2	2008. 11. 28	1. 김○호씨 (남, 1932년생, 옷송당 태생, 현거주지-서귀포시 천지동) 2. 강○순씨 (여, 1934년생, 성산읍 신산리태생, 현거주지-서귀포시 천지동, 김○호씨 부인)	김○호씨 자택	당곳 제일 참여 정도 단골신앙 정도
3	2009. 02. 07	매인심방과 당곳 참여단골	본향당	얼굴 익힘
4	2010. 03. 20	1. 김○호씨 (남, 1932년생, 옷송당 태생, 현거주지-서귀포시 천지동) 2. 강○순씨 (여, 1934년생, 성산읍 신산리태생, 현거주지-서귀포시 천지동, 김○호씨 부인)	김○호씨 자택	본향당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 제일, 제물, 금기, 신앙과 단골 소개 받음
5	2010. 03. 28	1. 매인심방 2. 김○생씨 (여, 1936년생, 옷송당 태생, 현거주지-송당리)	김○생씨자택	연구목적과 신분 밝힘. 구술면담
6	2010. 08. 22	매인심방(제주시 건입동)	본향당	제일, 단골참여
7	2010. 11. 18	김○생씨(여, 1936년생, 옷송당 태생, 현거주지-송당리)	김○생씨 자택	1차면담 부족한 부분 보충
8	2010. 11. 28	매인심방(제주시 건입동)	심방택	당곳전승과 제차 본풀이 전승과정
9	2010. 12. 12	김○중씨 (남, 1961년생, 옷송당 태생, 현거주지-송당리)	김○중씨 자택	마을 교육환경과 선거관련

본향당곳 제차와 내용은 녹음과 동영상, 카메라를 이용한 채록이었다. 단골들의 면담은 본향당곳이 행해지는 곳에서 하고 부족한 점은 단골집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하였다.

단골에 대한 첫 면담은 2008년 11월 28일 옷송당 출신이면서 서귀포에 사는 김○호씨와 그 부인 강○순씨다. 본향당 단골로서 제일 참여 정도를 알아보는 과정이었고, 그 후 몇 차례에 걸쳐 면담이 이루어졌다. 본향당곳이 열리는 2009년 2월 7일(음력 정월 열사흘) 신과세제, 3월 9일(음력 이월 열사흘) 영등손맞이, 9

월 1일(음력 칠월 열사흘) 백중마불림제, 2010년 2월 26일(음력 정월 열사흘) 신과세제 때 분향당곳에 참여한 단골들을 대상으로 살고 있는 곳과 나이, 성씨, 생업, 연락처 등 간단면접을 하였다.

2010년 3월 28(음력 이월 열사흘) 영등손맞이에는 심방과 단골들에게 조사자의 신분과 연구목적을 밝히고 면담조사를 하였다. 그리고 2010년 3월 20일 김○호씨한테서 심층면담자 소개를 받았다. 그래서 김○생씨를 2010년 3월 28일에 만나게 되었다. 그는 웃송당에서 출생하고 결혼 후에도 거주지를 떠나보지 않은 단골이다.

면담 현장상황은 동영상 카메라를 설치하여 녹음을 하겠다고 요청하였다. 승낙을 얻은 후에 조사를 하였다. 구술순서는 당신본풀이를 시작으로 하여 당의 요소로 이어졌다. 조사자의 질문은 별로 없고 구술할 때 호응 정도만 하였다. 면담은 오전 8시 40분에 시작하여 정오까지 하였다. 김○생씨의 발음은 앞 치아 부분에 윗니 하나, 아랫니 두 개 정도만 있어서 처음에 듣기가 어려웠으나 차츰 적응되었다. 면담결과는 녹취진사되어 본글에서 인용문으로 쓰였다. 녹취원문 진사 방법은 제주어 표기를 원칙으로 하였다.¹⁹⁾

<표 I -3> 단골구술 인용문 번호일람

번호	이름	성별	출생년도	출신	상단골 광산김씨 와의 관계	주요경력 사항	현거주지
A01 ~ A22	김○생	여	1936년	웃송당	딸	농사, 학교 안다님	송당리(출생지 계속 거주)
B01	김○호	남	1932년	웃송당	아들	공무원, 상업	서귀포시 천지동 (송당에서 살다가 1950년대 초에 떠남.)
C01 ~ C07	강○순	여	1934년	성산읍 신산리	며느리	상업, 초등,	서귀포시 천지동(성산읍 신산리출생.)

예로, (A01 ~ A22)는 구술이 22회에 걸쳐 본문에 쓰임을 말함.

19) 제주특별자치도, 개정증보 『제주어 사전』, 2009, 참조.

본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이 글의 2장에서는 송당마을 자연환경과 설촌 역사, 마을 연혁, 당신앙적 배경을 살핀다. 본향당의 요소로서 당과 메인심방, 제물과 금기와 4대 제일을 살펴본다. 4대 제일은 2010년 2월 26일(음력 정월 열사흘) 신과제제와 2010년 3월 28일(음력 이월 열사흘) 영등손맞이, 2010년 8월 22일(음력 칠월 열사흘) 백중마불림제, 11월 18일(음력 시월 열사흘) 시만국대제다. 채록한 자료로 본향당굿 제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또 전통적인 신앙체계를 알기 위해 단골과 면담을 통해 드러난 이야기를 인용하여 사용한다. 본향당굿 제차의 다양한 측면과 단골들이 생각하는 당신본풀이 내용 구성을 다룬다.

이 글의 3장에서는 본향당신앙과 전승과정을 다루면서 단골 형성과 신앙이 이어지는 전승과정을 알아본다. 그런 상황을 뒷받침해 주는 영험담과 4·3사건 후 웃송당, 셋송당, 알송당 신앙통합 과정에서 나타난 심방 역할을 알아본다. 단골의 신앙 전승과 심방의 당굿전승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단골의 이야기를 통해서 찾아본다.

송당마을 본향당굿은 1986년 4월 10일 제주도 무형문화재 제5호로 지정되었다. 마을에서 문화재 보호사업 일환으로 본향당 정비를 하면서 단골뿐만 아니라 마을 구성원들도 전부 참여하는 열의를 보여준다. 또한 문화재로 지정된 사실에 자긍심이 대단하며 당신본풀이에 나오는 주인공 백주또 여신은 송당과 수산 사이 길에 이름으로 붙여질 정도이다. 본향당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당회가 따로 있어서 본향당에 관련된 일과 평상시 청소 등 관리를 맡아 하고 있다.

마을주민들은 제주도 당신체계에서 송당마을본향당 당신이 부모신당이라는 위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단골신앙이 바탕을 이루는 본향당굿과 신앙의 구체적인 면모를 살펴보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라고 본다.

그동안 학문연구를 바탕으로 지역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노력이 많았다. 지역문화의 전통성을 나타내고자 마을신앙의 구심점이던 본향당굿을 되살려보려는 노력 또한 그러한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2009년 6월 30일 칠머리당 영등굿이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는 그 준거다. 우리 무형문화가 지닌 위상은 전통 가치를 새롭게 느끼게 하지만 전승 필요성은 시급하게 요구된다. 그런 점에서 제주도민의 삶과 그 바탕을 이루고 있는 정서를 본향당굿과 그 신앙에서 찾아보는 시도

또한 의미 있는 것이 된다. 본향당곳에 나타나는 고대적 사유 흔적은 다양한 적층연구로써 입증되어 있다.²⁰⁾ 그래서 본향당이 형성된 과정이나 그에 대한 중요함은 구비와 문헌학, 역사 민속학 연구 결과로 잘 나타난다.

송당 본향당곳은 제주도 당신양에서 불휘공으로써 제주도 각 지역의 전통당신양에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송당본향당에서 당신본풀이는 신이 출현이라는 신화의 고대적 측면을 보여준다. 신화의 요소로서 당신의 출현은 중요한 부분이다.²¹⁾ 그래서 송당본향당은 송당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제주도민에게 당신양의 원조로서 현재까지 위상을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송당본향당은 이런 전통성을 바탕으로 단골의 당신양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것이다.

20) 조동일, 「남성영웅서사시」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 지성사, 1997, 67~96쪽, 참조.

허남춘, 「제주 서사무가에 담긴 과학과 철학적 사유 일고찰」 『국어국문학』 148호, 국어국문학회, 2008, 94~96쪽.

21) 현용준, 「濟州島 堂神話考」 『巫俗神話와 文獻神話』 집문당, 1992, 87~92쪽.

II. 송당본향당의 당곳과 당신본풀이

1. 마을 개관

1) 자연환경과 설촌 역사

구좌읍 송당리는 해안에서 한라산 쪽으로 9km 떨어진 지역으로 해발 200m 지점인 중산간 마을이다. 동쪽으로는 세화리 북쪽으로는 평대리·한동리 남쪽으로는 성읍리·종달리와 접하고 있다. 자연마을이고 마을 주변에 광활한 초원지대를 형성하여 넓은 목장지대를 갖고 있다. 특이하게 오름군이 형성되어 20여개 오름이 송당마을 안에 위치하고 있다.²³⁾

중산간인 송당마을의 지질적 특징으로 화산활동에 의해 생성된 현무암 화산회토 중 흑색토로 이루어져 있고 뜬 땅이다.²⁴⁾ 경작 면적은 해안 마을의 경작단위 보다는 넓지만 화산회토의 척박함에 의해 생산성은 크게 떨어진다. 토질을 비옥하게 만들려고 퇴비나 두엄을 사용하여 피 농사를 주로 했다.

과거에는 반농·반수렵 생활을 하고 목축을 크게 했다. 고려 말부터 수산평에 동아막이 설치되어 송당 마을 일대는 몽골에서 들어 온 목호들이 직영하는 목마장으로 활용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²⁵⁾

조선 시대에는 국마장 제 1소장으로 지정되어 중요하게 관리되었던 곳이다.²⁶⁾

23) 감은이 오름, 거슨새미 오름, 거친 오름, 높은 오름, 다랑쉬 오름, 민 오름, 당 오름, 성불 오름, 아부 오름, 체 오름, 백약이 오름, 밭돌 오름, 안돌 오름, 등.

24) 흑색토 : 화산회토의 두터운 부식층을 이루고 있는 토양으로 속칭 '뜬땅' 이라고 부른다. 보수력은 크지만 투수성이 높기 때문에 가뭄 피해를 잘 입어 경작에 좋지 않는 땅이다. : 이기욱, 「제주도 농민경제의 변화에 관한 연구」, 1995,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92쪽.

25) 金錫翼, 耽羅紀年, 金啓淵譯, 忠烈왕 3년(1277년) 元 立東西阿幕 防牛馬駝驢羊 以達魯花赤監之 時元主 以本國房星分野 治牧場或遺斷事官 或治萬戶 以主畜牧 (원이 동서아막을 설립하여 우, 마, 타, 나귀, 양을 방목하여 달로화적에게 감독하도록 하였다. 이때 원주가 본도는 방성 분야라 하여 목장을 설치하여 후 단사관을 파견하고 혹은 만호를 두어 목축을 주재케 하였다.) 『탐라문헌집』 김봉옥 역, 제주도교육위원회, 1976, 361쪽.

26) 강만익, 「朝鮮時代 濟州島 官設牧場의 景觀研究」, 제주대학교 석사논문, 2001, 참조.

송당에서는 광활한 목초지를 이용해 목축업을 주로 했다. 분향당신으로 농경신인 백주또가²⁷⁾ 있어 농사를 중요하게 여겼고, 당신앙으로도 중심인 위치에 있다.

송당리 설촌 역사는 삼백 오십여 년 전 송씨, 고씨라는 사람이 살기 시작했다고도 하고 일천 오백여 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다. 또 김해김씨 김언양이 삼백여 년 전 조천면에서 이주하였다고도 하며 광산 김씨 김진태가 이백여 년 전 남원면에서 이주한 후 후손에게 ‘일천여 년 전에 설촌했다.’ 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증명될 만한 것은 아니다.²⁸⁾

송당리 산 226번지에 있는 성불오름 남쪽 봉우리와 북쪽 봉우리에 이르는 골짜기 사이에 둥그렇게 부풀어 올라 있는 곳에 ‘성불천’ 또는 ‘성불암새미(成佛庵泉)’라는 샘이 있다. 성불오름은 고려시대 사찰로 추정되는 성불암이²⁹⁾ 위치했던 곳이고 성불천으로 불리는 용천수가 솟아 흐르고 있다. 사찰 건물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기와 편과 도자기 편들이 흩어져 있다.³⁰⁾ 그래서 성불암에 대한 이야기가 송당마을에 전해오고 있다. 성불암에 대해 들었던 이야기라며 김○생씨가 들려주는데 이러한 부분을 뒷받침해 준다.

구술자 : 나 잘 알아, 옛날에 성불암 오름 위에서 지금도 물이 난다. 그래서 성불암에 절을 하려고 스님들이 중도군도에 가면 그곳 천지가 캄캄해서 어두워 분간이 안 돼 길을 찾지 못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성불암이 모습을 보이질 않는 거지. 오름 신이 중도군도만³¹⁾ 오면 캄캄하게 해서 모두 해마다 죽어 버렸어. 성불암에 들어가 굶어버리면 태풍이 불어 살지 못해.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옛날 어린 때 보면, 비가 오지 않으면 우럭 하나 굶고 메 한 사발 해서 말하지 않는 채로 거길 가서 골갱이로 북작북작 굶으면 물이 줄줄 나와. 그렇게 해서 집에 오면 저녁에는 비가 활활 오는 거라. 신이 있는 오름이라. 우리 사대 때(4·3사건) 올라오니 막 장마가 저서 보리농사가 되지 않아. 성불암에 작은 구멍 같은 굴이 있는데 그곳에 폭도들³²⁾이 숨어 살아 오름신으로 해서 그렇게 비가 막 온 거야. 그렇게 하니까 그 폭도들을 내

27) 백주또 : 백주또는 송당분향당신의 이름이다. ~또 라고 붙임은 신명에 대한 존칭으로 사용된다. ~할망과 같은 의미로 보아도 된다.

28) 백록어문학회, 『백록어문』 13호, 송당리 학술조사보고서, 1997, 136쪽.

29) 『新增東國輿地勝覽』, 濟州牧 情義顯 佛宇條, 成佛庵在 成佛岳(고려시대 12세기경에 창건되어 대략 17세기경에 폐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李元嘖, 『耽羅志』, 山川條, 成佛岳 在縣北十五里縣城 附近有比岳有泉(정의현 부근에서는 오로지 이 성불오름에서 물이 난다. 수량이 많다는 뜻이 되고 가뭄엔 물이 마르지 않아서 정의현 사람들이 이용 할 수 있었다는 의미도 된다.)

30) 문화역사마을만들기 북제주군추진진협의회, 『북제주군 송당리 보고서』, 각, 2004, 37쪽.

31) 절터 입구를 말하는 것이라고 함. (김0생, 여. 1936년생, 구좌 송당리, 2010년 3월 28일, 자택 면담조사)

32) 경찰을 피해서 해서 산에 올라간 사람이나 스스로 입산한 사람을 구술자(앞과 동일)가 일컬음.

쫓은 후로는 날이 좋아져서, 농사를 지어 먹고 살았지.³³⁾ (A01) <녹취원문, II-1>

기후에 의한 문제가 있을 때 개인이 간소한 기후 의례를 하고 있다. 정의현 부근에 이곳만 물이 마르지 않아 가뭄에 이 물을 떠다 마셨다는 과거의 예로 이곳은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 수 있던 조건을 가진 곳이다. 그리고 단골이 절과 연결시켜 이야기는 성불암을 신령스러운 곳으로 여겼던 장소임을 알 수 있다. 송당마을 주변에는 가뭄에도 물이 마르지 않는 곳이 있다. 그래도 성불암에 가서 기후 제로 비념을 했다는 것은 성불암과 송당마을의 관계가 깊다는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다.

2) 마을 연혁과 당신앙 배경

송당마을의 옛이름은 손당·송당이라고 불렀다. 손당은 송당이 변음으로 보인다.³⁴⁾

『제주읍지』(18세기 말, 방리, 좌면)에는 ‘松堂里 東南距六十里 民戶一百三十六 男三百五十八 女四百二十二’라고 하며, 『삼군호구가간총책』(三郡戶口家間總冊), (1904년, 제주군, 구좌면)에 ‘松堂 烟家一百十六戶 男三百三十九口 女三百五十六口 草家四百四十六間’라고 하였다.³⁵⁾ 이웃에 있는 큰 마을 순서로 김녕, 세화, 평대의 인구와 호구를 비교해 보면 중간 정도라는 것을 <표-1>로서 알 수 있다.

33) 김0생, 여, 1936년생, 구좌 송당리, 2010년 3월 28일, 자택 면담조사.

34) 『탐라도』(19세기말)와 『탐라지도』(1709)와 『제주삼읍총지도』(18세기중반)등에 松堂里(송당리), 초암촌(草庵村), 『탐라순력도』한라장축(1703)에는 송당(松堂), 『증보탐라지』와 『호구총수』등에 송당리(松堂里), 『제주군읍지』(1899) ‘제주지도’ 등에 상송당리(上松堂里), 하송당리(下松堂里), 일제강점기 1:50,000 지형도에 송당리(松堂里), (상동(上洞), 중동(中洞), 하동(下洞), 가시목동: 가시남동네(加時木洞), 대천동: 한내동네(大川洞)등으로 표기 했다. : 오창명, 『제주도 마을이름의 종합적 연구』 I, 제주대학교출판부, 2007, 268~318쪽, 참조.

35) 문화역사마을만들기 북제주군추진진협의회, 『북제주군 송당리 보고서』, 각, 2004, 46~49쪽, 참조.

<표 II-1> 송당마을과 주변마을 인구변화 추이

출 처	시기구분	송 당	김 녕	세 화	평 대
제주읍지	18세기말	780명	1,248명	825명	843명
삼군호구가간총책	1904년	695명	1,391명	533명	1,046명
제주도(島)	1929년	1,622명	3,291명	1,465명	1,779명
구좌읍지	2000년	1,210명	3,805명	2,388명	1,794명
리사무소	2010년	1,037명			

송당마을의 서북쪽에 인접한 덕천은 독립된 마을로 있지 못하고 송당에 속해 있었다. 19세기 중반에 와서 ‘금을홀’을 ‘덕천리’라고 하였고 1914년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제주읍 구좌면에 편입된 것으로 보면 알 수 있다.³⁶⁾

4·3사건 전에는 웃손당, 셋손당, 알손당, 대천동, 장개동, 넓은밭, 가시남동, 득산이터, 굴레왓, 한마을곶 등 10여개 자연 마을이 있었다. ‘웃손당’은 ‘영전밭’으로 부르는데 ‘당오름’ 서북쪽에 형성된 마을이다. ‘대천동’은 ‘천미천(川尾川)의 상류로, 장개동 위쪽 마을이다. 알손당은 ‘하동’이라 부르고 ‘본동’은 ‘셋손당’을 이르는 데 다시 ‘동동’(東洞), ‘중동’(中洞), ‘서동’(西洞) 등으로 나뉜다. 중동은 송당리 중간에 위치한다. 2010년 현재는 ‘본동’(本洞 : 셋손당), ‘상동’(上洞 : 웃손당), ‘대천동’(大川洞) 등 3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알송당’은 4·3사건 이후에 폐동되었다. 1948년 가을부터 중산간 마을이 준경토벌대에 의한 대규모 학살로 이어지고 소개령으로 마을을 초토화 작전에 희생시켰다. 거기에서 살아 돌아온 많은 주민들은 토지를 잃고 마을을 떠나게 되었다.³⁷⁾ 1992년 3월 31일 송당 소재 다랑쉬오름에 있는 다랑쉬굴에서 1948년 11월 18일 이 굴에 피신해 있던 종달리와 하도리 주민과 어린이 11명이 유골로 발견된 일이 있다.³⁸⁾

36) 금을홀今勿屹, 今勿을 黑, ‘검은’에 해당하여 屹이 수풀이나 습지, 늪이라고 함. : 오창명 앞의 책, 282쪽.
 37) 조성윤, 「잃어버린 마을과 43의 현재성」 『제주 43유적지 기행 잃어버린 마을을 찾아서』, 1998, 학민사, 9~26쪽, 참조.
 38) 김동만·김기삼, 『다랑쉬오름의 슬픈노래』, 2000, 각, 참조.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 송당마을은 구좌읍 관내에서 적지 않는 인구가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0년 송당마을 현황에서 농가 현황과 토지 이용, 가축사육 현황(제주축산 포함)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2> 2010년 농가, 토지 이용 및 가축사육 현황

총 농가 (388) 세대		총면적 (3,903 ha)				가축사육(두수)		
농가	비농가	전	대지	임야	기타	한우	경주마	젖소
171	217	529	11	1,270	2,093	2023	509	2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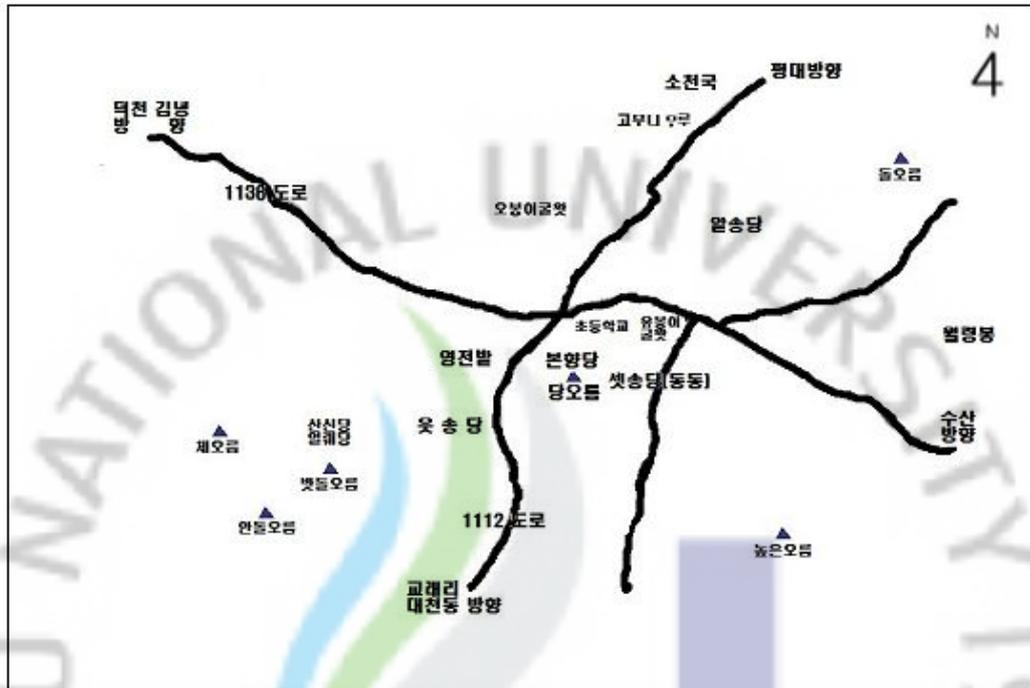
송당마을 농가의 주 소득원은 축산, 콩, 감자, 더덕, 육묘이다. 1960년 대 까지 주 소득 작물은 주로 고구마, 조, 피, 메밀 등이었고,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중반까지는 유채, 밭벼, 메밀, 콩 등이며 1980년 대 후반부터는 콩을 주작으로 감자, 더덕, 도라지를 재배하고 있다. 1970년 대 중반부터 소 값이 상승함에 따라 소 사육이 활발했다가 줄어들었는데 현재는 소와 말 사육이 다시 늘고 있다.

마을 초등학교 설립에서 부지 이용과 도로교통 현황을 보면 마을 내의 관계를 알 수 있다. 우선 4·3 사건을 전후로 해서 초등학교 부지 이설을 통해서 마을 관계를 살펴본다.

1935년 송당 간이학교를 설립할 때 웃송당, 셋송당, 알송당 사이에 서로 유치하려고 갈등을 빚었다. 이때 웃송당 김두홍씨와 김묘생씨가 각각 1584번지 517평과 1594번지 3,010평을 간이학교 부지로 내놓으면서 갈등이 해소되었다. 4·3 사건에 교사를 화재로 잃었다. 그 후 교육청에서 1389번지에 4,000평을 구입하여 4년간 운영하다가 1953년 송당초등학교 설립인가를 받아 개교하였다. 1389번지의 부지를 매각하고 마을 주민이 전부 참여하여 성금을 모아 1366번지에 교사를 짓고 1957년에 이설을 완료했다. 현재 웃송당 1584번지와 1594번지의 땅은 교육부 소유로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마을에서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마을 이장선거를 보면 웃송당에서 출마한 후보가 당선된 일이 없다고 한다.³⁹⁾ 초등학교

39) 김○중, 남, 1961년생, 구좌 송당리, 2010년 12월 12일, 자택 면담조사.

이설과 투표를 통해서 마을주민 의식이 웃송당에서 셋송당으로 변화해 간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도 II-1> 송당마을에 위치한 본향당과 옛 지명

송당마을은 중산간 마을이기 때문에 도로상황으로 이웃 마을과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과거에는 상덕천을 거쳐 김녕마을에 주로 다녔으며 송당마을과 덕천을 같은 공동체로 인식했었다고 한다.⁴⁰⁾ 이것은 19세기 중엽까지 덕천이 송당에 속해 있었다는 사실과 일치한다. 이러한 사실은 송당본향당본풀이에서 ‘거멸’에 큰아들이 좌정한 곳이라고 일컫고 있는데 송당과 같은 공동체문화였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960년대 평대·송당 간에 1112번 도로공사가 시작되어 1980년대 아스팔트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세화리로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었다. 지금은 모든 것을 세화리와 연계해서 이루어진다. 병원, 은행, 학원, 생활물품 구입, 읍사무소 소재 등 사회·경제적 관계가 이동된 것이다.

40) 김○중, 남, 1961년생, 구좌 송당리, 2008년 8월 23일. 자택 면담조사. 과거에는 오일장을 김녕장에서 이용하였고, 상덕천은 송당으로 인식을 하고 하덕천은 김녕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던 것이 평대·교래리 사이 1112번 도로가 포장되면서 가까운 세화리에 장을 보러 가게 된 것이라고 하였다.

송당마을내 신당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Ⅱ-3> 송당마을 소재 신당 개요

분류	송당마을본향당	알송당고부니므루 소천국하르방당	체오름산신당	체오름일췌당
신명	웃손당금백주할망	알송당고부니므루 소천국하르방	상덕천체오름 산신토	상덕천체오름 일췌한집.
제일 (음력)	신과세제 1월 13일 영등손맛이 2월 13일 칠월백중제 7월 13일 시만국대제 10월 13일 (제일의 다른 날은 다닐 수 없음.)	1월 13일 2월 13일 7월 13일 10월 13일	6월 매 7일 11월 매 7일 (원래 여드렛날에 다녔는데 고봉선 심방이 번거롭다 하여 7일에 다님.)	매월 7일
심방	고봉선→고대중→박인주 →문성남→정태진.	본향당 메인심방이 관리했었음.	고봉선 심방이 일췌당과 같이 매었었음. 현재는 없음.	산신토 동일
장소	송당리 당오름	송당 내 건너 알송당고부니므루 60년대 후 폐당 된 상태.	체오름 앞, 당 입구 시멘트로 정비됨. 팽나무 신토.	산신토 서쪽17m 떨어진 참나무 앞.
제물	메1기, 생선 구운 것, 백돌래, 백시루, 삶은 계란, 세가지 과일, 개인별 치마, 저고리, 가락지, 비녀, 옷감	메 1기	메3기, 떡, 숙, 계란, 육고기, 생선, 소, 말, 돼지고기는 금함.	메2기, 떡, 제숙, 계란, 익힌 제물, 삼색물색등
본풀이	백주할망본풀이	백주할망본풀이	과거에 있었지만 전승이 끊김.	있음.
단골과 금기	웃손당 광산김씨 송당주민, 당회, 조합장, 이장. 7일간 육식, 부부간 금기		송당리 주민	송당리 주민
당의 기능	생산, 물고, 호적, 장적	사냥, 목축	사냥, 우마 번식, 방목	산육, 치병



<사진 II-1> 본향당굿 전경

2. 본향당 굿의 요소와 진행

1) 본향당굿의 요소

송당본향당은 백주할망을 조상으로 모신 송당리 주민들과 출신자들이 ‘본향本鄉’이다. 한 마을을 수호하는 당신을 ‘설촌 조상’이라 하고 지연적·혈연적 조상으로 관념하는 당신이 좌정해 있는 곳을 본향당이라 한다.⁴¹⁾

금백조 할마님은 깨긋허곡 뭍은 할마님이난 게란, 감주, 백들레, 백시리 이것만 먹주, 그 웨론 비린겨 돼지고기 그뜯겨 먹는 것들은 앓영 걸리지 말령 허라. 백조 할마님 금백조 할마님 성은 김가고 이름은 백조인 생이라 경 허난 할마님 한티 옛날사 금백조 할마님은 깨긋허곡 뭍은 할마님이난 돼지고기 췌케기 헛뜯헌겨 허곡 또 무신 뭇케기나 췌케기나 먹은 놈은

41) 본향당신을 土主官당 또는 土地官이라 한다. 이것은 土地神임을 나타낸다. 본향당신을 조상이라 하는 것은 당신이 '祖靈의의 性格'과 '土地神的' 기능을 내포 한 것이다. 그리고 수호 직능에 따라 出生에서 死亡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활을 管掌하는 기능을 가진다. : 현용준, 「제주도 무신의 형성」 『탐라문화』 창간호,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1982, 145~146쪽.



<사진Ⅱ-2> 본향당 신위

성에 따라서 당신의 성격이 규정된다. 이렇게 해서 당신이 살림을 분산하게 되고 당신끼리 마을을 가르는 이유가 된다. 육식성을 보인 남편신인 소천국은 밭을 가는 소를 잡아먹었다고 해서 '알손당 고부니므루'로 쫓겨 가게 된다.

(1) 4대제일(四大祭日)

4대제일은 신과세제, 영등손맞이제, 백중마불림제, 시만국대제다. 신과세제에는 자손들이 조상에게 과세문안 인사를 올리며 마을의 안녕과 생업의 풍요를 기원한다. 타지에 나간 단골들까지 참여하는 규모가 큰 곳이다. 외국에 나가 있는 단골들은 신년과세 제일에 맞추어 귀국 일정을 조절하기도 한다. 그러나 단골들은

42) 김○생, 여, 1936년생, 구좌 송당리, 2010년 3월 28일, 자택 면담조사.

43) 브름웃또는 대개 농업을 관장하는 본향당신으로 위치를 차지해 만민백성으로부터 봉제를 받는다. 또 브름알로 좌정한 신은 일헛당이나 생업신으로 일정한 단골로부터 얻어먹게 된다. : 문무병, 『제주도 본향당 本鄉堂 신앙과 본풀이』, 민속원, 2009, 175쪽.

석 달은 정성을 해야 할마님한테 가 주.42)(A02)

(풀이 : 백주할망은 깨끗하고 맑은 할머니이니까 계란, 감주, 백돌래와 백시루떡만 먹는다. 그 외에는 돼지고기 같은 것은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한다. 백주할망, 성은 김가이고 이름은 백주인 것 같고, 백주할망은 깨끗하고 맑은 할망이니까 돼지고기나 소고기 말고기 먹은 사람은 석 달을 정성해야 한다.)

이렇게 본향당신은 정화되어 있는 신이기 때문에 단골이 금기를 어긴 만큼 부정함을 피해야 한다. 마을주민들이나 본향당 단골들은 고기 냄새 나는 것을 멀리하는 미식성(米食性)을 가진 브름웃또를 신성시 여긴다.43) 식

네 번의 제일에 모두 참여하면 욕심이 세다고 인식되어 제일에 두 번만 참여한다. 따라서 송당본향당에서는 제일 참여 정도가 단골의 윤리를 구분하는 규범이 되기도 한다.

구술자 : 예기가 대학 시험을 뺀. 할망한테 아무 나 못 가메. 옛날엔 가는 본 멧일 정월 열사흘, 이월 열사흘, 칠월 열사흘, 시월 열사흘 일 년에 네 번 뺏기. 그 다음에 움직 거렁 잘 못 멧기당 췌 받아. 계난 할망한테 정월 열사흘에 강 흐난. 난 우리 아딜 대학을 시험 보래 가사 할 겨우다 허난. 나가 어머니 돌아가신 뒤 흐난 삭망을 출려 가 살거. 할망 알앗젠. 이젠 산신한테 메 헤어근 메 세게 헤연.⁴⁴⁾ (A03)

(풀이 : 아들이 대학 시험을 볼 때지만 백주할머니한테는 아무 때나 못 간다. 본멧일⁴⁵⁾ 정월 열사흘, 이월 열사흘, 칠월 열사흘, 시월 열사흘, 일 년에 네 번밖에 그 다음 잘못해 다니면 죄를 받는다. 할머니한테는 정월 열사흘에 가야 하는데. 우리 예기 대학시험 보러 가야 할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 돌아가셔서 삭망을 차려가야 된다 하니까. 할머니가 알았다고 했다. 그런 다음 산신⁴⁶⁾한테 메를 세 개 준비해서 갔다.)

집안에 제사가 있는 경우에는 여자들이 음식 준비를 한다. 이때 제수장만을 하면서 육류를 만져야 하는데 육식을 금하는 본향당 금기에 부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신과세제에 가려면 칠일 정성을 해야 본향당신 앞에서 제향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죄를 받는다는 것은 금기를 어겼을 때 당신한테 벌을 받아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된다는 말이다. 강○순씨도 신과세제에 같은 경우로 참여할 수 없었다고 한다.

구술자 : 정월 열흘날이 할망 식게 난, 할망 돌아간 때부턴 정월에 멧기지 못 했주. 경흐단 ○○어명이 출리게 췌 난 으 몇 년은 정월에 감서. 식게 흐젠허민 육케기를 문직 거려사 흐주게. 정월에 당에 가 불민 좋 주게 아멧해도 먹음이 후끈 허여. 이젠 정월에 멧겨지난 좋아. ○○어명은 날 테려당만 주민 본향 아핀 나가 불 거 난. 메누리도 그 줄 알아.⁴⁷⁾(C01)

(풀이 : 정월 열흘이 시어머니 제사니까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부터 정월에 본향당에 다니지 못 했다. 그러다가 ○○엄마가(며느리) 제사를 차리게 되니까, 정월에 가고 있다, 제사를 차리려면 육고기를 만져야 하기 때문이다. 정월에 당에 갈 수 있으면 좋다. 아무래도 마음이

44) 김○생, 여, 1936년생, 구좌 송당리, 2010년 3월 28일, 자택 면담조사.

45) 본멧일 : 당에 갈 수 있는 정해 놓은 날.

46) 산신 : 송당리 체오름 앞, 산신당.

47) 강○순, 여, 1934년생, 서귀 천지동, 2010년 3월 20일, 자택 면담조사.

편하고 지금은 정월에 다닐 수 있어 좋다. ○○엄마가 자신을 데려다 주기만하면 본향 할머님
한테는 자신이 참여할 수 있게 되니까 며느리도 그렇게 알아준다.)

집안에서 제사를 준비할 때 음식장만에 대한 이야기다. 때문에 제사에서 물러
나서야 자유롭게 당에 다닐 수 있는 입장이 된다는 것이다.

단골들은 신과세제에 참여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긴다. 그렇게 하기
위해 부정하지 말아야 하는 금기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4대 제일을 여기면서 본
향당에 가는 것도 금기 파괴다. 아무리 본향당신한테 급하게 빌어야 할 일이 생
겼다 해도 갈 수 없는 것이다. 그럴 때는 대신 산신당에 가기도 한다. 이렇게 단
골들은 제일을 엄수하고 금기를 지켜야 본향당에 갈 수 있다는 규범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2) 당(백주할망당)

당신본풀이를 통해서 보면 본향당신들은 자신이 차지할 곳을 찾아 돌아다니다
가 알맞은 마을을 정해서 좌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먼저 들어온 신이 ‘마을도
땅도 내 차지다 다른 데로 가라’ 하면 여기 저기 돌아다니다가 신이 차지하지 않
는 마을을 찾아간다. 그렇게 한 마을에 당신으로 정착해 가는 당신의 노정기가
본풀이에 나타난다. 당신본풀이에서 이러한 것이 나타나는 것은 마을 선주민이
정착지를 선정해서 삶의 터전을 개척했던 과정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처음 도착한 곳이 마을 사람들에게 제향을 받는 신성한 곳이고 신당이
된다.

본향당신 직능은 마을의 토지·산수·나무 등 자연의 주인임과 동시에 마을의
호적·출산·사망·생업 등 생활 전반을 차지한다. 본풀이에서 심방이 ‘어디가면
무슨 당, 어디가면 무슨 당’이라고 당명을 열거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웃송당 백
주할망당’은 송당본향당의 명칭이다. 송당마을에 웃송당이라는 자연마을이 있고,
당오름에 백주할망이 당신으로 좌정해 있는 본향당이 있다. 이렇게 제주도의 당
은 산·숲·냇물·연못·언덕·물가·평지의 나무나 돌이 있는 곳에 있다.

풍속에 대체로 산·숲·냇물·연못·언덕·물가·평지의 나무나 돌이 있는 곳이다 고루 신당을 만들어 놓는다. 그리하여 매년 설날부터 정월 보름까지 무격(巫覡)이 신독(神籙)을 받들고 나희(儺戲)를 행한다. 정과 북을 울리며 안내하여 사람들이 다투어 재물과 곡식을 내 놓아 곳을 한다. 48)

당오름에 있는 송당본향당 진입로는 잘 정비되어 있다. 음력 2008년 1월 7일에 세운 정남 옆 비석에 설명이 있다. 당 왼편에 기와 건물이 있고 당곳을 할 때에 쓰이는 초석, 천막이 놓여 있다. 제단은 4단이고, 본향당신 위패가 모셔진 당궐이 있다. 당궐 안에 비석으로 된 위패와 나무로 된 궐이 있고 당신의 옷가지며 신발, 가락지, 비녀 등을 넣어둔다. 평소에는 궐문을 잠그기 때문에 제일에는 궐문을 열고 제를 지내고 있다. 제단에는 3개의 궐이 있다. 그 위를 납작한 현무암 돌판으로 덮었다.

본향당 정비는 당 제일마다 단골들에게 조금씩 동참비를 받고 나머지는 송당마을 단골들이나 관심을 가진 마을 주민을 통해 모으거나 봉사와 노동력 참여와 기계동참을 받고 이루어졌다. 1993년 당정비는 마을 이장이 당 보존회장으로 주축을 이루고 당회(단골로 형성된 부녀회)에서 동참비 관리를 맡았었다.49) 이렇게 본향당은 지역과 혈연 공동체 형성에 영향을 주기도 하며 본향당 신앙공동체는 사회적 환경과 역사적 사건에 따라 흩어지고 다시 모이는 역량을 발휘하기도 한다

구술자 : 만드는 것들은, 돈은 우리 막 회사한 돈으로 했지. 그 돈은 어디 하늘에서 떨어졌나. 회사를 몇 번 했지. 할머니를 찾아와서 양철지붕 집 아래쪽만 할 때도, 내가 책임지고 알손당 셋손당은 받으러 가지 않았지만 전부 돌아서. 돈을 낸 사람은 편안했지만 내지 않은 사람은 한명도 편안하지 않았어. 다른 교를 믿었지만 반 정도는 냈고, 타불교를 믿어서 반만 내겠다고 해서 반만 냈어. 오천 원 내는 것을 오백 원이라도 낸 사람은 그런대로 살다 죽고, 그렇지 않아 실록하며 안 낸 사람은 시원치 않았어. 처음 모은 돈은 백주할망 양철지붕 집 짓고, 나중에 큰집 지을 때엔 돈을 더 많이 모았지. 셋손당 어른들이여 총무여 전부지. 우리는 열사홀 제일에 가서 만원이나 이만 원씩을 모아서 했지. 누구 돈을 내어 놓을 사람 있겠나. 그렇게 모았어. 담장할 때는 모여들어서 나온 사람 몇 사람이 경운기를 빌어서 돌을 실어다

48) 『東國輿地勝覽』濟州牧 風俗條, 俗尙陰祀乃於山藪 川池丘陵墳衍木石 俱說神祀 每自元日至上元 巫覡共擊神籙 作儺戲 鐃鼓前導出入閭閻民爭 損財穀以祭之.

49) 1993년, 본향당 담장을 정비 시.(김○생, 1936년생, 구좌 송당리, 2010년 3월 28일, 자택면담조사)

담장을 높게 한 거야. 그렇게 당집 하는데 전부 돈을 모으고 한 거야.⁵⁰⁾(A04)<녹취원문, II-2>.

본향당신은 지금 있는 당오름에서 4·3때에 임시로 옮겨진 일이 있다. 그 후 다시 원래 있던 당오름에 옮겼다. 그때 정비 사업할 때 동참비를 냈었다. 처음 당 정비를 할 때는 웃송당 사람들만 참여하였는데 그 후에는 셋송당 사람들도 함께 참여를 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웃송당 본향당이 송당본향당으로 변모하였다. 결과적으로 셋송당 사람들이 본향당 참여는 마을의 신앙통합을 이루게 되었고 본향당 신앙은 공동체 형성에 구심점이 되었다.

(3) 매킨심방

단골들은 매킨심방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는다. 특히 남자 심방이 당을 매어야 한다는 송당본향당 ‘관습법’이 있어서 더욱 그렇다.

구술자 : 역사는, 할아버지 말씀을 내가 들었었으니까 하는 말이다. 고대중 심방이 죽게 되니까, 그의 각시가 다른 남자심방을 데려왔었지. 백주할망 당에는 남자심방이 곳을 해야 한다는 것이 있기 때문이야. 그런데 마을에서 더 이상 매킨심방이 없는 부인이 백주할망 당에 관계하게 할 수 없다 하여 그만두라고 했어. 그래서 더 이상 못하게 해서 박○○심방을 매킨심방으로 오게 했는데 일 년을 하고 그만 죽게 됐어. 박○○심방은 백주할망 앞에서 갓을 쓰고 공손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백주할망 앞에는 송낙을 쓰고 겸손히 전부 편안하게 해달라며<말 소리가 작고 간절하다.> 할머니의 역사를 간절하게 빌어야 하는 건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나쁜 일을 당했어. 그 다음 심방인 문○○심방이라는 심방도 어떻게 했는데 죽어버렸고. 그 다음 지금 심방은 잘하고 있는지 곳은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지. 심방이 갓을 쓴 것은 공손하지 않은 것인데 백주할망 역사는 잘 알지 못 해.

조사자 : 역사를 못 해요. 어떻게 못 하는데요.

구술자 : 앞뒤가 바뀌고 얼버무리면서 나오는 대로, 다 푸는 것도 앞뒤 순서를 바꿔며 생각하는 말을 그냥 해버리니까 안 되는 거야.

조사자 : 본을요.

구술자 : 본을 제대로 풀지 못 한 거야. 지금 심방도 하나부터 열까지. 고대중심방이나 그 부인이나 그 어머니가 살았을 때는 본을 차례로 풀어서 자신들은 가만히 앉아서 들을 때면 귀에 절절이 들려서 계속 듣고 싶었는데 소리도 좋아서 하나에서 열까지 다 잘 했지.

50) 김○생, 1936년생, 구좌 송당리, 2010년 3월 28일, 자택 면담조사.

조사자 : 부쇠함 하는 것과 요왕작은 딸 하는 것도.

구술자 : 할 뿐만이 아니라.

조사자 : 부술도 얻고 콩깍지 하는 것도.

구술자 : 내 아기, 죽으라고 던져버린 아기를 어떻게 상종하느냐며 ‘ㄴ부니뭉’에 도망가다 이 세상 떠난 것도 ‘ㄴ부니뭉’ 좌정했다고? 그것은 ‘ㄴ부니뭉’로 죽을 힘 다해 도망가다 이 세상을 떠났지. 이런 것을 알지도 못 해.

조사자 : 그리고 몇째 아들.

구술자 : 그러니까 작은 아들은 와서 큰아들은 어디 김녕 어느 당, 어디 어느 당, 어느 아들 와산은⁵¹⁾ 어디 등, 제주도를 빙 돌면서 아들이 전부 당을 매었고, 그런데 어느 아들이 어느 당 댄 것을 모두 일컬어야 하는데 그걸 다 일일이 일컫지 못 했어. 그곳에도 제일도 있는데 고대중 심방 아버지 때나 고대중 심방 때는 다 일컬었는데.⁵²⁾ (A05)<녹취원문, II-3>

김○생씨는 과거 매인심방에 대해 말을 하였다. 송당본향당 매인심방은 남자 심방이 매어야 하고 본향당신인 백주할망한테는 정중하게 송낙을 쓰고 간절히 빌면서 당굿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본풀이를 할 때는 백주할망의 역사를 잘 풀어야 하며 순서를 틀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심방한테 무서운 일이 닥치게 된다는 것이다.

송당본향당을 매어왔던 고대중 심방 일가에 대한 믿음이 절대적이었다는 말을 하고 있다. 대를 이어 오면서 본향당을 매어오던 심방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그 가계에 대한 신뢰다. 김○생씨는 과거에 해왔던 대로 고대중 후임이 그 가계에서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 이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과거에서 해오던 그대로 집안에서 이어가는 것이 제주도 무속사회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어졌으면 하는 것이다. ‘물린심방이’ 바로 그것이다.⁵³⁾ 하지만 전통을 지키는 상황이 달라져서 과거 관습이 지켜지지 않게 되고 본향당에는 문제가 생겼다고 하였다. 그래서 본향당당신에게 있는 체계를 지켜서 전통방식대로 해야 하는 것인데 그것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무서운 별로 죄 값을 치르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본향당을 댄 심방뿐만 아니라 단골과 그 집안, 마을까지 해를 입는 불행한 일로 커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것은 본향당 규범이 되어 심방과 단골

51) 와산 : 조천읍 와산리. 중산간 마을.

52) 김○생, 여, 1936년생, 구좌 송당리, 2010년 3월 28일, 자택 면담조사.

53) 물린심방 : 집안에서 하던 심방 일을 물려받은 심방을 단골들이 그렇게 말함.

의 유대관계를 이어주며 매킨심방은 몇 대를 걸쳐 내려왔던 것이다. 이 이야기에서 본향당본풀이는 순서를 절대로 바꾸면 안 된다는 본향당 규범을 의미있게 말해 주고 있다.

구술자 : 그러니까 할머니의 본은 정성스럽게 해서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빠뜨림 없이 풀어야 하지. 그래야 할머니가 신나락 만나락 해서 할머니의 원정이 풀어지는 거야. 지금 말은 심방은 그걸 어느 정도 하나까 할머니가 풀어져서 심방이 죽지도 않고 자손들도 편안한 것이야. 그래서 심방을 매게 한 것이고. 안한 것을 바꿔 하면 마을도 편안하지 않고 무엇이든 순조롭지 않게 돼. 지금 심방에 대해서는 그중에 낫구나 생각했는데 사람들도 그렇게 말했었어. 그래서 지금 심방한테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예전에 좀 부족하다고 했던 심방들은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된 거지.

조사자 : 저는 예전에 박심방 할 때 처음 봤다가 이번 굿할 때 다시 보게 되었어요. 백주할망이 제장에 들어와서 제관들을 절 시키고 자손들 시킬 때 소미가 장구를 치고 심방은 앉아 치마를 어깨에 둘러메고 오늘오늘이여 노래 한 것이 백주할망 본을 푸는 것인지 아니면 그전에 서서 하는 것이 본을 푸는 것입니까.

구술자 : 그거는 본을 풀면서 백주할망을 놀리는 거야. <옆구리로 떠를 때는 시늬를 보이며> 그전에 본을 막 풀어 놓고, 백주할망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 치마도 어깨에 둘러메고 팔찌거리도⁵⁴⁾ 둘러메는 거고, <어깨를 춤을 추듯이 덩실거리며 환하게 웃으며.>

조사자 : 예 장구치며 서우젯을 하고 춤추면서요.

구술자 : 그렇게 백주할망을 신나락 만나락 하게 놀리게 하기 위해 사람들이 백주할망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도 하는 것이지. 백주할망을 풀어드리는 것이 우리가 편안해지고 심방도 편안하고 마을도 편안해지는 것이야. 그렇게 해야만 마을과 심방한테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는 거야. 백주할망은 영이 있어서 좀처럼 벌을 주지 않는데 벌을 줄때는 무섭게 받아야만 해.

조사자 : 그것은 백주할망을 놀리려고 하는 것이군요. 옛날에도 심방들이 할머니 놀리려면 그렇게 했었나요. 당굿 할 때에.

구술자 : 백주할망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심방들이 당굿을 할 때 귀신이 붙은 것처럼 발바닥이 하늘 위를 오르며 날아다녔어. 이제는 신이 서지를 얹아 그렇게는 못하고 있지. 백주할망 신을 타서 하늘만큼 뛰어 오르면서 날면 동네에 굶은 일이 일어날 것을 모두 백주할망 영으로 들었지. 어느 달이 어떻게, 몇 집이, 어느 성은 어떠한 것 때문이라고 고봉선 심방이 살았을 때는 팔팔 날고 들었는데 지금 심방들은 백주할망 신을 타게 그렇게까지는 못 하고 있어. 옛날 같은 심방들 어디 있겠니? 없어. 대중이 아방은 잘 했는데 대중이 심방 때부터는 그런 것이 조금 부족했어. 대중이는 자식들 대학 공부를 시켜 잘 만들어 보려고 숨듯이 굿을

54) 팔찌거리도 : 과거 조상들이 사냥을 다닐 때 팔에 매고 사냥을 했던 것을 생각해서 단골이 신에게 준비하는 두마 정도의 찬.

했기 때문에 죽었어.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을 싫어해서 <고개를 깊이 숙이는 모습을 보이며> 그렇게 하다가 삼년 되지 않아 고대중 심방이 죽어버렸지.

조사자 : 그 전에는 막 하다가요.

구술자 : 막 했어, 하늘만큼 땅 만큼 뛰면서. 우리 어머니 “아이고 오늘은 심방이 신을 타서 막 하늘을 날 것처럼 팔팔 날아라.” 라고 했었어. 그런 사람이 자식들 큰사람 만들려고 하다가 그렇게 됐지. 이제 심방아들이라고 낮게 불까봐서 심방아들이라고 해도 아무렇지 않지. 요즘 그걸 가리니? 그러는 건데 대중이도 빨리 죽어버렸어. 대중이도 죽으려고 하니까 정신없이 달랑달랑 곳을 하고. 옛날처럼 달락달락 춤을 쳤으면 지금까지도 살았을 건데. 죽을 때가 아닌데 죽었어.⁵⁵⁾(A06)<녹취원문, II-4>

본향당본풀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빠지지 않게 이야기를 해야 하며 본향당신의 본(역사)을 원래대로 하지 않고 바꾸어서 하면 안 된다는 말이다. 김○생씨가 말하는 좋은 심방은 이런 것을 명심해서 바르게 ‘역사를 잘 해 주는 심방’ 이다.⁵⁶⁾ 본향당신 역사를 빠짐없이 또 변형해서도 안 되며 정성을 다해 백주할망한테 올려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단골의 어려움을 알아주는 심방에 대한 고마움도 있지만 본향당곳을 봉제하는 사제를 보는 입장은 엄격하다. 보통 때와는 다르게 본향당 단골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다. 심방의 변화에도 예리한 관찰을 하고 있고 본향당을 전승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부분에서 더욱 그렇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 나타나는 문제를 결과와 연계해서 판단하는 데도 엄격하다.

예전에 송당본향당 매인심방은 웃손당에 살았었다.

조사자 : 고봉선 어른은 셋손당 살았구나 예.

구술자 : 아니 웃손당 살아 신디 그 때는 문 덜 속궤헨 네려 간 셋손당 완 문 덜 집 짓곡헨 살았주게. 우리 웃손당 심방이여 뭐여 웃손당 당이랏주. 경헌디 셋손당 사름덜이 전부 이제 영 잇은 할망이엔 우리 할마님한테 다와.

조사자 : 경헌난 그 때 부터 다니게 뵈엇구나. 그 전이는 다니지 안허단.

구술자 : 응, 응, 우리 웃손당 할망이주.

조사자: 경헌난 셋손당에서 보민 피난 간 살 단애 그 집이서.

구술자 : 손당 계복헨 올라 오난애 테중이 아방이 고봉선이 좋게 집을 짓언 그디 할망을 간, 당 할망신디 간 모사단 그디서 제일을 쳇주게 안허민 그디 할망한테 간 못 헛주게 계난 할망은 베고판, 베고플건 스실이주게,⁵⁷⁾ (A07)

55) 김○생, 여, 1936년생, 구좌 송당리, 2010년 3월 28일, 자택 면담조사.

56) 앞과 동일.

(풀이, 조사자 : 고봉선 어른은 셋손당에 살았군요.

구술자 : 아니, 웃손당에 살았는데 그때는 모두 소개해서 해안마을로 내려갔다가 다시 셋손당으로 올라 와서 집을 짓고 살게 되었어. 우리 웃손당 심방이고 웃손당 당이었는데 셋손당 사람들이 영이 있는 할망이라고 우리 할망한테 다 오게 되었지. 복개해서 고봉선 심방이 집을 좋게 지으니까 당에 가서 백주할망을 모셔 왔어. 그래서 그 집에서 당 제일을 치루게 되었지. 백주할망한테 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배가 고팠지)

4·3 때에 고봉선 심방이 자신의 집에 본향당신을 모시고 당굿을 치렀다는 이야기는 본향당 매킨심방으로서 상당한 신앙심을 가진 봉제자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4·3사건 때 해안마을로 소개해서 내려갔다가 송당에 다시 올라왔을 때의 일이다. 당시 고봉선 매킨심방이 자신의 집에 당신을 옮겨와서 본향당굿을 하였다. 당시 웃송당에는 금지령이 내려져 있어서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때 김○생씨는 고봉선 심방이 하는 곳을 보았는데 수염이 좋았으며 굿을 잘 했다고 기억을 하고 있다.⁵⁸⁾ 그의 말에 따르면 4·3전에 고봉선 심방은 웃송당에 살았지만 다시 송당으로 올라온 후에 셋송당에서 큰 집을 짓고 살았다고 하였다. 당시에는 중산간 마을이 초토화되었는데 대부분 웃송당 사람들도 집을 잃고 셋송당에서 집을 짓고 살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심방집에서 당굿을 하게 되니까 셋손당 사람들과 알송당 사람들이 본향당에 다니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때부터 웃송당본향당 사정이 달라지게 되었다. 단골과 심방이 셋송당에 집을 짓고 살게 되자 셋송당마을 사람들과 알송당 사람들에게 웃송당본향당을 개방한 것이다. 그래서 셋송당 사람들과 알 송당사람들이 영험하다는 송당본향당에 다닐 수 있게 되었고 셋송당 사람들을 새로운 단골로 포용한 배경이 된다. 역사적인 사건에 의해서 굳게 단혔던 웃송당본향당이 셋송당과 알송당 사람들을 단골로 받아들이는 변화를 맞게 된 것이다. 그 후 웃송당본향당을 송당본향당으로 부르게 되었고 이것은 당신앙이 사회를 통합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다. 이렇게 해서 지금의 단골구성을 이루게 된 것이다. 마을공동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본향당 심방이 어려움을 이기는 방편으로 공동체의 재건과 확대를 한 것으로 볼 수

57) 앞과 동일.

58) (A17)와 각주 118, 참조.

있다. 물론 웃송당 단골들이 허용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단골로 편입할 수 있었을 것이다. 역사적인 환경이 본향당 단골공동체의 해체와 새로운 단골편입으로 본향당 신앙통합을 가져온 것이다. 그 배경에 본향당 매인심방 역할을 볼 수 있다.

구술자 : 고봉선 하르방은 거시기 허단 이디서 죽어 부러주. 고봉선이가 두 가지 손당 아니 올란, 그기서 해변 살았주.

조사자 : 아 속가 내려가네 예.

구술자 : 응, 속가 내려 가네 안 올라네 봉선이 그 아방은 손당 완 살다네 손당서 죽고, 고봉선 아털 고대중이 두가지가 해변이서 내려가난 아니 오랏주.

조사자 : 계난 고봉선 하르방은 하영 아판 돌아가서 수과.

구술자 : 아니게, 아파사 정신이 얼망절망해서 이 세상을 돌아가 주.

조사자 : 경허난 돌아가실 때까지 그 해까지 당을 했구나 예.

구술자 : 응, 당 허연게, 그 추룩 할망 하르방 죽어 부러도 하르방은 더 살암직해도 나가 하 놓으난 죽어 부러주게. 할망도 막 오래 살안⁵⁹⁾ (A08)

(풀이, 구술자 : 고봉선 하르방은 그러다가 여기서 죽었지. 고봉선<고대중을 잘 못 말함>이 부부는 송당에 올라오지 않고, 해안 마을에 살았어.

조사자 : 아, 소개 내려가서요.

구술자 : 응 속가⁶⁰⁾ 내려가서 올라오지 않고, 봉선이 그 아방은 송당 와서 살다 죽었고, 고봉선이 아들 고대중 부부는 해안마을에 내려가서 다시 올라오지 않았지.

조사자 : 그래서 고봉선 하르방은 많이 아파서 돌아가셨습니까.

구술자 : 아니고, 아프고 정신이 없어져야 돌아가지.

조사자 :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 해까지 당굿을 했습니까.

구술자 : 응, 당굿을 했지. 그렇게 할망, <잘 못 나온 말> 하르방은 죽어 버렸는데 하르방은 더 살 수 있게 건강했어도 나이가 많으니까 죽어버렸지. 할망은 오래 살았어.)

본향당신과 매인심방, 단골은 사이에 중요한 관계형성이 있다. 이부분에서 보면 당시 고봉선 심방 아들인 고대중은 4·3 사건 때 해안마을에 소개해 갔다가 다시 올라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보면 본향당의 매인심방 관계에서 유대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본향당체계에서 보면 부친이 웃송당본향당 매인심방이며 나이가 많으면 아들이 그것을 맡아야 된다는 것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송당으로 귀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앞으로 본향

59) 김○생, 여, 1936년, 구좌 송당리, 2010년 3월 28일, 자택 면담조사.

60) 속가 : 소개령(疏開令), 4·3 당시 중산 간 마을에서 해안 지대로 내려가라는 명령. (1948년 11월)

당체계에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 후 고봉선 심방은 송당으로 돌아와서 본향당곳을 1957년 신과세계 곳까지 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하지만 큰아들인 고대중은 송당본향당 메인심방을 맡았고 1981년까지 본향당곳을 별 무리 없이 이끌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본향당곳은 심방의 끊임없는 노력과 정성에 의해서 변함없이 이어졌던 것이다. 그리고 단골들은 심방이 본향당신에게 제향할 때 정성스럽게 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단골들은 심방이 본향당곳을 할 때에 하는 말과 모습에 모든 관심과 시선을 둔다. 또 그걸 잘 기억을 한 다음 본향당에서 일이 일어날 때에는 그 결과와 연계해서 생각하고 있다. 강○생씨도⁶¹⁾ 당시 메인심방에 대해 많은 기억을 하고 있었다.

구술자 : 본향당을 일 년에 두 번만 가는 걸로 작은 시아버지한테서 들었는데 그렇지 않았어. 그 때부터는 정월에 못 가면 이월에 가고 이월에 가서 걱정스런 말을 듣게 되면 칠월에 정성을 다시 해서 가는 거라고 생각했지.

조사자 : 그 때는 고대중 심방이 있을 때였나요.

구술자 : 그 때 그 심방이었지. 그, 그 다음 해에 박심방이라는 사람이 와서 하다가, 그 사람도 젊은 사람인데 몇 해 하지 않아서 갑자기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어. 그 다음에도 젊은 사람인데, 그 사람, 문심방이라는 사람이 죽고 그 처는 오래 다녔어. 홀연히 두 사람이 죽은 것은 확실하게 알아. 그 홀어명은 당에 갈 때마다 먼저 꿇려 앉아 절하면서, 그저 사람만 내세워 달라고 백주할망한테 비는 걸 보았어. 그것이 통했는지 지금 심방이, 한라문화제에서 배치를 해주었다며 다른 심방들은 오려고 해도 올 수가 없다고 했어. 지금이라도 다른 심방으로 바꾸겠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했어.

조사자 : 지금 송당리 본향당을 맨 심방은 일체 모르는 사람입니까.

구술자 : 옛날에는 몰랐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 사람인줄 몰라. 그 박심방이라는 사람은 함덕 사람이야, 박심방이 나이를 쓴 몇 살 정도인데, 문심방이 박심방보다도 젊은 사람이고 몸집과 키도 좋고 말소리가 그 근처에 다 울리게 할 만큼 컸어, 갑자기 삼일 정도 아프더니 죽었다는 말이야. 그래서 그 처가 오랫동안 당 일을 했는데 무슨 일이 생기면 같이 가드리겠다고 했었어. 다른 사람들도 급한 일이 생기면 그렇게 했었다고 매달 열사흘 날은 할망날이니까 당에 정성하러 갔다 온다는 말을 듣기도 했지.⁶²⁾ (C02)<녹취원문, II-5>

61) 강○순, 여, 1934년생, 서귀 천지동, 2010년 3월 20일, 자택 면담조사.

62) 앞과 동일.

웃송당본향당 매킨심방들은, 1982년 신과세제에 박인주가 매킨심방으로 본향당 곳을 주관하면서 ‘공선가선’ 매킨심방계보에서 나타나고 있다. 과거부터 1957년 타계한 고평선 심방과 그의 아들 고대중 심방이 1981년까지다.

오늘 할마님에 당에 당베메져, 절엔 절베메져 궁엔 궁베메져, 매킨공서 아산베를 메져,⁶³⁾ 할마님덕택으로 손당 상단골 어른 중단골 어른 하단골⁶⁴⁾ 어른님네 모여앉아 이당메라 이절메라 허여분부로, 이당 종서 허젠헙네다. 오늘 낱딸룬내 선안내 방돋운내 허저헙네다⁶⁵⁾ 이레오난 그전 이당 설비헙 때 웃노늘⁶⁶⁾ 김씨선생 매던 베를 메져헙네다. 저 하늘도⁶⁷⁾ 김씨선성 베를 메져헙네다. 알손당⁶⁸⁾ 박씨선성님 매던 베를 메져헙네다. 고씨하르바님 매던 베를 오늘 메져헙네다. 고씨 부모성제어른 매던베를 메져 헙네다. 고씨성님 매던 베를 메져헙네다. 고씨성님 베를 삼시왕에 잡자부난, 신의성방 경신해 경신생 예순셋 당엔 당베 절엔 절베 궁엔 궁베 매킨고서 아산신베를 메져헙네다. 오늘 할마님 저 궁안으로 과세 열명허저⁶⁹⁾ 헙네다.⁷⁰⁾

웃송당본향당 매킨심방 계보로서 7대를 일컫고 있다. 박인주 심방은 구좌읍 동북마을에 살던 큰 심방이었다. 주변마을에서 여러 당을 매고 있던 심방이기도 하다. 하지만 송당본향당을 매고 나서 두 해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의 뒤를 이은 심방은 박심방 후계자인 문심방이다. 그 심방도 몇 해를 넘기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갑작스런 죽음을 맞았다. 1981년 23년 동안 당을 매어오던 고대중 ‘물린매킨심방’이 세상을 떠나자 그와 비슷한 나이의 박심방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다시 그의 후임자였던 더욱 젊은 문심방이 세상을 떠났고 송당본향당에서는 불안한 의심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 당매킨 심방의 죽음에 대한 단골이 하는 이야기는 III 장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겠다.

63) 심방이 매킨임무를 맡게 된다는 관용적인 말.

64) 단골의 분류를 상·중·하로 나누었고 그에 따라 책임이 다르기도 했었음.

65) 낱딸룬내 선안내 방돋운내 : 의미가 확실하지 않고 무가에서 사용되는 관용어구인 듯.

66) 웃노늘 : 웃 와홀. 조천읍 와홀의 자연 마을.

67) 하늘도 : 알선홀도, 선홀아랫마을 조천읍 선홀의 자연마을.

68) 알손당 : 송당마을 내 웃-, 셋-, 알-, 중 알송당마을.

69) 열명허저 : 성씨와 이름 자신이 사는 곳과 나이 하는 일등을 신 앞에 알려드리는 것 .

70) 문화·역사 마을 만들기 북제주군추진협의회, 『북제주군 송당리 보고서』, 각, 2004, 발굴자료, 202쪽.



<사진 II-3> 제물올림

(4) 제물과 금기

본향당에 갈 때 제물은 과거부터 변한 것이 없다. 무속생활의 음식으로 돌래떡과 시루떡, 감주, 계란, 생선, 과일 세 가지 종류, 향, 초가 있다. 정성을 더한다면 당신인 백주할망을 위한 옷 한 벌과 과거 사냥을 하러 다니던 조상을 위한 팔찌 거리다. 그리고 지전 종이와 물색, 실, 운수를 보는 도십쌀과⁷¹⁾ 비용, 액막이 할 때 필요한 시령목⁷²⁾ 등 단골이 필요한 만큼 준비한다.

구술자 : 제물은 이곳 송당 당에는 옛날부터 바꾸지 않아서 백돌레나 백시루 떡이야. 어디 술 해 가지는 않고 옛날 감주, 계란안주, 백돌레 백시루 저 계란하고 그렇게 깨끗하게 해서 맑은 제수는 생선으로 옥돔생선으로나 해. 그렇게 해서 할머니한테 인정으로 돈을 대령하고, 할머니 뚝으로 마음 있는 사람은 팔찌거리⁷³⁾ 두마를 해서 가져오고, 또 옷을 지어서 한 벌 가져오고, 요즘 사람들은 몇 사람 정도나 남의 하는 걸 보고서 옷을 하고 가는 거야. 어디 일본 같은 데에 가서 온 사람이나 옷을 해오고 했지.

71) 도십쌀 : 심방으로부터 운수나 신에게 부탁할 일이 있으면 신의 의견을 듣는 수단으로 온전한 낱알로 흰 쌀 한 사발 정도.

72) 시령목 : 무명으로 가늘게 짜여진 천.

73) 팔찌거리 : 사냥을 했던 조상이 팔에 매었던 것을 생각해서 천 두마 정도를 올리는 것.

조사자 : 신과제제 때 당에 갈 때 제물준비는 어떻게 하나요.

구술자 : 미리 준비해서 쌀 한 되 하고 백 둘레 떡을 해가지고 먼저 향에 불을 붙여서 그제 올हे는 만사를 이루게 해 주십사하고 속으로만 세면서 절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한 후 심방한테 산을 받고 그거지 뭐.

조사자 : 할머니한테 갈 때는 심방한테 산을 받으려고 가는 것이지만 차려 가는 것이 정성이군요.

구술자 : 그렇지, 심방한테 산 받으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해서 차려가야 하는 건데 부정을 말고 칠일정성으로 돼지고기나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가만히 누워서 어디 손도 다치게 하지 말고 <자신의 반창고로 감은 손가락을 내보이며> 다친 게 아니라 별어져서 된 거야. 그렇게 어디 다치는 데가 없게 하려면 일주일 동안은 놀며 지내야 하는 거야. 당제일 전전날에 쌀을 물에 불렸다가 전날 아침이 밝아 오면 해변 마을로 내려가 방앗간에서 쌀을 갈아다 놓는 거야. 어두워져 가면 둘레떡을 만들어 두고 제일날 아침에는 메를 지어서 당에 가는 거야. 귀신은 김을 맏는 거라서 차가우면 안 돼.⁷⁴⁾ (A09)<녹취원문, II-6>.

옛날에 당에 갈 때의 제물 준비를 강○순씨한테 알아보았다. 웃송당 광산김씨며느리지만 송당에서 살지는 않았었고 친정인 성산읍 신산리에서 친정어머니가 명심하여 제물을 준비 했던 기억이 난다고 하였다.⁷⁵⁾

구술자 : 옛날 친정어머니가 하던 제물 준비는, 아마 살아있다면 20년 전에 92세 나이로 돌아가셨으니까 지금하면 112세가 됐을 거야. 이제는 쌀이 흔하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쌀이 귀했지. 쌀이 귀하니까 메 한 사발 하고 그 도둑쌀은 가짓쟁이 (밥사발 뚜껑)에 조금해서 그제 조금 집을 수 있을 정도만 가지고 갔지. 돈이 어렵고, 쌀도 어려우니까. 당에 가는 것도 부담이 되었지. 서숙밥을⁷⁶⁾ 해서 가지는 못하니까. 서숙밥은 보리밥이나 조 농사를 지을 때니까 좁쌀로 지은 밥인데 그건 하지 못하고 생선으로 제숙하고 막걸리처럼 청주를 내려서 그건 감주니까 옛날에는 술이 아니라 오메기술을 해두었다가 그걸 제주로 하는 걸 봤지. 오메기⁷⁷⁾를 담가서 제주로 쓰는데 조금 눌러 놔두면서 그걸 따라서 쓰는 거야. 아래로 가라앉은 것이 조금 반 사발쯤이면 되니까 그걸로 자꾸 쓰는데 돈이 든다면 초를 사는데 들어. 그 초를 못 사면 참기름을 해서 그걸 쓰는 거야. 메쌀은 산디를⁷⁸⁾ 하니까 그걸로 하는데 제숙으로 생선은 마련했다가 곡식항아리에 묻어 두었다가 했지. 지금에야 그렇게 하겠니.⁷⁹⁾ (C03)<녹취원문 II

74) 김○생, 여, 1936년생, 구좌 송당리, 2010년 3월 28일, 자택 면담조사.

75) 강○순, 여, 1934년생, 서귀 천지동, 2010년 3월 20일, 자택 면담조사.

76) 서숙밥 : 보리밥이나, 조 같이 밭에서 나는 곡식으로 지은 밥.

77) 오메기 : 좁쌀을 빻아서 떡을 만들고 그걸 발효시켜서 고소리에 증발시키면 오메기술이 되는 제주도 전통술이다.

78) 산디 : 밭에서 나는 밭벼.

79) 강○순, 여, 1934년생, 서귀 천지동, 2010년 3월 20일, 자택 면담조사.

송당본향당에 대한 제물 준비는 아니지만 60년 전에 당에 갈 때 준비 했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송당본향당 제물에 대해 겪었던 금기 이야기도 한다.

구술자 : 그러니까 송당 대천동에 한번 갔을 때 이야기. 할망은 어떤 일인지,
“떡을 먹어보라. 저 며느리, ○○각시가 시에서 돌래떡을 많이 해 왔는데 소금을 넣고 해왔지 뭐냐”

라고 하였다. 그것이 문제였는지 마음이 병이라고 하지만 그 이유가 되었는지 그 후에 할망이 아프게 되었어. 며느리가 그 떡을 해 올 때까지는 아프지 않았었는데 말이야. 그렇게 했으면 그 떡을 쓰지 말고 다시 하던지 말이지. 몇 개는 아니지만, 그 떡을 당에 그대로 가져가서 제물로 쓴 거야.

조사자 : 송당에서는 메밀농사를 지으니까 떡을 메밀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구술자 : 원래 메밀로 하게 된 거야. 그것은 메밀을 갈았었기 때문인데.

조사자 : 백돌래라고 하면,

구술자 : 백미쌀이나 메밀떡이나 같아. 메밀도 메밀묵 하고 쌀도 하면 그것은 제사떡도 하는 것이고. 그렇게 맑은 것을. 제물을 할 땐 정말 명심해야 해. 얼마 안한 것에.

조사자 : 어떻게 하다가 그랬어요.

구술자 : 돌래떡은 굶을 할 때 사용한다고 해도 떡집에서도 익히 알아서 조심하니까 소금을 넣지 않는 건데 말이야. 돌래떡을 해달라는 말만 하고 떡집에 일체를 맡겼다 찾아왔다고만 하는 거야. 한 되하기는 그래서 두되 정도를 해온 것이다. 그런데 소금을 넣어서 해온 것을 그 할망이, “야, 소금을 넣고도 돌래떡을 하느냐” 할망이 몰으니까

구술자 : “모르쿠다” 라고 대답만 했지. 그리고 먹어봤는데 더욱이 짰어.

구술자 : “쯔쯔”, 그렇게 됐으면 아무리 며느리가 해온 것이라도 쌀을 불렀다가 다시 가서 해오던가 하지. 잘못하면 다시 할 수는 있지만 잘못인걸 알면서 제물로 사용했다는 것을 대단한 잘못이고 그런 정성은 죄 받을 것이지. 굶을 할 때도 소금을 넣지 않고 떡을 하는데 하물며 당에 가는 떡을 명심하지 않고,⁸⁰⁾ (C04)<녹취원문 II-8>

조사자는 단골이 송당본향당에 갈때 차려가는 제물은 메밀로 떡을 만들어야 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그래서 백주할망은 맑은 신이라서 깨끗하게 흰쌀로 떡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질문을 하였다. 강○순씨는 백주할망한테는 부정하지 말아야 되는 금기가 있기 때문에 소금도 부정해서 제외해야 된다는 말

80) 앞과 동일.

로써 이야기를 하였다.

단골들은 부정한 몸을 깨끗하게 정화해야 본향당에 갈 수 있다. 마음까지 올바르게 깨끗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당본향당에 갈 때는 금기로 칠일을 부정 하지 말아야 한다. 피를 보면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피를 보이지 않으려고 칠일 동안 양치도 소금물로만 행군다. 이웃과 다툼이 생길까 염려해서 밖에 외출하는 것도 삼간다. 그리고 칼을 사용하다 다치거나 긁히면 안 되니까 부엌에서 음식 장만도 피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주일 동안 일도 삼가면서 누워서 지낸다는 것이다.



<사진 II-4> 자손이 올리는 백주할망 옷과 팔찌거리

2) 본향당굿의 진행

(1) 당굿의 제차

당굿의 모든 제차는 보통 삼석울림→괘문열림→열명→당굿→괘문음의 순서로 진행된다.⁸¹⁾ 송당본향당의 2010년 2월 26일(음력 정월 열사흘) 신과제제는 다음

과 같이 진행을 하였다.

[삼석울림]은 수심방이 굿을 할 준비를 하고 소미들과 본향당에 도착했을 때 연물을 울리며 굿을 시작한다. 삼석울림은 북, 설채, 대양을 울리면서 굿의 시작을 하늘옥황에 알리는 제차다.

[괘문열림]은 수심방이 말명으로 “상괘문도 열립서, 중괘문도 열립서, 하괘문도 열립서” 하면 괘문을 열면서 제단 위에 있는 괘의 뚜껑을 차례로 연다. 네모형의 납작한 돌을 덮어둔 곳을 열면 조그마한 구멍이 드러난다. 세 개의 구멍(神穴)이 신이 있는 곳이고, 이 구멍을 통하여 신이 나온다. 그러면 굿을 하기 위해 제장이 설립된다.



<사진 II-5> 예명울림

[예명울림(열명)]은 누가 굿을 하는지 신에게 알리는 제차다. 단골들은 자신이

81) 문무병, 앞의 책, 138쪽 참조.

차려온 제물을 제단에 진설한다. 단골들은 먼저 온 단골 뒤에 서서 예명올릴 차례를 준비한다. 당신의 신위가 모셔진 오른쪽은 상단골이 제물을 진설하는 위치며 제물을 구덕이나 차룻에 차려서 놓는다. 과거 본향당 상단골은 웃송당 광산 김씨지만 지금은 단골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고 마을 일을 주관하는 책임자들이 우선 예명올림 대상이 된다. 오전 7시 30분에 예명올림을 시작하였다. 여자소미가 장귀를 치며 단골들이 도십쌀 속에 써놓은 이름을 보면서 올린다. 참석단골들은 제장 앞에 앉은차례로 수를 세었는데 대략 75명에서 85명사이다. 단골들은 당에 도착하는 대로 예명을 올린다.

[당굿]은 오전 9시에 매인심방이 연물소리에 맞추어 시작하였다. 당굿을 초감제와 본향뚝 순서로 나누어 살펴본다.

① 초감제 : 제주도의 모든 곳은 초감제로부터 시작한다. 초감제는 기본형식의례(基本形式儀禮)이자 종합청신의례(綜合請神儀禮)이다.⁸²⁾ 일정한 순서로 세부 제차를 포함한다.

→배포도업침 : 심방이 굿을 하면 천지자연과 인문사항의 발생을 노래한다.

→날과국심김 : 굿을 하는 장소와 시간을 말한다.

→마을연유담음 : 왜 굿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 이유를 말한다.

→제청신도업 : 어느어느 신들이 제청으로 내려오기를 청한다.

→당신본풀이 : 백주할망이 살아왔던 본을 푼다.

→새드림 : 소미는 신이 내려오는 길에 부정을 없애기 위해 새(邪)를 쫓는다.



<사진Ⅱ-6> 도래 둘러멤

→도래둘러멤 : 차룻에 돌래떡을 올려놓고 단골들에게 인정을 받으러 제장을 한 바퀴 돌아다닌다. 자손들은 인정을 걸면서 어서 신이 내려오기를 원한다. 사진 촬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소미는 이들을 중심으로 다닌다.

→젯북제맞이굿 : 소미가 진행을 하는데 연물이 잘 올려서 굿이 잘 되기를 바라는 제차다.

82) 현용준, 『제주도 무속연구』, 집문당, 1986, 262~265쪽 참조.



<사진Ⅱ-7> 군문열림



<사진Ⅱ-8> 삼헌관헌작배례
이 배례를 하고 자손들은 소지를 사른다.

→군문열림 : 제청으로 신을 청했는데 신들이 내려오려면 신역의 경계문이 열려야 된다. 그것이 열렸는지 돌아본다.

→분부문안(분부사뵐) : 신이 단골들의 어려움과 근심을 미리 알려준다. 당신이 근심 걱정을 막아 준다는 말을 한다고 단골에게 전달한다.

본향뚬

→오리정신청궤 : 신이 오리안에서 문 밖까지 와 있어서 황급하게 들어오라며 청해 들인다.

→우봉지주잔 : 술병에 떡을 싸서 당 밖으로 던짐. 제장으로 들어오지 못한 신들을 술과 떡으로 대접한다.

→본향뚬 : 본향신이 제장으로 들어움을 알린다.

→오리정정테우 : 신을 모셔오고 순서대로 자리에 앉히는 과정이다.

→삼헌관헌작배례, 자손소지사름 : 심방은 본향이 들어와 제장에 앉아 있음을 아뢴다. 삼헌관

→음복지주잔 : 제장으로 모시고 들어온 신에게 술을 권한다.

→놀래놀림⁸³⁾ : 제장에 백주할망을 모셔왔으니까 자손들이 할머니를 위로하며 살아온 삶이 기구하니 그 사연만큼 일천간장을 알아주며 풀어드려야 한다며 본풀이 일부를 애잔한 음조로 부른다. 일반당굿에서는 균옹놀림(덕담)이라한다.

(백조할마님 아덜 요섯성제 키우멍 가슴 아픈거랑 오늘랑 원정을 풀영갑서. 오늘 오늘이여 날도 좋아 오늘이여, 백조 할마님 강남천자국 백정승따님에기로 탄생헤여 그날그날 생활 흥명 살아수다. ~ 백조 할마님이랑 일천간장 못친간장이랑 다 풀립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단골들도 함께한다.> 못쳐진 신가슴이랑 술술이 풀어갑서.)

→서우젯소리 : 제청으로 신을 모신 후에 자손들이 조상을 즐겁게 하는 제차에서 서우젯소리로 흥을 돋운다.

② 추물공연 : 소미가 제장에 청해 들인 신들에게 제단 위에 놓인 제물을 드시도록 권하는 제차다. 제상에 놓인 제물을 일일이 일컬으며 기원하는 내용도 한다.

③ 마을 도산 받음

마을의 일 년 동안 운수 및 마을 주민들의 생업 등을 점친다.

④ 집안 각산 받음

단골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부분이다. 단골들은 각자가 준비해온 도십쌀을 심방 앞에 놓고 일일이 가족 구성원의 그해 사업 운수나 시험, 신수 등을 보고 결과에 따라 액막이를 준비한다. 단골들이 많아 소미들한테 각각 산을 받는데 당 곳에서 대부분 시간을 차지한다. 단골들은 각자 준비해 온 종이나 실, 시령목 등과 같은 제물을 제장 옆 소각장으로 가져가서 비념을 하며 함께 태운다. 이후 단골들은 제단에 각각 올려놓은 제물을 조금씩 모아서 제단에 있는 궤에 묻는다. 단골들이 직접 당신에게 바치는 정성이다.

83) 놀래로 백주할망이 살아온 역사를 해야 일천간장 맺힌 사연이 풀어진다고 함. 메인심방 : 정태진, 남, 1946년생, 제주 건입, 2010년 11월 28일, 자택 면담조사.



<사진Ⅱ-9> 대명대충

돈과 시렁목, 물색 등으로 심방한테 청하여 액막이를 한다. 간혹 집안에 어린아이가 아프거나 놀란 일이 있으면 데리고 왔다가 제장에서 ‘넉들임’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나서 제장 옆에 준비된 소각장에 가서 액막이로 사용한 제물을 태우며 간절하게 비님을 한다.

⑦ 도진

당굿을 하기 위해 청해 들인 신들을 하나도 빠지지 않게 일일이 열거하면서 돌려보내는 제차다.

[궤묻음] : 굿을 마치며 굿을 하기 위해 청한 당신이 나오도록 열어둔 당의 궤를 다시 봉한다. 이렇게 당굿의 진행은 마무리 된다.

⑤ 마을 도액막음

제장 밖에 대명대충용으로 준비해둔 장닭을 희생하여 마을에 들어오는 굿은 액을 막는다.

⑥ 집안 액막음

각산받음 결과로 굿은 액이 많으면 단골들은 각자 준비해온

(2) 당굿의 특이점

송당마을은 제주도 마을마다 하는 유교식 포제를 지내지 않고 분향당굿으로 마을제를 지낸다. 제주도내에서 중산간 마을인 조천읍 와흘도 이와 같다. 와흘마을 당신은 송당당신의 열한 번째 아들이고 산신 기능을 가진 ‘하로산또’다. 송당 분향당 백주또신의 직능과는 다른 사냥과 목축을 관장하는 당신이다.

이두 마을에서 당굿을 할 때는 마을 중심인 이장과 개발위원장 부녀회가 삼헌관 헌작배례로써 당신에게 자손으로 예를 바친다. 분향당굿을 마을제로 지내고 있어서 제주도 여느 마을과 다르다는 점이 있다.

송당분향당굿이 일반적인 당굿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제차 중 다른 부분이 나타난다. 이것이 특이한 것인지 4대 제일을 통해 살펴본다.

송당분향당은 [삼석올림], [케문열림], [예명올림(열명)], [당굿], [케물음]순서로 된다는 것은 앞에서 살펴보았다. 송당분향당굿은 신과세제 때만 모든 제차를 갖추고 있다. 참석하는 단골들도 4대 제일 중 가장 많다.

[당굿]을 다시 살펴보면 초감제는—(베포도업침→날과국섬김→마을연유담음→제청신도업→당신본풀이→새드림→도래둘러멤→젯북제맞이굿→군문열림→분부사됨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어서 분향들은—신청케→분향청함(우봉지주잔)→오리정정대우→삼헌관헌작배례, 자손소지사름→음복지주잔→놀래놀림→서우젯소리)이며 추물공연과 다음순서로 이어간다.

분향이 들어온 후 삼헌관헌작배례와 자손들이 역가를 바친다. 다음 ‘놀래놀림’이 있는데 일반당굿과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이다.

우선 굿의 순서에 대해 살펴보면 2009년 2월 7일 신과세제에는 심방이 ‘놀래놀림’을 하고 소미가 추물공연을 한 후에 ‘석시로석시로’ 하며 서우젯소리로 자손들이 춤을 추며 당신을 즐겁게 하였다. 하지만 2010년 2월 26일 신과세제에서 ‘놀래놀림’ 후 ‘놀고 가자’며 바로 서우젯소리를 하였다. 추물공연 전 석살림제차인지 순서가 다르게 진행되었다. 대부분 당굿은 제차가 일정하다. 그런데 이때에 순서가 바뀌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2010년 신과세제 때는 예년과 달리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굿을 진행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단골들은 분향당굿 하는 날에는

좁처럼 비나 눈이 오지 않는다고 하였다. 날씨가 제차에 영향이 있어서 굿이 빠르게 진행이 된 것인지 의문이다.

다음은 당곳에서 본향을 청한 후 군웅놀림 하는 부분이다. 송당본향당곳에서는 ‘놀래놀림’으로 백주신의 맺힌 사연을 풀어주고 놀리는 것이 나타난다.

이때 심방은 백주할망 본풀이를 줄여서 노래를 하고 있다. 메인심방은 ‘일천놀래’라고 하였다.⁸⁴⁾ ‘놀래놀림’ 구연형태는 일반당곳의 군웅놀림과 다르다. 연행차림으로 백주할망 옷이라며 빨강치마에 녹색회장 저고리와 치마끈에는 버선을 묶은 형상을 꾸몄다. 그것을 심방이 어깨에 메고 삼색물색이 걸린 대나무를 짚어서 백주할망이야기를 노래로 하고 있다. 심방은 이것을 송당본향당에만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음조가 낮고 애절하게 부르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일반 사가 큰 굿에서 삼공본풀이를 할 때 ‘가문장아기’ 부모가 걸인으로 살아온 사연을 노래로 부르는 음조와 같다고 하였다. 백주할망이 살아온 역사를 이처럼 애절하게 ‘놀래’로 풀어야 백주할망 ‘일천간장’에 쌓인 원정이 풀어진다는 것이다.

그 다음 ‘놀며 가자’며 서우젯소리로 넘어가고 단골들과 한판의 군무를 펼친다. 심방의 서우젯소리에 흥이 오른 단골들은 민요와 가요를 부르며 난장을 이룬다. 모두들 흥을 서로에게 돌우며 백주할망을 풀어드리자며 놀이가 지속되는 것을 권한다. 심방은 당신의 작은 아들과 요왕국 딸을 위해서 서우젯소리를 하고 있다고 하였다.⁸⁵⁾ 서우젯소리는 춤과 노래를 동반하는 집단유희요로 대표적이다. 굿에서 하는 서우젯소리는 무가적 성격을 띠고 있고 일반 생활에서 불리는 서우젯소리 노래와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⁸⁶⁾ 특히 서우젯소리는 ‘매기는 소리’(선창)와 ‘받는 소리’(후창, 후렴)는 심방과 소미가 전반부를 이끌다가 마을부녀회와 이장들이 나서서 받고 춤을 추다가 난장을 이루게 될 때는 단골들이 전부 참여할 정도로 대동을 이루게 된다. 당곳에서 공감대를 이루어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84) 메인심방 : 정태진, 남, 1946년, 제주 건입, 2010년 11월 28일, 자택 면담조사. 사가 집에서 7일 이상 큰굿을 할 때 하는 삼공본풀이 중에서 가문장아기의 부모가 걸인으로 살아온 과정을 이 놀래로써 푸는데 음조 성격이 같다고 이야기 한다. 일반 당곳에서 군웅놀림 중 ‘오늘 오늘이여’ 음조와 다르다고 말하였다.

85) 앞과 동일.

86) 변성구, 「제주도 서우젯소리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46쪽.

일반적으로 당곳에서 군웅놀림은 마을 조상인 본향당신을 청하여 맞이하고 흥을 돋우며 놀리는 제차다. 이때는 당신을 맞이해서 신을 제장에 좌정을 시키고 당신을 즐겁게 위로한다. 그리고 흥을 살려내는 석살림제차가 있다. 보통 당곳에서 서우젯소리, 탐불소리로 흥을 돋운다. 이때 본향당신이 사냥이나 어업을 관장하는 신이면 서우젯소리로 신을 놀리고 본향신이 산신이거나 책불일월 스님과 같이 맑은 조상이면 탐불소리로 흥을 살려 신을 놀리기도 한다.

15~16년 전만 해도 단골들은 이 자리를 빛내기 위해서 한복을 곱게 차려 입고 왔었다는 말을 하였다. 한 단골은 처음 시집을 와서 당곳에 참여하는데 한복을 곱게 차려 입어야 된다는 시어른 말에 무척 놀랐었다며 지금은 많이 개방되어 그렇지 예전 같지 않다고 하였다.⁸⁷⁾ 마을 일을 보며 당곳에 참여했다가 집안 남자 어른이 “할망한테 가다 오다 술 한 잔이라도 올리면 그만한 공력이 있다” 하는 말을 자주 듣고서 당에 다니게 되었다는 젊은 단골도 있었다. 다음에 영등손맞이, 마불림제, 시만국대제를 살펴본다.

◇이월 열사홀 영등손맞이(2010년 3월 21일)

심방은 두루마기를 입고 송낙을 써서 ‘장귀’를 치며 ‘얏인 곳’으로 하였다. 소미도 동반했다. 특이한 점은 참석한 단골들은 신과세제와 다르게 영등신을 위한 제물을 따로 제단 왼편에 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제물차림은 백주할망에 올리는 차림과 같다. 참석한 단골은 7명이다. 심방이 간략한 제차를 알리며 영등신에 대한 말명을 곁들여 하였다. 신과세제와 다른 점은 당신본풀이 구성을 백주할망과 소천국하르방 1세대 구성으로 하였다는 것이다. 신과세제에는 당신본풀이를 2세대 구성으로 하였다. 참석한 단골은 정월 열사홀 신과세제에 오지 못했다는 단골과 일본에서 몇 해 만에 본향당을 찾아 왔다는 단골이다. 곳은 두 시간 남짓 걸렸다.

◇칠월 열사홀 마불림제(2010년 8월 22일)

오전 6시 30분 경, 제단에 촛불을 켜서 제물을 올려놓고 단골들이 앉아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참석한 단골 광산 김씨 출신 73세 할머니와 그의 가족 고씨 집

87) 김씨 집안머느리, 나이 40대 중반 마을 책임을 맡은 사람: 신과세제일, 2009년 2월 7일, 송당본향당 면담조사.



<사진Ⅱ-10> 백중 마불림제

안, 나머지는 광산 김씨 집안이다. 심방이 도착하자 궤문을 열며 “열명 올려수과.”하고 장귀를 치며 원하는 단골의 예명을 올린다. 심방 차림은 송낙을 쓰고 두루마기 차림에 ‘장귀’ 장단으로 앞인 곳을 하였다.

간추린 초감제지만 심방은 상단골 광산 김씨만 일컫는다. 이

월 열사흘 영등손맞이 하고는 다르다. 본풀이는 이월 영등손맞이에서 백주할망과 소천국하르방 1세대 구성으로 본풀이를 한 것과는 달리 빠진 세대가 없었다. 백주할머님과 소천국하르방 1세대와 작은 아들과 요왕말젯말 2세대 구성이었다.⁸⁸⁾

곳을 마칠 때에 소미가 옷(할머니한테 바쳐진)을 궤에서 꺼내어 담 위에 걸쳤다가 말린 것을 다시 넣었다. 심방이 시월 열사흘날 상봉하자며 말명을 하고 당궤문을 잠갔다.

◇시월 열사흘 시만국대제(2010년 11월 18일)

오전 7시경, 먼저 도착한 단골이 제물을 제단에 올려놓고 본향당 주변 청소를 하고 있었다. 본향당 제물로 적합하지 않은 제물이 제단위에 올려있어서 본향당 단골이 아닌 사람이 다녀간 흔적이라고 하였다. 백주할망한테는 제일에만 다녀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어기고 있다는 것이다. 심방은 8시가 넘어도 오지 않았다. 당회장은 본향당제일에 매인심방이 한번도 빠진 적이 없었다고 하였다. 당궤문을 열지 못하고 단골들은 각자가 비념을 한 후, 도십쌀로 가져온 쌀을 집어서 잡아 보았다. 단골들은 수능시험 보는 날이라서 자식과 손자가 시험을 치루고 있음

88) 각산받음할 때 단골들은 정월 신과세제에서 보여주던 진지함은 찾아 볼 수 없었다. 본향당신 할머니를 부르며 자신들의 불편함을 살피서 낮게 해달라는 비념을 하였다. 참석한 단골들은 걸음걸이가 불편한 칠순이 넘는 어르신들이다. 그들을 보고 있자니 마치 자신의 정다운 집에 와서 편안한 대로 앉고 눕는 아이들 모습과 흡사한 것처럼 보였다. 마지막으로 마을 일을 걱정스럽게 털어놓고 백주할머님에게 쉬운 해결을 보게 해달라고 빌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할머니한테 비는 것보다 임직을 맡은 당사자나 그의 어머니가 와서 직접 비는 것이 낫다는 말을 하고, 그 말에 동의하면서 마을 일이 잘 되기를 걱정하였다. 마을이 안녕해야 할머니가 걱정이 줄고 그러면 단골들의 어려움을 더 살필 수 있다는 것이다. 할머니에 대한 인식은 신으로서 분리되었다는 생각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과 같게 여기며 본향당신을 대하고 있다.

당신에게 아뢰고 무사히 시험을 보게 해달라고 빌었다. 본향당 입구에 가서 차려 온 제물을 조금씩 모아 걸명을 한 후 궤에 묻고 지전과 제물로 가져온 백지와 시령복 등은 소각장으로 가져가 태우며 비념으로 마무리 하였다. 참가 단골은 여섯이었다.

신과세제일을 비롯해 세 번의 제일을 살펴보았다. 신과세제는 당곳의 모든 제차를 하며 가장 성대하게 치러지고 있었다. 그리고 대부분 마을에서 지내는 유교식 포제를 지내지 않고 당곳으로 마을제를 지내고 있었다. 그래서 주변 마을에 비해 무속의례가 중시되는 것 같았다. 본향당신의 직능은 다르지만 조천읍 와흘 마을 하로산당에서도 마을포제를 유교식으로 지내지 않고 당곳으로 마을제를 지내고 있는 점이 같다. 두 마을은 본향당신 형성에서 송당당신의 열한 번째 아들이라는 송당계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본향당곳 무속의례를 중요한 가치로써 여기면서 마을의 전통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본향당이라는 의미를 찾아 볼 수 있다.

3. 당신본풀이 구성

‘松堂’ 마을은 제주도 신화의 뿌리라고 여겨지며 그 존재감을 지켜오고 있다. 송당마을은 당신화에서 한라산을 중심으로 ‘송이송이 아들 딸 손지 방상’ 신들이 가지를 뺏어 신의 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연 마을이다.

송당본향당 백주또신은 제주도 당신의 원조격이다. 송당본향당은 제주도 당신 형성에 있는 송당계 당신 본풀이에서 ‘웃손당 금백주, 셋손당 세명주, 알손당 소로소천국, 아들에게 열으뜸 딸 예기 스물으뜸, 손지 방상 삼백일흔 으뜸’이라 하며 그것을 뒷받침 한다. 가족계로 일컫는 ‘열으뜸’ 당신은 송당신이 아들이라고 심방들에게 구연된다.⁸⁹⁾

송당 본향당에는 본향당신 백주또가 좌정해 있고 본향당신에게 단골의 소원을 대신해서 빌어주는 매인심방이 있다. 선대가 상단골이면 자손도 상단골이라는 지위를 이어받아 본향당 내에서 구분 된다. 또 심방은 당신의 녹을 먹기 위해서 충분히 지켜야 할 규범을 요구받는다.

당신이 어떻게 하여 마을을 설촌하였고 마을의 토주관이 되어 당에 좌정하였으며 사람들은 왜 제일을 정해 당신을 모시게 되었는가를 ‘풀이’하는 신화를 당신본풀이라 한다.⁹⁰⁾

그리고 당본풀이는 신의 좌정 경위를 설명하는 내력담이란 점에서 신화지만, 마을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설명한다는 점에서는 역사이며, 당과 당신, 당본풀이와 당곳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동시에 마을 집단의 신앙체계를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의례의 근본이며, 사회적인 현상이다.⁹¹⁾ 송당본풀이를 통하여 송당마을 역사를 본향당신앙의 전통성을 살피고 이것을 통해 사회통합을 향한 신앙공동체 구축양상을 신앙 전승과정으로 보고자 한다.

89) 진성기, 『제주도 무가 본풀이사전』, 김오생 구술, 민속원, 1991초판, 2002재판, 416~417쪽.

90) 원래 ‘본풀이’라는 말은 ‘본’과 ‘풀이’의 복합명사로서 ‘본’은 ‘本·本原·根本’ 등의 뜻으로 ‘신의 내력’을 의미하고, ‘풀이’는 ‘풀다’의 명사 전성으로 ‘해설·해명·해석’ 등의 뜻이다. 따라서 ‘본풀이’의 말뜻은 ‘신의 본원과 내력을 해석·설명’ 하는 것이므로 당본풀이는 마을의 수호신인 당신의 내력담이다. : 현용준,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 17-19쪽, 참조.

91) 문무병, 앞의 책, 28쪽.

1) 본풀이 구성과 문제

송당분향당본풀이는 구좌읍 송당마을 분향당신인 ‘백주할망’과 남편인 ‘소천국 하르방’ 1세대와 2세대인 자식신들의 내력담이다. 당신들이 부모 자식 혈연관계로 당 계보를 이루어 마을마다 당신으로 받들어지며 혈연 조상으로서 생활권과 통혼권 신앙권을 형성하게 된 사실을 담고 있다. 한편 당과 신앙권 분리는 마을의 분리로서 나타나며 새로운 문화권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로도 이해가 된다.⁹²⁾ 이로써 새로운 신앙권은 새로운 공동체 시작을 알리게 됨은 물론이다. 송당분향당본풀이는 제주도에서 당 신앙을 가름하는 몇 개의 계보 중 크게 형성된 송당계 본풀이 형성에 중심을 이루는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한다.

당신본풀이는 당곳의 한 요소로서 종교적 기능, 원초 과학적 기능, 문예적 기능, 사회적 기능을 가진 서사무가이다.⁹³⁾ 종교로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신앙과 의례 그리고 신앙집단이 있어야 한다. 믿음과 실천은 모든 사람을 하나의 도덕적 공동체로 규합시킨다. 그리고 신앙집단은 믿음과 실천을 하나로 묶어주기 때문에 사회를 통합하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송당분향당본풀이를 현장에서 구비서사무가로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소중한 유산이다. 즉 본풀이는 곳 현장에서 구연되고 있어야 신화 기능이 살아 있다는 증거가 된다. 그래서 송당분향당본풀이가 현장성과 전통성을 지켜가며 조화로운 범위 내에서 구연되는 것은 어디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분향당신앙의 가치로 볼 수 있다.

당신본풀이 구성은 다음과 같은 단락으로 나뉜다.

[백주할망본풀이] 단락별 정리⁹⁴⁾

- ① 소천국은 한라산 외작지에서 태어나 사냥하며 살아가고, 백조할망님은 강남천자국 허승 따님으로 태어나 홀로레기 부정하여 제주도로 온다.
- ② 백주할망은 소천국을 만나 결혼을 하고 사냥을 하며 살아간다.

92) 고헌민, 「당본풀이에 나타난 갈등과 대립」, 『탐라문화』 2집,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3, 148~160쪽, 참조.

93) 이두현·장주근 외, 『한국민속학개설』, 학연사, 1989, 379쪽.

94) 송당분향당본풀이 : 송당마을 분향 당곳 신년과세문안 당제일에 구연, 심방 : 정태진, 남, 1945년생, 제주건입, 2010년 2월 26일(음력 정월 13일), 송당분향당 조사채록.

③ 아들을 다섯 형제까지 낳자 먹고 살기 힘들어진다.

④ 백주할망은 농사를 짓자고 제안하고, 소천국은 오봉이굴왓에 가서 소로 밭을 간다.

⑤ 지나가던 대사가 배고프다며 밥 한 술 얻어먹겠다고 해서 점심을 전부 먹고 가버린다.

⑥ 소천국은 배가 고파 밭을 갈던 소를 잡아먹고도 배가 차지 않아 남의 송아지마저 잡아 먹고는 쟁기로 밭을 가는데, 백주할망은 남의 소까지 잡아먹은 것은 도둑놈이라며 살림을 가르자 하자 소천국은 정동별집 딸과 같이 산다.

⑦ 백주할망은 여섯째 아들을 낳아 기르는데 버릇이 없자 소천국을 찾아 갔지만 소천국도 수염을 잡아당기고 불효를 한다며 무쇄설감에 담아 바다에 띄워 버린다.

⑧ 작은 아들은 바다에서 낮 삼 년 밤 삼 년 무우나무에 걸렸다가 요왕국 작은딸이 무쇠함을 열어주고 결혼하지만 식성이 과해 함께 쫓겨나게 된다.

⑨ 작은 아들은 강남천자국 세번 난리를 막아 공을 세우고 삼 장수가 주는 금과 땅을 마다하고 배를 지어달라고 해서 어명국 아방국을 찾아 종달리로 들어온다.

⑩ 백주할망은 웃송당 당오름에서 콩불림할 때 콩깍지가 날려 눈이 어두웠는데 요왕국 작은 딸이 청푼채로 세 번 부치자 콩깍지가 떨어지고 눈이 밝아 진다.

⑪ 작은아들 내외가 알손당 ㄹ부니모루 천왕뱃디 소천국을 찾아 인사를 하니까 고개를 들지 못하여 그 자리에서 죽고, 백주할망도 당오름에 좌정한다.

⑫ 작은 아들은 자식 키우느라 고생한다고 가며오며 어머니를 돌보라고 큰형님 문국성을 곁흠에서 좌정케 하고는 각각 형제신들의 좌정지를 정해 주고 자신은 김녕 케네기당신으로 좌정한다. <녹취원문, II-10>

①~⑫까지 메인심방이 구연한 본풀이를 단락으로 구성해 보면 우선 ①~⑦까지는 백주할망과 소천국 부모 1세대 이야기로 구성이 되었고, ⑧~⑫까지는 자식 2세대 이야기로 구성되었다. 또 살림을 가르게 되는 당신의 식성문제는 신의 직능과 신앙민을 구분 짓는 기준이 된다. 따라서 1세대 이야기는 식성에 따라 살림을 가르고 당신으로 제향을 받는 본향당의 금기가 된다. 그러므로 송당본향당 백주할망은 육식을 금기하는 미식성인 농경신이다. 미식성 백주할망의 신앙민은 웃송당 광산 김씨가 주축이었다. 단골들은 이러한 당신의 식성을 신성하고 깨끗하게 여기고 있다.

그리고 당신 본풀이는 병형이 없어야 한다는 본향당 규범에 따라 구연이 되고 있는지 단골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단골들은 당신의 역사를 빠지지 않고 바르게 구연을 해서 당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심방이 일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 부분이 바르지 않았을 때에

는 본향당 전통에 따라 문제가 야기 된다고 하였다. 특히 이 부분은 본향당의 금기와 더불어 많은 분량으로 이야기되고 있었다. 단골들은 매인심방이 본풀이 구성을 어떻게 했었는지 그것에 따른 본향당 규범을 이야기 하고 있다. 이 부분은 3장에서 단골들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2) 역대 심방 본풀이 비교

<표 II-4 > 매인심방에 따른 백주할망본풀이 채록 방법과 시기⁹⁵⁾

번호	심방/매인시기 구분	채록 방법	채록자	채록시기	출처
1	고봉선(~1957)	본향당 밖 채록	장주근	1957년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2	고대중(1958~1981)	본향당 밖 채록	진성기	1966년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3	박인주(1982~1984)	당굿 현장 채록	문무병	1982년, 신과세계	문화역사마을만들기북군추진협의회, 『북제주군송당리 보고서』
4	정태진(2003.8~현재)	당굿 현장 채록	강소진, 강정식	2004년, 마불림. 2005년, 신과세계	한국구비문학 춘계학술대회 발표 논문, 2005.

위 본풀이 내용을 단락별로 구분하여 세대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95) 채록 방법에 있어서 고봉선과 고대중본은 본향당 밖에서 구술을 받아 채록 조사 한 형태이고, 박인주 정태진본은 당굿을 행하는 본향당에서 현장 채록조사로 이루어졌다. 서사무가의 형식인 의례에서 직접 무가를 채록 조사한 것과 구술조사 목적으로 채록한 것과 차이는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전승상에 있어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심방3 이후 문성남 심방인 경우에 채록된 본풀이가 없고 그는 심방3의 후계자로서 본풀이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성남 사후에 그의 처가 남자심방을 데리고 와서 당굿을 했지만 그 심방은 매인심방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확실한 본풀이 전승관계로 볼 수 없다. 2003년 마불체부터 매인심방을 맡게 된 심방4의 본풀이가 여러 차례 조사되어 비교를 한다.

<표 II-5 > 역대 메인심방 본풀이 비교

분류	고봉선	고대중	박인주	정태진	구분 짓기 (중심내용)	세대와 활약
①단락	+	-	+	+	소천국과 백주할망의 출현	1세대, 토착신, 외부신
②단락	+	+	+	+	결혼, 토착외래 결합	1세대, 문화결합, 농업/수렵
③단락	+	+	+	+	자식이 많아 어려움.	1세대, 문화변성
④단락	+	+	+	+	백주할망 농사권유, 농경문화	1세대, 농경문화 전환
⑤단락	+	+	+	+	스님에 의해 배고픔	1세대, 일차 식성 좌절
⑥단락	+	+	+	+	소천국 소를 잡아먹고 백주할망과 살림가름	1세대, 분산, 농업/수렵 분리
⑦단락	+	-	-	+	부부재회 자식기아	1세대, 통합과 기아
⑧단락	+	-	-	+	작은아들 요왕국 딸과 결혼	2세대, 새로운 세계 도약
⑨단락	+	-	+	+	난을 막고 배를 타고 돌아옴.	2세대, 역경을 딛고 귀환
⑩단락	-	-	-	+	백주할망 눈에 콩깍지를 요왕국딸이부채로 낮게함	1·2세대, 갈등과 화합
⑪단락	+	-	+	+	소천국 백주또 놀라서 좌정함	1·2세대, 갈등분리
⑫단락	+	-	+	+	자식들이 도처에 당신으로 좌정기	2세대, 갈림과 통합

(+있음), (-없음)

당신앙에 있어서 당신본풀이는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정통성이 있다. 그래서 그것은 심방과 단골들이 지켜야하는 본향당 신앙의 규율이며 규범이 된다. 그래서 역대 메인심방이 본풀이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내용에 따라 구분해보고 비교해 본다. 심방이 당곳을 집전하기 위해서는 심방 또한 단골처럼 지켜야 하는 규범이 있다. 단골들은 그것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지켜본다. 단골들은 심방이 본향당신 앞에서 본풀이가 제대로 구연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당신본풀이가 본래

규범에 맞게 제대로 구연되는지에 대한 기준으로 살펴본다. 그러므로 심방은 당
본풀이를 있는 그대로 잘 알고 풀어야 한다는 본향당 금기로 평가 되고 있다.

본풀이를 1, 2세대로 나누어 보면 심방 1, 2, 3, 4가 모두 2세대 이야기를 하고
있다. 단지 심방 2가 1세대를 하고 2세대에서는 마지막 단락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보인다. 본풀이 내용을 구분하려면 우선 본풀이가 불린 상황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심방 1, 2는 당곳 상황이 아니고 본향당 밖 일정한 장소에서 본풀이
를 하고 있고, 심방 3, 4는 본향당 제일 당신 앞에서 한 것이다. 이런 상황을 바
탕으로 앞의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 그래서 본풀이 내용 구성에 따라 서사무가
구비전승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되었었다.⁹⁶⁾

따라서 매킨심방들의 본풀이가 우선 전승에 있어서 타당한지 살펴보아야 한다.
본향당 전통에 있어서 일정한 규율이 전승요건에 작용이 되었느냐 하는 점이다.
누대에 걸쳐 내려온 전통은 규율로 엄격하게 규제를 받고 그것은 본향당 금기가
되어 나타난다. 그래서 심방이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본향당전통에 대한 규범 엄
수가 전승 요건에 바탕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주체인 단골이나 전승주체인
매킨심방이 본향당전통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본향당신앙에 있어서 규범이라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심방 4는 1~2세대의 이야기를 전부 구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자
식 세대 이야기는 많은 분량이다. 이는 김녕 췌네깃당 본풀이를 그대로 구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⁹⁷⁾ 하지만 지금 본향당 매킨심방 4에 의해 예전에 없는 본풀
이 이야기를 억지로 넣어 무리하게 두 마을을 하나의 신앙으로 묶어 내려는 것
같다는 지적에 대한문제는 단골들의 생각까지 살펴보고 난 후 논의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심방 1은 백주또와 소천국 좌정 과정까지 ⑧~⑨단락이 있고 ⑩단락 콩깍지 부
술 부분이 나오고 있지 않다. 하지만 김○생씨는 자신의 할아버지와 심방한테서
이부분을 들었다며 말하고 있다.⁹⁸⁾ 1957년 가장 오래된 송당본풀이며 당시에 매킨
인심방이라는 조건은 전통성에 대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심방 2는 1세대인

96) 강정식, 「송당본향당본풀이의 전승양상」 한국구비문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05.

97)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건』, 집문당, 1980, 625쪽, 송당 매킨심방이 있는데 김녕 출신 이달춘 심방의
췌네깃당본풀이를 송당본풀이를 참조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것으로 송당본풀이라고 보기 어렵다.

98) 각주 52, 참조.

백주또와 소천국의 분산과 마지막 단락에 자식신의 좌정만 일컫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또 단락 ① 단락의 백주또 도래 여정과 소천국 출현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본풀이 전개상 신의 출현 부분은 당신의 성격을 규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심방 3은 1~2세대 이야기가 있고 ⑩ 단락의 콩깍지 부술 과정 또한 심방 1과 더불어 나타나지 않으나 다른 부분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대체로 ①~⑨, ⑪, ⑫ 단락에서 심방 1을 비롯 심방 3과 심방 4의 본풀이는 일정한 함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심방 2의 백주또와 소천국 이야기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은 생각해 봐야할 문제다.⁹⁹⁾ 그래서 당시 심방 2를 기억하는 단골 이야기를 통해서 전승에 있어서 내적인 조건에 따른 축약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¹⁰⁰⁾

특히 심방 1이나 심방 3과 심방 4는 세대가 다르고 출신지역이 다른데도 ①~⑥, ⑨, ⑪, ⑫ 단락부분에 동일함이 있다. 단지 심방 3은 ⑨ 단락인 경우에 굿 제차 중 본풀이를 마치고 나서 다음 군문열림제차로 넘어간 후 나오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굿 중 본풀이 완성도를 구분을 하려면 명확하게 본풀이가 구연되는 제차를 따져 봐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는 단지 본풀이 내용구성만을 완성도로 보고서 비교를 하는 것이다. 심방 3이 본풀이를 구연할 때는 ⑥ 단락 다음 ⑪ 단락에서 당신을 좌정시키고 다른 제차로 넘어갔다가 ⑫ 단락의 자식신들을 좌정시키고 있다. 그런 다음 군문열림제차가 끝나서 ⑨ 단락을 잠깐 일컫고 있다. 그리고 ⑨ 단락을 하는 과정에서 단골들과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 굿중에 드러나고 있다는 점은 문제로 봐 두어야 할 것이다.¹⁰¹⁾

하지만 각각 자료에서 백주또와 소천국, 1세대 이야기와 자식신들을 좌정시키는 2세대 마지막 ⑫ 단락이 전부 드러나고 있는 것은 당신본풀이 내용 구성상

99) 각주 85에서, 장주근은 심방 2가 무가를 구송할 때의 진지함이 있다 해서 상당한 축약을 의심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하고 심방 1에 대해서는 발음에 문제가 있고 축약이 심하다고 했다. : 장주근, 『제주도무속과 서사무가』, 역락, 2001, 214쪽. (이것을 근거로 앞의 글에서 심방 2의 고지식함은 본풀이를 구성하는데 일정한 규칙과 질서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같은 책, 고봉선 구송과 송당본향본풀이, : 고대중심방에 대하여, 46쪽, 56쪽.

100) 김○호, 남, 1932년생, 서귀 천지동, 자택 면담조사.<녹취원문, III-7> 참조.

101) 심방 3은 1982년 처음 당을 매며 당곳을 한 상황으로 굿중 제차 순서에 오고감이 나온다. 문화역사마을만들기북군추진협의회, 『북제주군송당리 보고서』, 각, 2004, 부록편, 229쪽.

이견은 없다.

이렇게 송당분향당의 본풀이 구성에 대한 의문을 심방에 따라 비교해서 구분해 보았다. 특히 심방 4가 부모신당에서 특정 자식신이 좌정하는 부분의 분량을 많이 하는 것은 부모신당에 첨가된 무리한 본풀이 구연이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과거 심방들이 구연하던 본풀이 구성에 대해 단골들이 이야기하는 바탕은 무엇인지 앞의 4대 제일에서 구연과 Ⅲ장에서의 단골 본풀이를 비교해 보고 그것을 통해 다루어 본다.



Ⅲ. 송당본향당의 단골과 신앙전승

1. 단골

송당본향당 신앙의 전승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당신앙은 반드시 물림을 받아야 하는 것이 단골의 신앙조건이다. 단골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본향당신앙과 그 전승과정을 알아본다.

구술자 : 백주할망은 영이 있어서 앉으면 천리 서면 만리를 보는 할망, 이 세상 인간을, 우리 웃송당 자손들을 살피는 거야. 웃송당 자손들이 그걸 믿었던지<다른교> 예수를 믿었던지 하면 다 죽어. 할망 영으로, 백주할망한테 다니던 자손은 예수를 믿었던 다른교를 믿는 놈은 살아갈 수 있는 놈이 없어 다 죽든지. 살 수 있는 법이 없어.¹⁰²⁾(A10)

웃송당 광산 김씨 선대가 본향당신을 열심히 받들었던 만큼 그 후손들도 반드시 이어가야 한다며 삶과 죽음에 연관지어 말하고 있다. 웃세대의 본향당신앙을 후손이 물림을 받아야만 한다는 신앙물림이다. 본향당단골 형성이 신앙 물림을 하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1) 전승주체 단골

당신을 신앙하는 마을 사람들을 ‘단골’이라 한다. 단골은 상단골, 중단골, 하단골이라 하는데, 단골이 몇 개의 성씨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씨족들을 상단골, 중단골, 하단골이라 하여 상·중·하로 구별하고 있다. 이 단골제(制)에는 마을 신앙에 있어서의 계층과 같은 것이고 단골 중 가장 선주민이 상단골이고 그 당신을 최초로 모시기 시작한 씨족임이 드러나는 부분이다.¹⁰³⁾

102) 구술자 : 김○생, 여, 1935년, 구좌 송당리, 2010년 3월 28일, 자택 면담조사.

103) 현용준, 「神들의 形成과 性格」 『제주도 무속 연구』, 집문당, 1986, 175쪽 참조.

원래 웃송당 백주할망은 웃송당 광산 김씨를 수호하던 본향당신이다. 그래서 웃송당 광산 김씨들이 상단골이고, 그 조상 때부터 본향당신을 숭앙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구술자 : 나 저기 옛날 우리 하르방적이 백조 할망 해난 역사를 곧 우리 하르방은이 손지라도 딸 아들에 손지 셋 아들에 손지 나 딸이라도 나광 하르방은 이안이 맞안 하르방 말을 잘 들어서 하르방은 옛날 곱아. 난 역스는 다 곱안 허곡. 옛날도 막 곱곡 정헨 옛날에 옛말도 하영 곱아나서 들언 경혜시네 경허난이

조사자 : 옛날에도 그 당에만 열심히 해신게 예.

구술자 : 오, 당에만 그 하르방도. 웃하르방 털도 손당 게백헨 오난 하르방. 우린 백조 할마님만 땡겨주. 옛날. 104) (A11)

(풀이 : 난 옛날 우리할아버지 때에 백주할망 했던 역사를 잘 들었어. 우리 할아버지는 손녀딸, 셋아들의 손녀딸이라도, 마음이 맞아서 많은 옛날 역사를 이야기 해 주셨어. 옛날이야기도 많이 하시니까 들었어.

조사자 : 옛날에도 그 당에만 열심히 했군요

구술자 : 그래, 당에만 그 할아버지도 웃대 할아버지들도, 송당 개벽해서 오니까 우린 백주할머님한테만 다녔지.)

본향당신앙은 그 자손들이 반드시 믿고 따라야 하는 윤리며 종교다. 김○생씨의 선대조상이 송당마을에 정착하게 된 것과 본향당신앙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조상부터 내려온 본향당신앙은 의심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본향당에 다녀야만 할 자손들이 다니지 않으면 또한 어려운 일에 부딪히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래도 백주할망이 영이 세다고 믿기 때문에 본향당에 다니는 단골들은 많아졌다고 하였다.

구술자 : 그저 웃송당 당 할머니한테 웃송당 사람들 다니는 것을 본받아 4·3사건 때 올라오고 나서 전부 다니고 있지.

조사자 : 알손당 사람들도.

구술자 : 응, 다른교를 믿는 사람들만 오지 않는다.

조사자 : 그전에는 웃송당 광산김씨들만 다니니까 단골이 많지 않았겠어요.

구술자 : 그렇지, 웃송당 사람들만이었고, 지금은 시에서<제주시를 일컬음>들 송당사람들도

104) 김○생, 여, 1936년생, 구좌 송당리, 2010년 3월 28일, 자택 면담조사.

다 오고, 외손주들도 다 오고 그러니까 여기서 부모들이 살아서 딸도 본향에 올리며 이 아기 편안하게 해 주라며, 성은 김씨 몇 살 하며 올려, 난 남자손자만 나중에도 다닐 것이라고 보고 올리는데 손녀딸은 올리지 않아. 남의 집에 시집을 갈 건데 그러면 다니지도 못 하지. 예명을 올리면 산을 받고 그러면 나중엔 다니지 못하면 안 되니까. 우리 할머니, 작은아버지 낳은 할머니가 고모를 올렸는데 그 고모는 모자란 사람처럼 당에 다니지 않아서 큰아들은 장가갔지만 바다에 가서 죽었어. 셋아들은 육지공장에서 전기사고로 죽어버리고, 큰아들한테 딸이 있고 각시는 아기를 갖은 상태야. 직장친구하고 바다에서 미끄러져 죽어버렸는데 .이제 조금 부족한 것 같은 작은 아들이 있지만 삶이 말이 아니야.¹⁰⁵⁾ (A12)<녹취원문 III-1>

4·3사건 이후 단골은 웃송당에서 셋송당, 알송당으로 이어진 것은 본향당의 큰 변화다. 그리고 송당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과 외국에 나가 사는 사람들과 이고장 출신으로 다른 마을로 시집가서 사는 사람들까지 다 단골로 포함된다. 전통 사회에서는 마을을 떠나 살았던 경우가 적었다. 혹 마을을 떠나게 되면 가짓당이 라 하여 ‘衆散’하여 당을 자신이 사는 가까운 곳에 모신 경우가 있었다. 송당에서는 그래서 딸은 본향당 제일에 예명 올리는 걸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한번 본향당에 단골로 예명을 올리면 빠지지 않고 본향당신에게 봉제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할머니를 서운하게 해서 나쁘게 된다고 하는 관습법이 있어서라고 한다. 김○생씨 세대의 딸들 중에도 예명이 올려졌던 적도 있지만 본향당을 찾지 않아 불행한 일이 생겼다는 것이다. 시기적으로 보면 70대인 출신자들이 활동하던 시기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 당시에는 외지에 나가 살거나 출가로 인하여 송당을 떠났던 단골들은 생업을 하느라 본향당에 다니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지만 웃송당본향당이던 금백주당이 송당마을 전체의 본향당으로 신앙권이 확대가 되고 외지에 나가 사는 출신자들이 본향당 제일에 참석을 하게 된 것 또한 전통신앙사회에서 변화된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출신자 중에 딸들의 가계가 많다는 것도 이렇게 이해 될 수 있다. 근대화에 따른 산업사회와 교통의 편리함에 힘입어 신앙분포가 넓어졌음을 볼 수 있다.

2) 상단골 광산김씨와 광대본 유래

105) 김○생, 여, 1936년생, 구좌 송당리, 2010년 3월 28일, 자택 면담조사.

4·3사건 전에는 웃송당 사람들만 백주할망당(송당본향당)에 다녔다는 것은 앞에서 살펴보았다. 그래서 웃송당 출신들에게는 필연적인 신앙이라는 것이다.

구술자 : 역대를 말하면, 제주도에 입도 한 하르방으로 우리가 삼십육대 일거라. 내가 딸이라서 알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손당에 와서 살기 시작한 것은 선달하르방이 아방이 어떻 아방을 천리를 했지. 송씨 하르방이 송당을 개벽하고 산신도 모셔오고 해서 잘 사니까 말테우리 하러 온 거지. 아들이 여럿이 있어서 말이야.

조사자 : 송씨하르방 때부터 백주할머니가 있었던 것일까요.

구술자 : 아마 송씨하르방 하고 같이 여러 당을 모셨을 거고 백주할망은 그 전부터 있었던 걸 거야. 난 자세히 모르지만 송씨하르방이 송당을 개벽 했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광산김씨가 와서 보니 할머니 신위가 있어서 모시기 시작했을 테지.

조사자 : 송씨하르방이 개벽하니까 송당이라고 했을까요.

구술자 : 그래 송씨하르방이 개벽하니까 ‘송’하고 저기 당이 있으니까 당해서 ‘송당’ 맞아.

조사자 : 그런 말 들은 적은 없습니까.

구술자 : 응 없어, 그걸 들으려고 했으면 듣지만은 내가 듣기로는, 안돌오름¹⁰⁶⁾ 하는 말도 봉덕위에서¹⁰⁷⁾ 쫓그려 앉아 불을 쬐다 듣게 된 거야. 그래도 그런 말을 했었으면 들어서 알았을 테지만 안했으니까 듣지 않은 거지. 난 들은 건 말하지만 듣지 않는 건 말하지 않아.¹⁰⁸⁾

(A13)<녹취원문 Ⅲ-2>

조사자는 오래 전에 광산김씨 3대째 종손 며느리인 할머니로부터 본향당굿을 할 때면 심방이 웃송당 상단골 광산 김씨를 일컬으면서 ‘췌땃골’ 이야기를 반드시 해야 굿이 선다는 말을 들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김○생씨한테 물었다. 그는 광산 김씨 집안에서 했던 광대굿이 있었다고 하였다. 고대중 매인심방 일가가 매인심방을 그만 두면서 그 분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06) 안돌오름: 송당마을 오름지명.

107) 봉덕위에서: 마루 마다에 놓여진 돌화로 위에서.

108) 김○생, 여, 1936년생, 구좌 송당리, 2010년 3월 28일, 자택 면담조사.

<상단골 광산김씨 집안의 광대굿>

첫땃거리, 옛날 선달을 놀렸던 거 말인가, 저 곳이<집에서 위쪽을 가리킨다>첫땃거리야. 옛날 송당 송씨 하르방이 개벽해서 살 때, 송씨 하르방네 말테우리 질 하러 우리 광산김집이 선달하르방 아방이 왔어. 그 선달하르방 아방이 손당 안돌오름 버덕길¹⁰⁹⁾ 옆에 앉아서 말테우리를 했지. 못 살아서 말이야. 중인 대사 셋이 내려오다가, 여기에 묘를 쓰면 아들 둘이 과거시험에 동방급제를 하겠다. 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지. 스님들은 땅의 형세를 알아서 그렇게 말한 거지. 그러자 선달하르방 아방이 천리밖에 있는 스님 앞에 가서 넘죽이 엎드려서는 아들이 있는데 어떻게든 조금 전에 한 말. 살려주는 샘치고 자세히 알려 달라고 사정을 했다. 못살아서 이렇게 말 테우리질을 하고 있다며, 그 스님들은 벌써 땅임자가 나왔구나며 가르쳐 주었다고 했어. 그렇게 해서 선달하르방 하르방을, 여기 온 선달하르방을 낳은 아방이 말젓아들인가 작은 아들인가라고 해. 형들 모르게 김녕, 고산이에 묻은 어멍 아방을 밤사이 이장해 와서 그 자리에 묻었어. 그렇게 하자, 아들 형제가 과거시험을 봐서 선달벼슬을 하게 되었지. 그렇게 해서 오니까 그때 놀이를 하는 광대들이 돈을 받아 보려고 따라오게 된 거야. <팔을 위로 뻗고는>이렇게 해서 줄을 지붕위에 두르고 첫땃거리에 대나무를 세워 놓고서, 너 재주가 좋느냐며 막 자랑을 했어. 열사흘 동안 굿을 하며 아들 형제가 그렇게 해서 오니까. 얼마나 거들먹거리면서 살았겠니. 시집 안 간 천하일색으로 고운 선달하르방 누이가 있었어. 그런데 그 누이하고 일곱 광대 중에 한 광대하고 눈이 맞아서 그 광대가 돌아가지를 않는 거야. 다들 돌아갔는데 말이지. 왜 돌아가지 않느냐며 고깃배에 태워서 보내 버리라고 했지. 그렇게 해서 고깃배에 태워 보냈다는 거야. 그렇게 했는데 선달하르방 아방이 밤에 꿈을 꾸는데 그 광대가 물에 젖은 채로 졸졸 따라와서 문지방 위에 앉더라. <방문의 미달이를 가리키며> 그래서 미심쩍어 어떻게 한 번 알아보라고 해서 알아보니까, 아뵘싸 바다에서 파도에 뒤집혀 죽어 버렸다는거야 고깃배니까. 그 후부터 그 죽은 광대귀신이 선달하르방한테 붙어서 그 선달하르방은 동백나무 위도 팔팔 날아다니고, 지붕 위에도 팔팔 날아다니며 너 재주가 좋냐, 내 재주가 좋다 하면서 날아 다녔다고 했어. 그게 첫땃거리 광대귀신 놀림이야. 그 후로 어디 아프면 그 귀신 때문이라며 굿을 했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광산김씨 부잣집에 곱게 낳은 딸한테 붙어서 그 귀신으로 인해 정신이 혼미해가면 굿을 하면서 춤을 추게 했다는 것이야. 그리고 남자를 낳으면 술을 먹어서 술로 인해 정신이 혼미해져 가면 그 귀신을 놀리는 굿을 하는데 그 귀신 붙어 정신이 혼미해져가고 혼절해가면 굿을 하고 그러면 낫기도 하고 그랬지. 아 그 굿을 해서 이제 할망본도 풀고, 저승본도 풀고 이 광대본도 풀고, 광대귀신이야 광대 날아다니는 광대지. 그 광대본을 아는 심방은 웃손당 고봉선네야 옛날에 알아서 막 풀었지. 옛날에 했었으니까 광산김씨 역사를 잘 알지. 광대본, 저 광산김집이 선달하르방 누이하고 미쳐 지내다 억지로 돌려보내니까 물에 빠져 죽은 귀신이 여기에 와서 붙은 그 본이야. 그렇게 된 이야기라.¹¹⁰⁾ (A14)<녹취원문 Ⅲ-3>

109) 버덕길: 농사를 짓지 않고 자갈이 많이 있는 땅이나 또는 자갈 길.

110) 김○생, 여, 1936년생, 구좌 송당리, 2010년 3월 28일, 자택 면담조사.

이 광대본 이야기로 새로 추정해 볼 수 있는 단서를 생각할 수 있다. 지금은 전승이 되지 않아 추측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놀이곳이 한 집안에 곳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료다. 이것은 광산 김씨 집안에서 행해졌던 곳이다. 1982년 신년과세제 때에 분향당곳에서 분향이 들어오고 분향신을 놀리는 제차에 그 흔적이 보인다. 이때 당곳 중 마지막 조상을 놀리는 제차에서 보통 당곳에서는 보이는 탐불소리나 서우젯소리가 아닌 것이 보인다. 풍류노래로 당신을 놀리고 있었다는 것이다.¹¹¹⁾ 여기서 ‘풍류잡형 놀래’를 한다는 것은 놀이 곳 형식이 있었다는 것으로 착안 할 수 있다. 웃손당분향당이었을 때는 단골이 광산 김씨 집안사람들만 있었다. 그 분향당 곳에 참여하는 단골들이 모두 광산 김씨 집안이며 그 집안의 광대굿놀이가 분향당곳에 습합되어 나타났던 것으로 연관지어 볼 수도 있다.

3) 영험담

송당마을에서 4·3때 해안으로 소개를 했다가,¹¹²⁾ 이듬해 2월에 올라왔을 때 일을 말한다.¹¹³⁾ 당을 설립하고 처음으로 정월 신과세제를 지내지 못했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 이월 영등손맛이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백주할망영이 세니까 자손들을 잘 돌봐 준다는 근거로 이야기를 하였다.

구술자 : 그때 송당 성들런 성안에 스삼사건 때 느려갓단 완 사는다. 손당 지서가 있어네. 지서 잇으난 지서 주임 꿈에 백주할마님이 성담우이 올라산 웨이 이 늠덜 오지 말아라 오지 말아라’ 흐멍 거 폭도엔 흐건 몽둥이로 다올려 다올리멍 지서주임님 나 베고프난 밥을 헤여줍서. 경허난 문생이 우리 팔촌오라방 죽어벗주만은 그디 오란. 백주할망 밥주게 흐령헌 구신이 어떻헌 구신이니 저 폭도 못들어 오게 다올림젠 허난. 아이고 여기 영흐 백주 할마님이 시난 할마님이 경 이 손당은 폭도도 흐 번 아니 들게 주곡. 영흐는게 아니권 경ㄴ르난 아 그디 멩기렌. 지서 주임이 허가해 부난 그뎨 부터 믋음 난. 탕겨주. ¹¹⁴⁾ (A15)

111) 앞 장에서 심방 3, "그전사 ~ 할마님 에명 올려나민 풍리잡형 놀래불령 니닌난니 난니로 헤영청헤영, 그게 아니우다. 이러난 오늘~ 점서를 받으난. 애들롭다. 그전사 이럴걸 몽롱허엇구나" 이라고 전에 하던 곳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있다. 1982년 신과세제에서 - 문화역사마을만들기북군추진협의회, 『북제주군송당리 보고서』, 각, 2004, 부록편 228쪽.

112) 1948년 11월 중순.

113) 이 부분은 II장에서 설명 함.

114) 김○생, 여, 1936년생, 구좌 송당리, 2010년 3월 28일, 자택 면담조사.

(풀이: 4·3때 해안으로 소개를 했다가 송당에 돌아와서 당에 다니지 못하고 성을 쌓고 사는데 송당 지서가 있었다. 지서주임 꿈에 백주할망이 성담위에 올라서서 휘이 이놈들 오지 말아라 하며 폭도라고 하는 것을 몽둥이로 내 쫓으며 지서주임님 나 배고프니까 밥을 해주라고 했다고 한다. 지서 주임이 문생이 이장한테 와서 밥 주라고 호령한 할망귀신이 어떠한 귀신이냐고 저 폭도들 들어오지 못하게 쫓아낸다고 하니깐 아이고 여기 이런 백주할망이 있어서 송당은 폭도 한번 들지 않는 거라고 했다. 그럼 그 곳에 다니라고 허락해 그때부터 마음 놓고 다녔다고 한다.)

본향당신에 대한 영험담은(1993년) 본향당 정비를 할 때 이야기다.¹¹⁵⁾ 실제 일로써 광산 김씨 일가 중에 한 단골이 본향당신앙 물림을 받아들이며 했던 경험을 김○생씨가 들었던 이야기를 하였다.

구술자 : 저기, 조카뻘 되는 ○○이가 할머니한테 다니다 부부가 병이 났어. 세화마을에 있는 바다 해신님, 뭐라고 하는 교회에 다니면서 말이야. 할머니한테 다니지 않아서 일이 순조롭지 않고 어려워지기만 하는 거야. 내가 하루 저녁에 갔어. 할망당에 담 쌓기 할 때야. 야, 너희들 교회니 뭐니 해도 백주할망한테 다녀라. 이제 담을 쌓으려고 모두 회사를 하는데 너희도 돈을 회사 하고, 이때에 잘 됐다. 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깐 그럼 이제부터 다니겠다며 그동안 잘못 했습니다. 라고 해. 그렇게 이야기 하면서 열두시까지 놀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아침 새벽에 나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기도 잘하고 잘 다니겠다며 하고 절해 가니까 거기서 흰 장닭이 나와서 꼬끼오, 꼬끼오. 날개를 퍼덕이며 막 울다가 흰 장닭은 흰강아지로 변해서 집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붉은 장닭은 거기 있던 것이 검은 강아지로 변해 자기 뒤를 쫓아 오더라. 가만히 있으면 차려 가서 잘 하려고 하는데 쫓아오려고 한다며 급히 숨어버리니까 돌아가 버렸습니다. 라고 해, 그건 본향 할머님이지. 닭이 할머님이야.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해 주었어. 백주할머님이 기뻐서 내 딸 착하다 라고 한 거고, 전부 담장하고 비석하고 문화재로 올라갈 때니까 기뻐서 뚝뚝 날개를 퍼덕이며 할머님이 변색한 닭은 들어 가버리고 붉게 변색한 붉은 장 닭은 송당머리 일뤼할망,¹¹⁶⁾ 저기 허물 내서 먹는 허물할망, 눈에 병을 주는 할망이야. 그 할망이 따라 붙었는데 숨어버리니까 잘 한 거라고 했지. 그 뒤로 그 조카뻘 되는 사람들 소를 기르고 자식들 장가보내며 잘 됐어. 잘 살고 있어. ¹¹⁷⁾ (A16)<녹취원문 III-4>.

웃송당 광산 김씨들은 백주할망당에 다녀야 하는 전통이 있다. 만약 그것을 따

115) II장 2절에서 설명함.

116) 송당머리 일뤼할망: 송당입구 체오름 앞에 좌정한 일뤼할망.

117) 김○생, 여, 1936년생, 구좌 송당리, 2010년 3월 28일, 자택 면담조사.

르지 않는다면 본향당신한테 제약을 받는다는 말을 하고 있다. 김○생씨의 말을 살펴보면 본향당에 다니지를 않아서 실제로 힘들었던 사례라고 한다. 김○생씨가 직접 본향당 정비사업을 할 때 동참시키면서 본향당신앙 물림을 시켰다는 것이다. 그 후부터 단골들한테 본향당신 제약이 풀리면서 일이 순조롭게 풀리고 자식도 잘 되고 사업이 번성해서 부자가 됐다고 실명을 거론하였다. 이것으로 보면 김○생씨가 본향당에 대한 지식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향당신앙을 잊지 않아서 생기는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시 신앙을 이어야 한다는 사고다. 흰 닭과 흰 강아지의 변색, 붉은 닭과 검은 강아지의 변색을 본향당신과 일체할망당신으로 구분하며 해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본향당에 다니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게 될 거라는 신념을 가지게 한다. 그렇게 해서 단골이 신앙을 잇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2. 변화된 본향당 신앙전승

1) 통합된 본향당신앙

심방이 신앙권을 확대시키는 과정에 역사적 배경인 4·3이 있다. 4·3을 겪으면서 웃송당본향당이었던 것이 웃송당·셋송당·알송당을 아우르는 송당본향당이 되었다.

구술자 : 우리 어린때 어머니 스승 스승 때 오난 범이서 폭도 잇텐 막아 노난, 그 데중이 하르방 사는디 할마니 모시젠 모산 완, 그디서 굿 덜랑 허고 데중이 아방 허는 것도 네 바 난, 막 하르방 수염도 좋고 잘해 나서.

조사자: 그 하르방 사는디 모셔다 난 응 모셔단 경허단.¹¹⁸⁾ (A17)

(풀이: 우리 어릴때, 어머니가 4·3사건때 해안으로 소개해서 내려갔다 올라왔을 때인데, 나라에서 폭도 있다며 막아버리니까. 그 데중이 아방 사는 집으로 할망을 모셔와서 거기서 굿을 하고, 데중이 아방이 굿을 하는 것도 보았었지. 하르방 수염도 좋고 굿을 잘 했어.

118) 김○생, 여, 1936년생, 구좌 송당리, 2010년 3월 28일, 자택 면담조사.

조사자: 그 하르방 사는데 모셔다 놓고요.

구술자 : 응, 그렇게 하다가)

웃송당본향당을 송당 전체의 본향당으로 신앙권을 확대시켰던 고봉선 심방은 신앙으로 사회를 통합시킨 것이다. 웃송당 단골들의 조상 뿐만 아니라 셋송당과 알송당의 사람들한테도 한 조상으로 모시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4·3사건과 새마을 운동은 무속신앙에 영향을 주었다. 송당의 본향당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요즘에는 전통문화를 새롭게 인식하는 본향당신앙을 가지지 않는 일반 마을 사람들도 본향당신 백주또(백주할망)를 마을의 전통유산으로 생각하며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래서 본향당굿을 할 때마다 당번을 정해서 웃송당, 셋송당, 마을 부녀회에서 당굿 제반에 따른 점심을 제공하는 노력에 참여한다.¹¹⁹⁾ 본향당 당굿이 제주도 지정 무형문화재로 보호되고 있고 마을에서도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본향당 단골들이 당회를 이루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2) 단골의 신앙전승

70대 단골들은 선대로부터 학습 받아 본향당신앙을 이어 왔다. 하지만 후대는 본향당신앙을 어떤 형태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 전승과정은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단골들의 본향당 신앙전승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재 상황에 대해 알아 본다. 김○생씨의 집안에는 신앙물림이 확실하게 된다고 한다. 자신의 신앙을 물려받을 며느리와 함께 본향당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문제없이 이어갈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

조사자 : 당물림 할 때에 ○○며느리는 어떻게 할까요.

119) 2010년 정월 신과세 본향당 굿을 할 때 부녀회에서 손으로 밀어서 준비한 메밀국수를 굿을 보러 온 일반인과 단골들에게 대접하고 있었다. 이런 마을의 노력 제공은 참여가 미약하거나 본향당에 과세문안으로 당굿을 치르는 단골의 신앙심이 적었다면 지속하는데 무리였을 것이다. 다행히도 송당 마을에서의 전통문화보존에 대한 열의와 송당리 주민들과 출신자들의 ‘本郷’이라는 인식이 계속 이어져 가기 때문에 생생한 본향당굿 제의를 볼 수 있는 것이다.

구술자 : 떠느리는 당연히 다닐 뿐만 아니라 그러고도 남아. 사라 산신당에도 태워다 주고 여기 백주할망당에도 어머니가 못 다니게 되면 자신이 다니겠다고 하니까 자식들은 걱정 없어. 단단한 생각이 중요해. 그러니까 ○○이 오라방<육촌사이>각시 아프고 해도 여기를 오고 있어. 그렇게 하니까 살아가는데 큰 불화가 닥치지 않는 거야. 그 아방이 힘쓰며 다녔었지만 자신들은 다니기 어려운 형편인데도 다니고 있어. 그런데 ○○어명이나 ○○작은 어명은 본향이라고 해서 한번 다녀가지 않더라.

조사자 : ○○아들이 시험을 20년 동안 보아도 아니 되어서.

구술자 : 그러니까 내가 말하지 않느냐. 어디 부모 조상들이 다녔던 길이라지만 본향에 와서 어떻게 저거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고,

조사자 : ○○할아버지는 열심히 다녔다고 들었는데요.

구술자 : ○○하르방 열심히 다니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아방 난 할망은 아무데도 다니지 않았어. 정윳 할망, 그렇게 하니까 살았지. 삶도 어렵고 그런데 다녀서 무얼 하겠느냐고 귀신이 어디에 있느냐고 해서 살았지. 당에 다니는 말이 없었어. 120) (A18)<녹취원문 II-5>

김○생씨는 지금도 본향당신앙을 물려받지 않는 과거 단골의 후손들에 대한 잘못을 이야기 한다. 본향당신을 봉제하지 않는 것은 단골로서 전통성을 잃고 당신으로부터 규율을 엄수하지 않는다는 노여움을 사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 어렵게 닦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어렵게 살고 있다고 하였다. 자신들 부모가 해오던 일을 받들어서 모시지 않기 때문이라며 윤리적 비판을 하고 있다.

구술자 : 이디 허영 김○○엔 우리 광산김씨 집안이 우리 팔 촌 오라방 아딜도 거시기 성당 믿는체 흐는게 이디 어명 살아난 어명 사논 밋디 왕 집 짓영 살아도 성당 믿는 체 흐는 할망 한티도 오란 삼년도 안 살안에 암벙이엔 그냥 똤져 부런. 할마님 안티 옛날 어명 아방딜이 뎡 겨난 때 흑실히 아이딜 한티 뎡 기당 즈손이 아이 뎡겨오네 만겨 믿는 늡 손당 오랑 살덩 어딜 살던 늡 오레 못 살아 똤져 할마님 영으로 이 늡 영, 경허난 백주할마님은<목소리가 작아 지고 간절해지며> 이 세상에서도 날 곱은 인간 할마님 도와 주난에.121) (A19)

(풀이: 여기 김○○엔 우리 광산김씨 집안 팔촌 오라버니 아들, 성당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기에 와서 자기 모친이 사두었던 밧에 집을 짓고 살아도 할머니한테 다니지 않았어. 여기에 와서 삼년도 되지를 않아서 암이라고 해서 그냥 죽어버렸어. 할머니한테 옛날 어명 아방들이

120) 김○생, 여, 1936년생, 구좌 송당리, 2010년 3월 28일, 자택 면담조사.

121) 앞과 동일.

다녔는데 자손이 다니지 않고 다른 것들을 믿는 사람들은 송당에 와서 살든 다른 데에 살든 지 오래 살지 못하고 일찍 죽는다. 할머니님이 영으로 이놈 하고, <목소리가 작아지며 간절하게 변해감> 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 할머니님이 도와주니까)

본향당단골은 단골신앙을 엄수하는 엄격함이 있어야 한다. 규범을 지켜나가는 개인으로서 신앙공동체뿐만 아니라 사회공동체까지 윤리를 바탕으로 전통성을 지니며 살아가야 한다는 데에 있다. 그것이 인간으로 부족한 삶을 살더라도 본향당신에게 의지할 수 있는 단골윤리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단골로서 윤리를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본향당신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구술자 : 저 대학시험에 불게 도와준 예기, 서울 항공사에 시험을 보러 갔는데 산신대왕 산신백관님, 강원도 금강산 산신님한테도 기도 드려 주고 도와주십시오 우리 불쌍한 인간을 도와주십시오 하고 산신님한테 절을 납작하게 엎드려 한 후 코시 조금 해두고 돌아와 보니 시집오기 전인 며느리가 아이고, 오늘 시험본거 떨어진 것 같아서 합격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는 거야. 입고 갈려고 새 셔츠를 걸어 두었는데 같은 일행 중에 누군가 입고 가버렸다고 시험은 봤지만 화가 나서 더듬었을 거야. 못 된 일행 중 도둑놈 자식이 있어서, 그런 사람은 나중에도 잘 되지 않아. 그렇게 말해도 나는 마음속으로 산신님하고 백주할머니 도와주니까 됐을 거라고만 생각했어, 그랬냐고만 하고는, 일주일 후에는 은행에서도 오라고 하고, 항공에서도 된 것을 또 가서 시험을 본거라. 그저 우리 없이 사는 불쌍한 인간 모두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하는 건데, 옥황상제님은 눈을 훤히 떠서 우리 인간들 좋은 일 하는 거, 못된 일 하는 거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어.¹²²⁾ (A20)<녹취월문 Ⅱ-6>

본향당신앙은 단골들의 윤리로서만이 아니라 인간사회를 규범화하기도 하며 공동체에서 일에 따른 결과 또한 스스로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준다. 그리고 종교로서는 단골을 안전하게 반드시 지켜준다는 신앙의 확신을 주고 있다. 본향당신앙의 전통성은 신화를 통한 가르침과 그것을 규율로써 따르는데 있다. 신앙공동체에 있어서도 신화를 학습한 결과는 규율을 지키고 가르치는 범주에 있게 된다. 그것은 당신앙을 공고히 하는데 지침이 되고 사회공동체를 운영하게 하는 윤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 본향당신앙의 전통성은 윤리며 규범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단골신앙을 통합해 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22) 앞과 동일.

김○생씨는 당신양의 기본이고 단골로써 윤리와 규범이 되는 백주할망본을 거침없이 풀었다.

<구술자 김○생씨의 백주할망본풀이> 단락 정리

- ① 백주할망이 처녀 때, 제주도에서 인연을 맺고 살라는 팔자라 해서 외가를 찾아왔다.
 - ② 소천국 하르방이 할망을 좋아하게 되나 돼지, 쇠 전마리를 먹어 콧내 나서¹²³⁾ 싫다고 하자 먹지 않는다면 약속하고 결혼을 했다.
 - ③ 백주할망과 소천국 하르방은 아들 일곱 형제 딸 일곱을 낳고, 사는 것이 어려웠다.
 - ④ 소천국하르방이 오봉이굴왓¹²⁴⁾에서 밭갈 때 가지고간 점심을 넘어가는 대사가 “배고픈데 밥한술 달라하고 남김없이 먹고 가버린다.
 - ⑤ 소천국하르방은 점심을 먹으려는데 밥이 없자 배고픈 김에 밭가는 자기소를 잡아먹고도 모자라 남의 소까지 잡아먹는다.
 - ⑥ 백주할망은 자기소를 잡아먹고 남의 소까지 잡아먹는 도둑놈이라 하며, 나고가라고 내쫓자 소천국하르방은 할로영산 오백장군 딸을 얻고 산다.
 - ⑦ 어느날 백주할망은 할로영산 나무구멍 즈들¹²⁵⁾ 연기 나는 데서 하르방하고 오백장군 딸을 찾아 당오름으로 데려 왔는데, 소천국하르방이 마지막난 아들이 복이 없어 이별수가 있다고 무쇄설각에 넣어서 바다에 버리자고 해서 버렸다.
 - ⑧ 작은 아들은 무쇄설각 속에서 낮 삼 년 밤 삼 년을 바다 속 무우낭에¹²⁶⁾ 걸려 있는데 요왕국¹²⁷⁾ 작은 딸이 무쇄설각을 열어 주고 결혼을 한다.
 - ⑨ 작은 아들은 삼장수가 서천국 난을 막으면 물 한 착 땅 한 착 주겠다고 하자 그 난을 막고 대신 배를 하나 지어 달라고 해서 요왕국 작은 딸과 함께 송당으로 돌아온다.
 - ⑩ 백주할망은 내가 낳은 아들이 정말로 나를 죽일리 있느냐며 당물위에 올라 콩을 불리다 눈에 콩깍지가 들자 작은 아들이 부채로 세 번을 부치니 콩깍지가 도망가 버렸다.
 - ⑪ 소천국 하르방은 죽으라고 던진 아들을 어떻게 보느냐 놀라 달아나다 오봉이굴왓에 가서 죽고, 백주할망도 이 세상을 떠나버리니까 당오름에 모셨다.
 - ⑫ 작은 아들이 큰형님은 어느 당 매십시오, 하고 또 김녕 퀘네기, 제주도 일주 당을 매었다.
- (우리 옛날에 옷손당 단골 할망이었어. 셋손당은 일절 다니지 않았고. 그곳의 할망이 아니야. 옷손당 상단골이고 광산 김가들이 전부 차려 가지고 가서 고대중이 아방이 살았을 때 일등 심방이니까.)한다.¹²⁸⁾ (A21)<녹취원문 Ⅱ-7>

123) 콧내나고 : 소고기에서 나는 기름 냄새.

124) 오봉이 굴왓 : 송당마을에 있는 지명.

125) 즈들¹²⁵⁾ : 불을 지피는 나무 가지들이 있는 곳.

126) 무우낭 : 바다 속 산호나무 일종.

127) 요왕국에서 : 바닷속에 있는 용궁.

128) 김○생, 여, 1936년생, 구좌 송당리, 2010년 3월 28일, 자택 면담조사.

<표 III-1> 현 매킨심방과 단골 김○생 본풀이 비교

분류	현 매킨심방 본 ¹²⁹⁾	구술자 김○생씨 본	구분 짓기 (중심내용)	세대별활약/1세대,2세대,
①단락	+	+	백주할망 음 / 문화 유입	1세대, 외부신의 도래
②단락	+	+	결혼 / 토착 외래 결합	1세대, 문화 결합, 농/수렵
③단락	+	+	자식이 많아 어려움.	1세대, 문화번성
④단락	+	+	농사 권유, 농경문화	1세대, 농경문화 전환
⑤단락	+	+	스님에 의해 배고픔	1세대, 일차 식성 좌절
⑥단락	+	+	소를 잡아먹고 살림 가름	1세대, 분산 농/수렵 분리
⑦단락	+	+	부부 재회 자식 기아	1세대, 통합과 기아
⑧단락	+	+	요왕국 작은딸과 결혼	2세대, 새로운 세계 도약
⑨단락	+	+	난을 막고 배를 타고 돌아 옴.	2세대, 역경 딛고 귀환
⑩단락	+	+	백주할망 눈에 콩깍지 들 자 부채로 낮게함.	1,2세대, 갈등과 화합
⑪단락	+	+	소천국백주할망 좌정	1,2세대, 갈림과 통합
⑫단락	+	+	자식들 도처에 당신으로 좌정기	2세대, 세대 갈림 통합 구 분

+있음.

매킨심방 본풀이와 김○생씨가 구술한 본풀이를 비교하는 표를 만들었다. 우선 매킨심방이 구연한 본풀이에서 백주할망, 소천국하르방의 여정과 좌정인 부모 1세대(①~⑦)와 막내아들이 요왕국 여정과 요왕딸 2세대(⑧~⑬)의 구성과 같은 분량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인다. 특히 매킨심방 구연에는 2세대 구성에 있어 자식들이 당신 좌정기가 자세히 드러나고 있으며 김녕케네기 당신 좌정기는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역대 매킨심방본풀이에서 보았다. 여기에서는 각각 심방과 단골 입장에서 구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향당곳에서는 심방이 봉

129) 앞, 2장 3절 참조,

제자로서 본풀이가 신화적인 기능이 강하게 나타나며 단골 입장에서 구분할 때는 본풀이가 편하게 이야기 된다는 것이다. 단락을 나누어 보면 김○생씨 본풀이도 1~2세대 내용구성을 모두하고 있어서 완전하게 구비전승 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김○생씨 한테서 채록한 백주할망본풀이를 송당본향당본풀이로 볼 수 있다. 단골 입장에서 구송하는 본풀이도 본향당본풀이로서 규정될 수 있으며 매인심방이 구연하는 본향당본풀이와 비교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본향당 단골로서 본향당신앙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과거 심방들이 백주할망본풀이를 구연할 때 문제 삼던 단골들도 당신앙의 주체로서 본향당신앙의 전승에 따른 전통성을 문제로 제기한 신앙표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매인심방이 당곳에서 구연한 본풀이와 단골인 김○생씨의 백주할망본풀이 구송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풀이를 부모 1세대와 자식 2세대로 나누었을 때 ①~⑫단락까지 구성에서 매인심방 본풀이와 김○생씨의 본풀이 구성이 거의 같다. 특히 ⑩단락은 앞장 <표 II-5>의 역대 매인심방 본풀이 비교에서 나타나지 않았는데 현 매인심방과 김○생씨에게서 나타나고 있다.

둘째, 단락구성에서 분량이 차가 있다. 김○생씨의 본풀이보다 매인심방본의 본풀이가 자식 2세대 부분 이야기 분량이 많다. 매인심방 본풀이는 당신 자식세대 당신 좌정이 자세히 나오고 있고 본향당신 막내아들의 노정기가 그 분량이 많다.

셋째, 매인심방 본풀이는 마지막 단락에 백주할망 작은 아들이 궤네기당신으로 좌정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다. 반면 김○생씨의 본풀이에서 끝나는 소천국과 백주할망 좌정기와 다른 자식신 좌정을 간단히 처리를 하고 있다.

김○생씨는 어릴 적 할아버지로부터 백주할망 이야기를 듣고 기억하고 있다. 그 할아버지는 다시 윗대 할아버지한테서 들었다고 하였다. 고봉선 심방이 곳을 할 때도 들었던 이야기라고 한다. 그리고 들어서 안다는 것이고 듣지 않은 부분은 모른다고 분명히 한다. 김○생씨의 구술자세는 정말 소중하다. 그리고 본을 막힘없이 풀어내는 백주할망 이야기가 단골생활 속 구비전승을 보는 것이라서 더욱 그렇다. 할아버지로부터 듣는 신화 속 인물과 이야기를 수없이 나눈다고하

였다. 신화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본향당에서는 심방만 구송하는 범접하지 못하는 위엄이 있는 이야기지만 본향당을 나와서는 단골들에게 구비전송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일을 할 때나 생활 속에서 부르면서 대화를 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막힘없이 즐겁게 구송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신화는 이렇게 증명되고 살아 있는 가치를 충분히 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으로 심방이 지니고 있는 문제에 이의를 제기할 만큼 단골이 본향당 전통학습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부분이다. 단골이 학습해야 할 본향당 전통이라고 하면 본향당에 대한 규율과 규범을 들 수 있다. 심방이 굿법에 따라 굿을 하듯이 단골들은 본향당 전통에 따라 신앙을 이어가는 것이다. 김○생씨는 과거 단골신앙에 대한 구분도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 하고 있다. ‘백주할망은 웃송당의 할망이지 셋송당할망은 아니다’고 하였다. 고대중 심방 부친이 잘 하는 심방이니까 잘 알아서 했다며 전통성에 대한 마무리를 하였다. 이런 김○생씨를 보아온 강○순씨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

구술자 : 건디 메번 간 보민 아들 호고 손주 들곡 메누리 호고 경헨 와. 메번에 그자 낭푼에 쓸 앓어간거 아들 액 막아 주는 거. 굿구 좋구 그자 액 막아 아이고. 계난, 지영 간 것도 영 흥번 현뎨 양쪽으로 짚언 완. 읍디가 행 영혜도 문쳐 인사를 안 받아. 할망신디 절 하나사 인사 맡으고 인사 호고 경헨. 영헨 호간 나가 맡으젠 호난 말렌, 지테로 호키엔 지테로 올려난 절 헤어 돈 그 때사 영헨 돌아 산덜 말 굴곡.¹³⁰⁾ (C05)

(풀이: 그런데 항상 당에 가 보면 아들하고 손자 데리고 며느리 하고 그렇게 와 있다고. 메번 양푼에 쌀 가지고 간 것은 아들 액을 막아 줄려는 것이고 굿든 좋든 액을 막아준다고, 제물을 지고 간 것도 한번은 양쪽에 지팡이를 짚고 오니까. 읍디가 해도 먼저 인사를 받지 않고. 할망한테 절을 하고 나아 인사를 받고 인사를 한다. 한번은 불편한 몸이니까 내가 맡으려고 했는데 하지 말라며 자기대로 제물을 올려놓고 절을 하고 난후에 돌아서서 말을 했다.)

김○생씨의 백주할망에 대한 신앙은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없을 거라는 말이 있었다. 조사자는 강○순씨의 본향당신앙이 며느리에게 어떻게 전해질것인지 궁금하였다. 지금은 며느리도 같이 당에 가니까 문제는 없지만 나중에 강○순씨가 못할 때는 어떻게 할 건인가 하고 질문하였다.

130) 강○순, 여, 1934년생, 서귀 천지동, 2010년 3월 20일, 자택 면담조사.

구술자 : 가라고 해야지. 며느리가 갈 동안은 나가 움직여 다녀야지 명심하지 못해. 몸 꺾어도 못 가고, 첫째에. 지금 본향당에 다니는 단골들이 그 참여 정도에 대해서는 십년 전에도 그 인원이 같고 이십년 전에도 그 인원, 삼십 년 전에도 그 인원인 것 같아. 강 할머니는 이번이 정월에 갔을 때에 많이 가지고 가지 않았니? 어떻게 그걸 아느냐 하면 말이야, 체수 병을 세어 보니까 대충 몇 개나 될까.

조사자 : 백 개. 백오십 개 정도.

구술자 : 백 개가 뭐라, 한 줄로 센 것이 서른일곱 개였어.

조사자 : 한 줄만 센 거요.

구술자 : 한, 그저 동쪽 편에 말고 할망당 그 계단으로 올라가는 동쪽 편에 계단으로 올라가는 동쪽편도 한줄 정도 내가 세어본 것이 서른일곱 개를 세어 보았어. 그러니까 그 계단 한 편으로만 해도 오십 개도 넘어. 백오십 개 그까짓 정도는 넘었지.¹³¹⁾ (C06)

조사자도 신과세제에 참가한 단골을 차례로 헤아려 보았는데 단골들도 자신과 다른 단골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단골들은 자신을 포함해 자식의 가정을 위한 제물도 같이 준비해 와서 올리고 있다. 세대와 가족구성원이 다르면 신앙구분을 해서 따로 제물을 준비해서 올리는 것이다. 그러면 참가한 단골보다 한 두 가구는 많아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신을 포함해서 본향당 단골이 많다는 말에는 공감이가는 부분이다. 자신의 신앙은 단골이 많기 때문에 대중성이 있으며 전통성이 있는 신앙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단골이 많다는 것은 본향당 신앙으로서 정당성이 있으며 확신이 서는 입장이 된다는 것이다.

3) 심방의 당굿전승에서 드러난 전통성

단골의 신앙심은 당에 대한 관심과 존중감으로 나타난다. 우선 본향당신의 역사는 잘 풀어야만 백주할망이 풀어져서 신나락 만나락 한다는 것에 모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당굿 제차에서 본향신이 들어온 후에 행해지는 군웅놀림은 심방뿐만 아니라 단골들도 당신한테 즐거움을 주어야 하는 대목이다. 단골들은 이때를 위해 옷을 잘 차려 입고 깨끗하고 흥겨운 모습으로 신을 즐겁게 하고 있다.

131) 강○순, 여, 1934년생, 서귀 천지동, 2010년 3월 20일, 자택 면담조사.

곳 제차에서 단골들이 당신을 위해 적극적인 신앙을 보이는 부분이다. 이런 참여에서 단골들은 심방이 하는 본향당곳에 대한 평가도 한다. 먼저 단골들은 당곳을 집전하는 상황에서 직접 평가를 한다는 부분이다. 그리고 그 평가를 하는 바탕은 본향당에 대한 단골들의 기억 속 집합에 의해서다. 그 기억은 본향당곳을 보고서도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단골들에게 오랫동안 쌓여진 본향당 전통성이 학습되어서 이루어진 결과다. 이런 전통성을 바탕으로 단골들은 심방에 대해 만만치 않는 평가를 하고 있다.

구술자 : 당에 와서 보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늘 때, 굿할 때, 춤 잘 추는 할망 셋인가 넷인가 있는데 무언가 들어보면 그 중에서 한 할망은, 무어라고 할 건데 일컫지 않고 있다며 어느 것도 넘어 가 버렸어, 먼 담 넘어 가듯이 저거 봐라 저거, 이렇게 저렇게 일컬어야 할 건데, 그렇게 자꾸 말하더라고. 그런데 그 할망 이름을 모르겠어. 그 할망이 누구 어머이라고 하면 알 수 있을 텐데. 그 할망들은 한복을 입고 춤추러 잘 나갔어. 그런 할망이 셋인가 넷인가.

조사자 : 거기 며느리하고 같이 오는지 봤나요.

구술자 : 예그 살폈겠니, 그 할망들이 말해가면 나는 울커니 심방이 무엇이라고 라고 말하는 것이 틀렸구나. 이 할망들이 틀린 것을 다 잡아 내는구나 생각한 거야. 이렇게 저렇게 할 것을 안하니까, 봐라 뛰었어, 저기 말 타고 달아난다. 봐라 하면서. 할망 본풀이 할 때면 다해서 여쭙어야 할 건데 그렇게 유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먼 담 넘듯이 넘어 간다 그렇게 말을 했어.¹³²⁾ (C07)<녹취원문 II-8>

굿을 할 때 심방의 잘못을 즉시 알아채어 지적할 수 있는 단골들은 신앙을 지켜 나가는 본향당신앙의 주체다. 그 단골들에 의해 물린심방 부채로 생겨날 수 있는 본향당신앙의 구전적인 결함을 메워놓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단골들은 백주할망본풀이가 세대별 구성상에 의문이 있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리고 있다. 단골들이 알고 있어 기억하는 백주할망본풀이가 심방들이 바뀌면서 달라져 갔던 당신본풀이 내용을 바로 잡아 가는데 바탕이 되었다는 것은 당곳의 전승 주체가 달라져 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 반영이기도 하다. 단골이 심방을 가리켜 ‘나만도 모른다고’ 과거 연구를 하던 연구자에게 말했던 것이 기록에도 드러난다.¹³³⁾ 이것은 비단 단골들이 본향당신앙이 전통성에 대해

132) 강○순, 여, 1934년생, 서귀 천지동, 2010년 3월 20일, 자택 면담조사.

133) 정진희, 「제주도 당본풀이의 유형과 변천 양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9, 37쪽 각주.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근거만은 아니라 본향당의 문제를 직접 느끼고 적극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를 이어 오던 물린심방의 부재는 본향당과 신앙의 전승에 문제를 안겨준다. 지역에서 물린심방이 아닌 다른 지역 출신 심방의 본향당곳 집전은 지역마다 전통을 가지고 있는 본향당에서의 역할은 어려움을 면치 못하는 것이다.

당신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본향당 단골들에게는 이만큼 큰 문제는 없다. 그리고 심방에게 불행한 일이 닥칠 때는 더욱 그러하다. 송당본향당에는 물린심방이던 고대중 심방의 사후 1982년부터 외부에서 심방을 매게 하면서 단기간에 매회 심방이 죽는 불행한 일은 단골들에게도 예기치 않았던 일로써 심방에 대한 여러가지 심증을 이야기한다. 그런데 모두 한결같은 결론으로 본향당 본풀이를 완전히 전승하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문을 풀어나가기 위해 심방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우선이다.

김○호씨는 태어나서 청소년기까지 웃송당에서 살았던 광산 김씨다. 4·3 후에 마을을 떠났고 공무원 생활을 했다. 직장을 그만둔 후에는 부인과 같이 송당본향당에 다니고 있다. 그는 십 년 전에 발병한 뇌경색으로 말하는 것은 조금 느리나 판단에는 무리가 없는 상태다. 단어 선택이 어려우면 부인인 강○순 씨가 옆에서 알아차리고 알려준다. 부친이 상단골로서도 본향당 일에 열심히 했다는 말을 한다. 자신의 부친이 하던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본향당에 대한 사실이 그대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의 모친은 본향당에 다니지 않았었다는 김○생씨의 이야기가 있다.¹³⁴⁾

4·3전까지는 남자단골 영향에 의해 본향당신앙이 이어졌고 그 신화전승 과정도 또한 남자들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이야기다.¹³⁵⁾

김○호씨는 고대중 심방이 돌아가기 전 4년 동안 당곳을 하는 것도 지켜보았다고 하였다.

조사자: 그러니까 고봉선 심방이 죽고 나자 바로 고대중이 심방을 물려받았어요.

134) (A18), 각주 120 참조.

135) 앞의 2장 4절 참조.

구술자 : 응,

조사자: 안 하겠다고 하지 않았고요.

구술자 : 응응, 그 때는 그 고대중이가 해야 될 거니까.

구술자(강○순) : 고대중 심방이? 각시는 뚱뚱하고 아들이 대학생이고, 우리가 처음 가서 만
날 때에 대학교수가 들이고, 또 둘은 어느 대학 몇 학년, 몇 학년이라 한 심방.

구술자 :그 때는 그 부친이 돌아가시니까 바로 한 거야.

조사자 : 부친이 하나까 바로.

구술자 : 응, 그 전엔 안 하고, 전혀 안 했다가, 그 (고봉선 심방이 죽은 후)부터 그렇게 했
어. 그 딸도 심방이야, 부산에 살고 있어 그 딸이.

구술자(강○순) : 작은 아버지 돌아가실 그 때 와서 귀양풀이를 했어.

구술자 : 그 누이가 부산에서 크게 하고 있어. 송당에서 부터 그 누이가 잘 하고, 그 딸이
전부 했었지.

조사자 : 딸이 같이 다니면서 굶을 했군요. 아들은 하지 않고, 할아버지보다 열 살위 정도
나인가요? 고대중 심방 나이가.

구술자 : 그렇지는 않아. 우리보단 조금 조금 위야. 누이는 부산에 지금도 살고 있을 거야.
그 때부터 누이가 하고.

조사자 : 고대중은 안 하고요.

구술자 : 응, 안 하고 , 그 누이가 그 때부터 전부 하였어.

조사자 : 송당은 남자만 심방을 해야 한다니까 책에서 찾아 봤는데요. 오십 팔년<조사자가
잘못 말함, 칠년 구술자의> 큰딸이 한 살이나 두 살 썸인데 당시 고봉선 하르방이 일흔 네 살
이었고요. 서울에서 연구자들이 내려와서 어른을 방송국으로 모셔가서 녹음을 했어요, 그 것
으로 백주할망본이 책으로 나오게 되었는데요.¹³⁶⁾ 그 얼마 후 고봉선 심방은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기록된 것은 오년 후인데, 백주할망 본풀이가 조금 달라요.

구술자 : 그 누이가 지금도 살았으면 그 사람이 흔히 알 거야. ¹³⁷⁾ (B01)<녹취원문 III-9>.

김○호씨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고봉선 심방과 고대중 심방이 부자
지간임에도 불구하고 백주할망당 전승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고
봉선 심방과 큰딸이 굶을 함께 했고 고대중 심방은 장남이라는 이유 때문에 당
시는 남자만 뻐 수 있는 관습으로 백주할망당의 맏인심방이 되어 전승이 되었을
거라는 추측이다. 고봉선 심방은 돌아가는 해까지 송당본향당굿을 했다는 김○생
씨 이야기다.¹³⁸⁾ 그 해가 1957년이고¹³⁹⁾ 고대중 심방은 1959년 8월¹⁴⁰⁾ 세화와 송

136)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역락, 2001, 214쪽. : 고봉선 구송, 송당본향본풀이, 1957년 2월
채록.

137) 김○호, 남, 1932년생, 서귀 천지동, 2010년, 3월 20일, 자택 면담조사.

당의 당매인심방이라며 세화본향당본풀이를 하였다. 고봉선 심방 사후 2년째다. 같은 자료에서 고대중 심방은 당시 송당 백주할망본풀이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 고대중은 송당 백주할망본풀이(1966년) 기록이 있다.¹⁴¹⁾ 거기에는 1세대 구성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본풀이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그 후 고대중 심방의 송당 백주할망본풀이는 어느 기록에도 없고 더 이상 1세대 구성인 본풀이가 나오지 않았다.

고대중 심방이 송당본향당을 맡게 되어 본향당에서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후 1981년 고대중 심방의 사후에 1982년 송당본향당 신년과세에 매인심방을 맡은 박인주 심방부터 백주할망본풀이를 풀어내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단골의 이야기에서 많이 나온다.

우선 1982년 박인주 심방이 송당 백주할망본풀이가 1세대 구성으로 나왔다는 부분이 크게 지적을 받고 있다.¹⁴²⁾ 단골들의 말로는 많은 축약이 있다고 지적을 한다. 박인주 심방 사후 그 뒤를 맡은 문성남 심방도 같은 경우로 평가를하였다. 두 심방에 대하여 백주할망 역사를 잘 엮어 내지 못해 불행하게 됐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¹⁴³⁾ 이후 매인심방들 사망 문제로 이야기가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으로 단골들뿐만 아니라 연구자들도 의문을 가지고 있다.

매인심방에 대한 단골의 생각은 신앙만큼이나 변함없이 이어지기를 원한다. 본향당신 이야기를 원형 그대로 이야기 되는 것을 신앙보존이라고 여긴다. 본향당신이 어려웠던 삶을 자신의 어려운 삶에 비교를 하면서 이해하며 풀어 드림으로써 당신을 즐겁게 해야 한다는 믿음이 표현이다.¹⁴⁴⁾ 그래야만 단골이 처한 어려움을 당신으로 하여금 이해를 받고 해결해 달라는 신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의 역사를 잘 아는 매인심방이라야 한다. 과거에는 송당본향당에 대대로 물린심방이 있을 때는 본향당 신앙에는 의심이 없었다. 아버지에서 큰아들로 이어진 심방계승이 본향당 전승이 되었기 때문이다. 고봉선 심방이

138) (A08), 각주, 59, 참조.

139)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역락, 2001, 214쪽.

140) 장주근, 앞의 책, 219쪽.

141) 진성기, 『제주도 무가 본풀이 사전』, 민속원, 1991년 초판, 2002년 재판, 415~416쪽.

142) 문화·역사 마을 만들기 북제주군추진협의회, 『북제주군 송당리 보고서』, 각, 2004, 발굴자료, 202쪽.

143) (A05), 각주 52. (A06), 각주55, (C02), 각주63, 참조.

144) 2장. 갖재차에서 본향신이 들어와서 놀래놀림 과정에서 심방과 동시에 ‘맺힌 간장 풀서.’하고 비는 단골들이 모습을 보면 이해 할 수 있다.

매인심방이던 당시에는 큰아들로서 고대중은 심방 일을 했던 것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고봉선 심방 사후 본향당 매인심방 승계과정에서는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고대중 심방 사후에 매인심방이 가계전승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본향당곳에 대한 문제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전승상에서 큰 변화다. 심방이 바뀌면서 본풀이에 대해 지적하는 단골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매인 심방에 대한 단골의 생각을 살펴본다.

조사자: 계난 퀘네기 한집이엔 해 가지고 여기 덕천은 문곡성 태자.

구술자: 응, 경허난 거시기 제주도 오뎨 다 엮인 걸 데중이네 살아실 뎨 문 딱 엮어 난디. 이제 그자 두르셋 어디 시난.

조사자: 영보민 단골들은 이 심방이 잘 해 할마님한테 풀어 줘사.

구술자: 할마님이 그 본을 잘 해영 하나로 열 깎지 풀어사 할마님이 신나락 만나락 풀어져 사만 흐는디게도 시방 심방은 어느 정도 잘 흐난에 풀어정계 심방도 잘 죽지도 아니허곡 즈손덜도 펜안 흐고 험주게. 응 경험 쇠완 그거 아니 흐거 행 바꾸어 해가민 므올도 펜안이 아니헤 가명 시원 아니허여 할마님이 신나락 만나락 다 본을 잘 풀영 할마님한테 다 해야 즈손덜도 펜안허곡 저 그 심방도 펜안허곡 허는디. 시방 심방은 게도 네 완 해여 가난. 그 때 흐던 중 낮구나 우리 경해나서. 경허난 이번 사름은 아이 죽어서. 그 때 우리 와으네 그 시원 아니허 뎨 현 사름덜은 두게가 죽곡. 시방 그 심방은 오란 흐는게 흐던 중 낮안. 어, 이번은 허던 중 낮안 아멩해도 다르다 흐명헤 나서.¹⁴⁵⁾ (A22)

(풀이: 조사자: 그러니까 퀘네기 한집이라고 하고 여기 덕천은 문곡성태자?

응, 그러니까 저기 제주도를 전부 다 엮어가야 할 것을 대중이 심방이 할 때는 전부 엮어서 일결었는데 지금은 그저 은근슬쩍 모자란 걸 피하듯이 하지. 그걸 전부 어떻게 알아서 할 수 어 못하지.

조사자: 단골들은 심방이 본을 할머님한테 잘 풀어 드려야 하네요?

구술자: 본을 하나에서 빠지지 않고 열까지 풀어야 할머님이 신나락 만나락 해서 뱃힌 간장을 풀어져야 한다. 그래도 지금 심방은 어느 정도 잘하니까 할망이 풀어져서 심방도 죽지 않고 자손들도 편안하고 그러니까 심방을 매게 했어¹⁴⁶⁾ 안 할 것을 바꿔서 하면 마을이 편안 하지 않아 지금 심방은 내가 하는 걸 보니 그 때 하던 심방들 보다 나은 편이라고 했었어 그러니까 지금 심방은 죽지 않았지 예전에 곱을 해서 시원치 않던 심방 들이 죽고. 지금 심방이 와서 하는 곳이 그 중에 낫다고 아무래도 전보다 다르다며 이야기를 했어.)

심방은 백주할망과 소천국하르방 자손들인 송당계 당신들 말미할 때 빠지

145) 김○생, 여, 1936년생, 구좌 송당리, 2010년, 3월 28일, 자택 면담조사.

146) 정태진, 남, 1945년생, 2003년 8월(음력 7월 13일 마불림제) 모심.

지 않게 일컬어야 한다. 심방이 부분을 소홀하거나 모르면 당신에게 공손하지 못하고 곳을 못하게 되면 단골에게 금기를 파괴했다고 평가를 받는다. 그것으로 심방은 당신한테 큰 별을 받게 된다.

지금은 메인심방이 있고 단골들은 본향당신앙이 안전하게 이어진다는 안심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곳 출신은 아니지만 백주할망의 역사를 그런대로 풀고 있어서 심방을 매게 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과 심방 단골들한테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잘 살고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것은 본향당 단골의 소망이기도 하다.

송당본향당신과 관계에 있는 송당계보는 당신본풀이에서 '웃손당 금백주, 셋손당 세명주, 알손당 소로소천국, 아들에게 열으뜸, 딸 에기 스물으뜸, 손지 방상 삼백일흔으뜸'이라는 가족계로 일컫는다. 열여덟 당신이 송당백주할망 아들이라는 역대다. 그것을 심방들이 말미로 당신에게 잘 엮어 올려야 신나락 만나락 잘 풀어져서 마을이 편안하고 자손들도 편안하고 심방도 편안해서 나쁜 일이 생기지 않는 거라는 믿음이다.

이상 살펴본 바로 본향당신앙을 잇는 데에 우선 단골의 신앙물림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본향당곳을 전통에 거슬리지 않게 그대로 행하는 심방 역할이 중요하다. 심방이 당곳을 봉행하는 것만이 신앙의 완성이라고 볼 수만도 없다. 단골들은 본향당 신앙물림을 받아 이어가기 위해서 본향당에 대한 학습과정이 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잘 이어가게 하는 방편이 되고 있고 단골의 본향당에 대한 윤리로 작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향당에 대해 학습되어 알고 있는 지식은 신에 의지하는 삶의 질서를 유지하게 한다. 그리고 어려운 현실에 대한 위안을 얻는 신앙과정에서 본향당 전통성을 알아가는 전승이 있다고 할 수 있다.

IV. 결론

제주도에는 송당마을을 비롯해서 마을마다 본향당신이 수호신으로 좌정해 있고 송당본향당에서는 정기적으로 당굿을 봉제한다. 단골과 심방은 본향당신을 조상으로 여기며 자신과 가족의 안전, 마을의 안녕을 위해 과거 선대로부터 행해오던 전통성을 바탕으로 무속의례를 봉행하고 있다.

본향당이 위치한 곳은 인위적인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고 본래대로 자연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으며 단골들이 정성을 다하여 참여하고 있어서 전통적 가치가 있다. 또한 단골들은 철저한 금기를 지키고 있으며 나이가 많은 만큼 신앙도 단단하다.

본 연구는 이런 신앙을 바탕으로 제주도 송당마을 본향당의 굿과 신앙을 단골을 통해서 살펴보고 당신본풀이가 지닌 신화적 의미를 찾으려고 하였다. 그래서 일 년에 네 차례 있는 송당본향당굿과 단골을 대상으로 관찰하였다. 본향당은 오래된 전통과 의례가 중시되고 있었고 신앙심이 깊은 단골과 메인심방 존재가 본향당신앙을 유지시키고 있었다. 그래서 본향당의 가치를 충분히 대표할 수 있으며, 이미 소멸된 본향당과 기능이 약화되어가는 본향당굿과 신앙전승을 이해하는데 한 좌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신앙민의 의식 속에 살아있는 본향굿을 살피기 위해 충실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단골이 필요했으며, 심방과 면담을 통해 본향당굿과 그 내용을 제차에 따라 분석하고 단골의 신앙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면담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제일, 제물, 당신본풀이, 금기사항, 본향당 전통성에 따른 영험담, 신앙배경 등 그리고 단골과 메인심방 유지에 따른 신앙변화를 구체적으로 보려고 하였다. 단골과 심방이 유기적 관계가 신앙전승에 필요 사항이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본향당굿과 단골을 통해서 얻어진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도 본향당굿의 신앙과 가치는 송당마을 본향당굿과 단골의 신앙을 통해 볼 수 있다. 단골들이 본향당신을 ‘조상’으로 극진하게 성심으로 모시며 신앙을 전승하고 있었고, 본향당굿 참여에는 늘 금기가 개입되어 있었다. 또한 본

향당신앙의 금기에 대한 오랜 규범과 사례를 볼 수 있었다. 본향당 규범은 제일 참여, 제물, 심방, 단골 형성 등 규율을 파기하지 않고 실천하는 것이었다.

둘째, 본향당곳은 본향당신앙의 중심에 있다. 곳은 단골의 신앙공동체를 형성하는 구심점이다. 본향당 전통성은 단골의 학습에 있었고, 구전에 의해 선대로부터 학습되어진 결과는 본향당신앙을 이해하고 이어가는 지식으로 작용되었다. 단골의 전통성은 본향당신을 존경하며 자연스럽게 신화를 읊고 있는 것에서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단골들은 곳의 진행과 절차, 그리고 각 절차의 의미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단골은 곳의 진행과 의미를 이해하며 당신에 대한 감화를 나타내 보이기도 하였다. 그래서 단골들은 본향당에서 일어나는 일을 비판하기도 하며 바로 잡기도 하였다.

셋째, 영험담은 단골들이 본향당신을 이해하는 척도로써 본향당신앙을 지속시키는 요소 중 하나이다. 그것은 단골들이 본향당신앙 물림을 정당화시키는 역할을 하며 신앙전승에 영향을 주고 있는 사례로 볼 수 있다.

넷째, 본향당곳과 단골의 본향당신앙을 유지하는 데에는 곳을 집행하는 심방과의 유기적 관계가 있다. 송당마을의 본향당곳과 단골의 본향당신앙이 과거와 다름없이 유지되는 이유는 당신의 뿌리라는 근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본향당신앙을 유지하려는 단골의 노력과 그들과 유기적 관계를 가진 심방가계가 있었다. 대대로 물린 심방가계가 바로 20여 년 전까지 있었기 때문에 본향당곳과 단골의 본향당신앙은 전통성은 유지될 수 있었다. 그래서 단골은 본향당 전승에 변화가 있게 되면 곳의 내용과 심방에 대한 부단한 관심과 견제를 보였다. 단골들은 신앙공동체를 형성하며 본향당 전통성을 유지하는데 꾸준히 참여하고 있었다. 사회, 역사적 배경 또한 전통 당신앙의 환경을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단골 면담을 통해 한 집안에 독특한 놀이곳이 있다는 것을 발굴했고 그 광대본을 기록한 것 또한 연구 과정에서 나온 성과다.

다섯째, 현재의 단골들에게는 신앙을 대물림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 나아가 든 단골들이 많았지만 며느리와 딸, 등 자손들이 적극적으로 당신앙을 계승하고 있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참여 의지와 유교식 마을포제를 하지 않고 본향당곳으로 마을제를 지내고 있기 때문에 남성들이 참여가 두드러졌다. 그래서 당신앙체계가 단단하다. 그리고 집안에서 대표로 신앙을 지키고 있었으며 단골의

수가 현격하게 줄어드는 것이 아니었다.

송당본향당 단골들은 금기와 금육의 신앙생활을 통해 삶의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단골들이 본향당을 찾아 기원하는 모습에는 전통을 계승하는 자신의 삶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었다.

본향당 단골신앙은 지속되고 있으며 그 근간에는 강한 전통성이 있다. 이러한 것은 송당마을 본향당곳과 단골의 신앙에서만 보이는 양상은 아닐 것이다. 이 연구 결과로써 이미 타 마을에서는 끊긴 본향당곳과 단골신앙의 모습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데에 의의를 가진다.



참고문헌

<고문헌>

- 李元鎮. 『耽羅誌』, 孝宗 4년, 1653.
『濟州啓錄』 備邊司 · 議政府出, (奎章閣圖書), 서귀포시, 서귀포시고서총람역
1권, 1995.
『耽羅誌草本』(春 · 夏) 上, 제주교육박물관, 고창석, 2007.

<자료>

- 강정식·강소전·송정희, 『동북정병준택 시왕맞이』 탐라문화총서 22, 제주대학교탐라
문화연구소, 2008.
구좌읍, 『구좌읍지』, 2000.
국립문화재연구소, 『제주도세시풍속』, 2001.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세시풍속사전』 正月 · 春 · 夏, 2005.
백록어문학회, 『백록어문』 부록, 『송당리학술조사보고서』 1997.
송상조, 『제주말 큰사전』, 한국문화사, 2007.
영주어문학회, 『영주어문』, 1~18집, 제주대학교국어국문학과, ~2009.
제주도, 『제주여성 일상적 삶과 그 자취』, 제주여성사자료총서Ⅲ · 신문기
사자료집,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2002.
제주도, 『구술로 만나는 제주여성의 삶 그리고 역사』, 제주여성사자료총서 V,
제주여성 근 · 현대사 구술자료 I,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2004.
제주도, 『濟州의 民謠』, 김영돈, 1995,
제주도, 『濟州의 民俗』 II (생업기술 · 공예기술), 1994,
제주도, 『巫 · 굿과 음식』, 1995.
제주도 4 · 3연구소, 『이제사 말핌수다』 I · II, 도서출판 한울, 1989.
제주4 · 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 · 3사건자료집』 1~11,
2002~2003.
제주도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한라산총서』 I ~ IX, 2006.
제주도, 『제주도 큰굿자료 1994년 동김녕 문순실대 중당클굿』, 제주전통문화
연구소, 2001.
제주대학교한국학협동과정, 『이용옥심방본풀이』, 탐라문화총서28, 탐라문화연구
소, 2009.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탐라문화』 1호~37호, 2010.
 _____, 『濟州說話集成 1』, 김영돈·현용준·현길연, 2003.
 제주특별자치도, 개정증보 『제주어 사전』, 2009.
 제주특별자치도 국립민속박물관, 『제주인의 민속문화』 I ~ VI, 200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신당조사』 I · II, 2008, 2009, 제주전통문화연구소.
 _____, 『제주큰굿 1986년 신촌리 김윤수 심방집의 신굿』, 제주전통문화연구소, 2010.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2002.
 _____, 『제주무속학사전』, 제주민속문화연구소, 2004.
 문화역사마을만들기 북제주군추진진협의회, 『북제주군 송당리 보고서』, 2004.
 칠머리당굿보존회, 『제주도 무속신화열두본풀이 자료집』, 문무병, 1998.
 한국구비문학대계, 『제주도 제주시,북제주군편』 9-1, 9-2.
 _____, 『제주도 서귀포시, 남제주군편』 9-3, (1~2), 현용준·김영돈, 1983.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단행본>

고광민, 『제주도의 생산기술과 민속』 대원사, 2004.
 국립문화재연구소, 『巫·굿과 음식』, 강소진, 2008.
 김종업, 『연대와열광 : 에밀뒤르캬의 현대성 비판연구』, 창작과비평사, 1998.
 김영돈, 『제주인의 삶과 문화』, 제주문화, 1993.
 _____, 『한국의 해녀』, 민속원, 1999.
 김정숙, 『자청비·가문장아기·백주도』, 각, 2002.
 김현선·현용준·강정식, 『제주도조상신본풀이연구』, 보고서, 2006.
 나경수, 『한국의 신화연구』, 교문사, 1993.
 문무병, 『제주도 본향당 신앙과 본풀이』, 민속원, 2009.
 박찬식, 『4 · 3과 제주역사』, 각, 2008.
 서대석 『한국의 신화』, 한국의 신화, 집문당, 2002.
 양영자, 『제주민요의 배경론적연구』, 탐라학술총서 6집,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2007.
 오창명, 『제주도 오름과 마을이름』, 제주대학교출판부, 1998.
 _____, 『제주도 마을이름의 종합적 연구』 I, 제주대학교출판부, 2007.
 유철인·정병호·한경구·김은실·김현미·홍석준, 『낮선곳에서 나를 만나다』 일조각, 2009.

- 윤택림·함한희, 『새로운 역사쓰기를 위한 구술사 방법론』, 아르케, 2006.
- 이두현, 장주근 외, 『한국민속학개설』, 학연사, 1989.
- 이종욱, 『한국사의 1막 1장 건국신화』, 휴머니스트, 2004.
- Ulan-Ude. 『Geser;Buryat-mng.arad.geroicb.epos』, 1941, 일리아N·마다손 채록, 양민중역, 『바이칼의 게세르 신화』, 솔, 2008.
- 장주근, 『한국신화의 민속학적 연구』, 집문당, 1995.
- _____,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도서출판 역락, 2001.
- 제민일보4 · 3특별취재반 『4 · 3은 말한다』 4, 전예원, 1997.
- 조동일,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 지성사, 1997.
- _____, 『하나이면서 여럿인 동아시아 문학』, 지식산업사, 1999.
- 조성운·하순애 · 이상철, 『제주도 민간신앙의 구조와 변용』, 백산서당, 2003.
- 주강현, 『우리문화의 수수께끼』, 한겨레신문사, 1997.
- _____, 『한국민속학연구방법론의 비판』, 민속원, 1999.
- 진성기, 『남국의 무속』, 형설출판사, 1987.
- 하순애, 『제주도 신당神堂 이야기』, 제주대학교출판부, 2008.
- 한국구비문학회, 『口碑文學 概說』, 일조각, 1982.
- 한국문화인류학회, 『처음만나는 문화인류학』, 일조각, 2009.
- 허남춘, 『황조가에서 청산별곡 너머』, 보고사, 2010.
- 현용준,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집문당, 2005.
- _____, 『제주도 무속 연구』, 집문당, 1986.
- _____,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
- _____,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 집문당, 2002.
- _____, 『제주도 사람들의 삶』, 민속원, 2009.
- 현용준·이남덕·김수남, 『제주도 신궐』 한국의궐12, 열화당, 1989.
- 玄旨金榮墩博士華甲紀念論文集刊行委員會編, 『濟州 文化 研究』, 제주문화, 1993.
- Emile. Durkheim, 『The Elementary Forms of the Religious Life』, Sarah A. Solovay · John Mueller The Rules of Sociological Method (New York : The Press, 1966) 1912, (노치준·민혜숙역, 『종교생활의 원초적 형태』, 사회학연구 10, 민영사, 1991. 『The Rules of Sociological Method』, 1895, (윤병철·박창호옮김, 『사회학적 방법의 규칙들』 새물결, 2000.)
- Lévi-Strauss, Claude,(1964) Mytho logiques I, Le cru et l'écru, (『신화학 I, 날 것과 익힌 것』, 『신화학II, 꿀에서 재까지』,) 임봉길 역, 한길사, 2005.

<논문>

- 강정식, 「제주도 당신본풀이의 전승과 변이 연구」, 한국학대학원박사논문, 2002.
- _____, 「송당분향당본풀이의 전승양상」, 구비문학 학술세미나 발표자료집, 2004.
- _____, 「제주도 당굿과 경제」, 『비교문학』 27, 2004.
- _____, 「당굿의 세시의례적 성격」, 『한국무속학』 14집, 한국무속학회, 2007.
- 강소진, 「제주도 잠수굿 연구」, 제주대학교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석사논문, 2005.
- 강만익, 「朝鮮時代 濟州島 官設牧場의 景觀研究」, 제주대학교석사논문, 2001.
- 고광민, 「濟州島 처녀당본 풀이 研究」, 제주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2.
- _____, 「당본풀이에 나타난 갈등과 대립」, 『탐라문화』 2집,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3.
- 권태효, 「건국신화와 당신신화의 상관성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 _____, 「제주도 무속서사시 생성원천에 대한 새로운 고찰- <세경본풀이>에 미친 <송당계 본풀이>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31집, 민속학회, 1999.
- 김성례, 「한국 무속에 나타난 여성체험 : 구술 생애사의 서사분석」, 『한국여성학』 7집, 1991.
- 김진하, 「송당 신화의 기원에 대한 고찰」 『탐라문화』 29,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6.
- _____, 「송당 신화의 분화와 새로운 영웅 문곡성의 탄생」 『탐라문화』 30,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2007.
- 김정숙, 「제주도 신화속의 여성 원형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0.
- 김태곤, 「한국민속학의 원론적 기저」 『한국민속문화의 탐구』, 국립민속박물관, 1996.
- 김현선, 「제주도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돛제와 퀘네깃당본풀이 연구」, 『탐라문화』 31호, 2007.
- _____, 「제주도 굿의 구조와 원리」, 『한국무속학』 제14집, 한국무속학회, 2006.
- _____, 「일월조정 신화소의 전승과 변이」 『한국의 창세신화』, 길벗, 1994.
- 문무병, 「제주도 굿의 연극성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4.

- _____, 「마을의 설촌과 당본풀이」, 『백록어문』 7집, 1990.
- _____, 「제주도 당신앙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 변성구, 「제주도 서우젯소리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6.
- 서대석, 「동북아시아 영웅서사문학의 대비연구」, 『한반도와 중국 동북 3성의 역사 문화』,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 유철인, 「물질하는 것도 머리싸움:제주해녀의 생애이야기」, 『한국문화인류학』 31, 한국문화인류학회, 1998.
- 윤순희, 「제주도 와산리 멩감제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석사논문, 2010.
- 이기욱, 「濟州道 農民經濟의 變化에 관한 研究」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논문, 1995.
- 장주근, 「제주도 당신신화의 구조와 의미」, 『제주도 연구』 3집, 1986.
- 정루시아, 「제주도 당신앙 연구:구좌읍 김녕리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9.
- 정진희, 「제주도 당본풀이의 유형과 변천 양상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논문, 1999.
- 정희중, 「제주도 농촌사회 상례문화의 특징과 변화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석사논문, 2008.
- 조동일, 「영웅의 일생, 그 문학사적 전개」, 『동아문화』 제10집, 서울대학교 동아문제연구소, 1970.
- 조성운, 「19세기 제주도의 국가의례」, 『탐라문화』 16호,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1996.
- 조성운·박찬식, 「조선후기 제주지역의 지배체제와 주민의 신앙」, 『탐라문19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8.
- 주강현, 「무형문화재로서의 구비문학」 『민속학연구』 6호, 1999.
- _____, 「역사와 민속, 변혁의 문제-역사과학으로서의 민속학 일고(一考)」 『한국민속문화의 탐구』, 국립민속박물관, 1996.
- 한진오, 「제주도 입춘국의 연행원리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석사논문, 2007.
- 허남춘, 「삼성신화의 신화학적 고찰」, 『탐라문화』 14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4.
- _____, 「제주 서사무가와 한국 신화의 관련성 고찰」, 『탐라문화』 21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0.
- _____, 「제주문화연구의 성과와 과제」, 『탐라문화』 31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7.
- _____, 「제주 서사무가에 담긴 과학과 철학적 사유 일고찰」, 『국어국문학』

148호, 국어국문학회, 2008.

_____, 「韓日古代神話의 山岳崇拜와 山神信仰」, 『日本近代學研究』, 第23輯, 韓國日本近代學會, 2009.

현용준, 「제주도 무신의 형성」 『탐라문화』 창간호, 탐라문화 연구소, 1982.

_____, 「제주도민의 신앙체계와 무속」 『제주도연구』 16집, 제주학회, 1999.

황루시, 「민속학에서 민(民)의 실체-마을굿 전승집단을 중심으로」 『한국민속 문화의 탐구』 국립민속박물관, 1996.



<구술자 일람과 상황>

구술자	성별	출생년도	거주지	면담일자	면담 장소
김○생	남	1936	구좌 송당리	2010년 3월 28일	자택
강○순	여	1934	서귀 천지동	2010년 3월 20일	자택
김○호	남	1932	서귀 천지동	2010년 3월 20일	자택

구술자 김○생씨 면담현장 상황은 송당본향당 곳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다고 하고 목적을 밝혔다. 당에 가는 단골입장에서 평소대로 이야기 해 달라고 하였고, 그리고 동영상 카메라를 설치하며 녹음을 하겠다고 하자, 흔쾌히 승낙을 하였다. 구술순서는 당본풀이를 시작으로 하여 당의 요소로 이어졌다. 조사자의 질문은 별로 없고 구술자가 구술할 때 호응 정도만 하였다. 면담은 오전 8시 40분 시작하여 12시까지 하였다. 구술자의 발음은 앞 치아가 윗니 하나, 아랫니 두 개 정도만 있어서 처음에 듣기가 어려웠으나 차츰 적응되어 들을 수 있었다.

구술자 김○호씨와 구술자 강○순씨 상황도 마찬가지다. 구술자 김○호씨는 십년 전에 발병한 뇌경색으로 말하는 것은 조금 느리나 판단에는 무리가 없는 상태다. 단어선택이 어려우면 구술자 강○순씨가 옆에서 알아차리고 알려준다. 구술자 김○호씨의 부친이 웃송당에 거주 할 당시는 상단골로서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한다. 이야기에서 자신의 부친이 하던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본향당에 대한 사실이 그대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한다.

<녹취원문 자료 Ⅱ, Ⅲ>

<녹취원문 Ⅱ-1>

구술자 : 그건 네 잘 알주. 옛날에 그 성불암 오름이 그 우이서 지금도 물이 난다 게. 물이 난 그 성불암 절을 배우젠 시님이 그 중궁또엔 혼건 저 성불암 중두근두, 중두근드엔 혼거 시어. 중이 그 디서 죽어서 켈 배우젠 오다. 그디 오민 왁왁 성불암 절 못 배우게 허연 성불암 그저 신 그디 오랑으네 허민 천지가 왁왁 허연 성불암을 좇질 못 허여 성불암이 물 나고 허난 절을 배우민 좋긴 허는디 못 하게 웨여. 오름

신이 중도군도만 오민 경헨 중도군도 그 디서 왁왁허연 그 디서 헤메단 모두 죽어 부러주. 안게가 왁왁허연. 경헨 중도군도, 중도군도 성불암은 성불암 오름이 이제 올라 강 웨망 그 디 강 굽어 불민 데풍 불영 살지 못 허여. 경헨국 옛날에 비가 아니와 가민 성불암 우럭허나 굽곡 메 혼기 행 강. 우리 아버지 살아실 때 옛날 우리 어린 때 보민 강 비 안와 가민 줌줍헨 강 메강 꺾서 헨곡 그디 골갱이로 북작북작 굽으민 물이 졸졸 나메. 굽어뵤오민 그날 즈낙 비가 찰찰 와 경허주. 꼭 신이 잇은 오름이라. 경헨디 우리 스슴 사건 때 올라간 때, 막 장마가 지언 보리도 아니뵤언. 성불암 코쟁이 뜻그망 담은 코쟁이 속에 굴이 시난 폭도들이 그디 살안 헤부난 그디서. 그 오름 신으로 경 비가 오게헨. 막 멘날 경 장마지영 헨단 그 폭도 다올려분 후젠 날이 좋안 농술 헤 먹영 살았어.

<녹취원문 II-2>

구술자 : 멩그는 것덜 아이고 돈은 우리 막 희스 헛주. 희스헨 돈으로 헛 주. 그게 돈 어디 하늘로 떨어정 해서. 희스 몇번 좇아 온 할망 크게 허기전이 도당집 알 작이만 흘 때도, 네 그자 할망 무신거 허난 책임 저난. 이 웃손당(?알손당) 셋손당은 밧으레 안 갖주만은 네 뵤뵤 돌안 돈넨 사름은 삶이 췌안 허곡. 돈 안넨 사름은 허나 시원 안 해서. 돈 그거 다른 교 민언 타불교 믿는디도 반 네명. 어른은 타불교 믿는디도 난 그저 반만 네키어. 오천원 네는거 이천 오백원이라도 넨 사름 그런데로 살당은 죽곡. 경아니헨 사름은 돈 뵤죽허명 아이 넨 사름은 보난 시원 안해서. 할마님 초담메완 할마님 도당집 짓엇단 네중에 이제 큰 집 짓을 췌, 또 돈들을 막 메완. 셋손당에서 거시기헨 어른덜, 막 총무여, 막 메완 허난 그 돈을 다 네엇주덜. 우리가 열사흘 간 그때 돈 만원이여, 이 만원이여 메와 난, 그게 헛주 그게 누게가 돈을 네어 놀 사름이 시니, 그게 메와난 헛주. 그 답 들르는 거 다 모다 들어 간 몇 사름이 모다 경운기 데절 헹으네 싣거당. 저디간 담 높으게 허곡. 그 집 헨디 돈 돈 메왕 헨거.

<녹취원문 II-3>

구술자 : 역스 네가 하르방이 그른 말이 나가 잇언 들으난 그르는 거주. 고데중이 죽어부난 데중이 각시가 남즈심방 데령 완. 다른 심방 돌아 앓으네 남즈 심방을 멘드난. 할망헌티 거시기 헤사헌다게 경헨는 것도 불가헨고. 마을에서 이장이연 그 못된 것들이 이장집이 불령. 데중이 각시영 불러다 난에. 이젠 서방 죽어부난에 이당

을 그만두렌 경혜네. 굿이 굴언에 당을 그만 두게 해뵈에, 박인주 그거 해단에 그디
놔서. 그디 멘 흐난 거 일 년 흐난 그만 죽어부러주. 갓썬 것닥것닥 허멍 박인주 거
시기 허난에 저 갓 썬 할망한티 거들먹 거런. 할마님 한틴 송낙헨 노릇하게 행. 할
마님 할마님 다 괜안하게 해줍센 <말소리를 작고 간절하게 한다.> 할마님 역슬허멍
비는 건디. 영헨 이거 할마님 흐티 이게 죽언. 그뻬 문심방인가 어뎡 현걸 또 헤다
난. 그것도 죽어 부러주. 경허난 어디 또 고가엔 현 사람 이제 헤다 난 이번 사름은
잘 해신ㄴ라 이번 사름은 죽질 안 험서. 갓썬 것닥것닥 역스를 못 허는게

조사자 : 역사를 못 험디가 어뎡연 못 험디가

거꾸로 ㄴ다 두르셋 거꾸로 ㄴ다헨 다 푸는 것도 나이거 문 저 푸는 말 거꾸로
ㄴ다 ㄴ라지는 말 그자 튼네는 데로 영헨.

조사자 : 아, 본을.

응 본을 풀지 못헨 경흐난 지금 심방도 하나로 열 ㄴ지 구썩하게 본은 못 풀어.
난 데중이 각시나 데중이 어뎡 살아실떼나 데중이나. 하이고 본을 츠레로. 저 앓으민
귀가 즈능허여 막 듣고쟁허여 막 소리도 좋고 츠레로 그냥 하나로 열 ㄴ지

조사자 : 무썩설각헨는것도 요왕말젓똥 허는 것도.

구술자 : 흐만이라게.

조사자 : 부술도 연곡 콩각지헨 것도 오라그네 어머니 한티.

구술자 : 어머니 한티 허난에 나 예기 죽으렘헨 텃겨분 예기 어뎡 상중 허렌 ㄴ
부니똥에 든단 이 세상 속곡 현 것도 ㄴ부니똥 좌정 허여언, 이건 ㄴ부니똥 죽으리
엔 든단 이 세상을 떠났주. 무신 알지도 못 허멍.

조사자 : 경허곡 몇째 아들.

구술자 : 경흐난 죽은 아덜 오란 큰 아덜은 어디 짐녕 어느 당. 어디 서화 어느
당. 어느 아덜 저 제주도 저디 와산은 어느 아덜. 허난 제주도 뽕허게 아들 덜이 문
당을 메엇주. 어느 아덜은 어느당. 멘작 ㄴ는다 ㄴ라 질거 무시거라. 그디서도 다 열
사홀날. 어디서 열사홀날 허민 서화린 열이틀날. 그거 날이 다 잇주. 심방 그 데중
이 아방 실떼나 데중이 실떼 다 ㄴ라. 문 곱아.

<녹취원문 II-4>

구술자 : 계난 할마님이 그 본을 잘 행 하나로 열게 ㄴ지 풀어서 할마님이 신나락
만나락 풀어져사만 허는디 지금 심방은 어느정도 잘 허난 에 풀어정게 심방도 잘 죽
지 아니허곡 즈손덜도 괜안 허고 험주게. 응 경헨 씨완 그거 아니헨거 행 바꾸어 헤

가민 밑도 펜안이 아니허곡. 시원 아니허여 할마님이 신나락 만나락 다 본을 잘 풀어가사 할마님한테 다 해야 즈손덜도 펜안허곡 저 그 심방도 펜안허곡 허는디 시방 심방은 게도 네완 헤여 가난 그 때 허던 중 낮구나. 우리 경혜나서. 경허난 이번 사름은 아이 죽어서. 그때 우리 와으네 그 시원 아니허텐 현 사름은 그 때 죽곡. 시방 그 심방은 오란 흐는게 흐던 중 낮안. 어 이번은 허던 중 낮안구나 헛주.

조사자 : 나는 어릴적에 박심방헐때 처음 봤다으네 못 봐수다게 경허연 이번에 헐때 으자기 보니까 할마님 들어오지 안헐니까 그 왕 제관덜 다 절시키곡 예 만민 즈손덜 다 절시키곡 할마님 장구치면서 영 앓앙 치마 영돌런에 메여네 오늘 오늘 오늘 이여 현거가 그게 할마님 본을 푸는 것과 아니면 그전에 사으네 막허는게 본푸는 것과.

구술자 : 응 그거 본풀어네 할마님 놀리는 거주게 이거 영헐 <옆으로 띠를 메는 시늬를 보인다> 그전에 막풀어 놓으민 그거 할마님 놀림으로 치메도 돌아메어 풀지 거리도 두러메어 경혜영 <어깨를 덩실거리며 환하게 웃으며>

조사자 : 예 장구치명예 서우젯허명 춤추명.

구술자 : 응 경허민 그계 할마님 신나락 만나락 헐 이제 늬센경 경허는거 이젠 그냥 사름덜도 춤추곡 할마님 아피서 춤추곡 게난 할마님이 풀어져사 신나락 만나락 헤사 우리 즈손덜도 펜안허곡 심방도 펜안허곡 밑이 다 펜안 허주 할마님이 풀어 지지 아니허민 심방도 뒤어져 가명 밑도 펜안 아이 헤. 할마님 영이 어떻게 잇인 할마님이 조금헐 췌주지도 아니허곡 췌주민 살리는 법이 었어. 그거 꼭 죽어.

조사자 : 그거가 할마님 놀리젠 헛구나에 옛날에도 심방들이 할마님 놀리젠 막 저기 하영 헤나수가 그 놀리는거 당긱헐때.

구술자 : 심방이 당긱 그냥 헐때 구신이 붙은 것 그치 발창이 하늘 웃더레 올르명 놀아멩겨서 이젠 신 안서. 할마님 신탕 하늘 만 썩 놀곡 동네 굿은 일 날 거 할마님 신디 멘딱 어떻허민 어느 들 어떻허곡 몇 가호 성은 어떻헌 딜로 옛날엔 할마님 영탄 문딱 그랏주 거 이제는 풀풀 놀앗주 굿헐 막 경혜시네. 이제것덜 경 할망 신탕게 얼마나 잘 헤지느냐. 옛날 그 심방 님은 사름덜 어디 시어. 었어 데중이 아방 살앗실 때. 그 때 부터 저 데중이 아방이 막 잘 헛주. 데중인 올라오는 아이덜 데학현 잘 되 보젠 굿안 굿 헤부난 죽엇주. 흐끔 더 살건디 굿안 앓안 영영 허명 늬덜 아멩이나 고봉선이 손진덜 몰르카 부텐. 경 굿안 앓앙 텔레비전 나오카부텐 영 <고개를 깊이 숙이는 모습을 보이며> 헤 간계 몇년 아니 헐 죽어라게. 췌 받안 이녀석 심방아덜이 거 헐실머리헐젠. 그 할머님이 경헐 췌 쥐부난 죽엇주 경허난 절테 할마님 우젠 허

민 할마님이 신나락 만나락 험 옛날엔 막 허던 녀석이 아덜 데학시키고 막그냥 높은 사름 멩글젠. 막 그냥 아덜 어느사름이라. 큰 아덜도 높은 사름 멩글젠 현디 큰 아덜도 모든 이력이 아니 돼어 부난. 누게 말이 심방질 헤염젠 말이셔. 거 사름은 좋다. 아덜덜이 서너땃게 일류로 나난. 양반 멘들젠 허난. 요즘 양반 상늬 굴리는 세상이라. 경곱양 험게 무시거라. 영험 앓안. <고개를 푹 숙이자 소리가 작아진다> 영허명 혼 삼년 허난 확 죽어 부러라.

조사자 : 그 전에는 막 허단.

구술자 : 막허연 하늘만씩 땅 만씩 들러경. 우리 어머니 아이고 오늘은 심방이 신탄 막 하늘 웃터레 누람직이 풀풀 놀아라. 영허명 경허던 사름이 아기덜 큰사름 만들젠 허난 경허난 돼서. 이제 심방아덜이엔 허민 경시.보카부텐 심방아덜이엔 헤도 아무텅도 안헤여. 요젠 상늬 양반 굴리지 안헤여. 경 허는 걸 데중이도 체기 죽곡 허여라. 경헤라 데중이도 죽젠 허난 실성으로 뭐 달랑달랑 굶허명. 옛날 그찌 덜락 덜락 취시민 이제 깰지도 살아실 거주. 죽을 허니 아이웁 죽어시네.

<녹취원문 Ⅱ-5>

구술자 : 본향당에 일 년에 두 번만 가는 걸로 죽은 아버지한테서 들어신디 그렇지 않더란다. 그때부터는 정월에 못 허민 이월에 가곡. 이월에 또 강 여름에 거머시기 허텐 허민. 또 정성험 칠월에도 가는거.

조사자 : 그 때는 누게 고데중심방 이실때 마씨.

구술자 : 그 때 그디주. 그 그르후엔 박심방이엔 혼 이. 그디오란 험 허다네 것도 젊은 사름인디 멩헤 아니험 갑자기 경 죽엇텐. 젊은 사름 거 헤신디 그사름 죽어부난 이제 그 문심방이엔 헤냐 그 각시 훌어명으로 오레 텅기단 사름. 그 사름 서방도 죽고. 그라준 사름이 엇이난 그자 훌연 두게, 젊은 사름 둘 죽은건 확실하고. 세사름 죽엇젠 말도 난 들어진 거 담야. 하여튼 둘은 확실허여. 게난 그 훌어명이 게나저나 사름만 네세워 줘세엔. 기자 문치 가민 기자 그 말헌, 풀려 앓안 절 헤동 기자 문 치 그라 경허단 허단. 훌어명 그 심방이 경허난 이제 저 할나문화제에서 거 베치헤연 지네 오켄헤도 못 오는디엔렌 그딘 이제라도 그만뵈 단 사름 교체 허렌 허민. 경험 게 웅거렌. 이제 심방이.

조사자 : 송당당은 예. 게난 지금 멘 심방은 일체 모르는 심방 아니우과 예.

구술자 : 옛날에 몰랏주. 게난 그사름네 어딴 사람들인줄도 몰라. 그 박심방이엔 혼 사름은 함덕사름이엔 헤서. 그사람도 젊은 사름인디 여순도 흠치 안낫주게. 신흔

몇술이엔 허멍 응 그다음 건 문심방. 그 사름 보단도 젊은 사름. 막 신체도 좋고. 키도 좋고 행. 말 듣는 소리도 막 그 드나린 다 올리게 경그라라 마는 무신 아픍산디 갑자기 삼일인가 아판 죽음인가 어땡험인가. 게난 그 각시가 막 오레 헛주게. 전번헌난 이제도 있어 혹시나행 오게 웨민 가와 드리쿠다. 다른 사람들은 거이 경혜서라. 급허난에게 메들 열사홀은 할망 날이난 급허민 정성헨 온덴 허멍.

<녹취원문 II-6>

구술자 : 제물은 이디 송당 당엔 옛날 부터 바꾸지 아니헿 백돌레나 백시리 떡이주. 어디 술 헤 가지 안헿 옛날 감주, 계란감주, 백돌레 백시루 저 계란호고 경혜신디 깨끗하게 행 뭍은 제수는 생선으로 옥돔나헤. 경혜시네 할머님한테 인정으로 돈을 대령호고, 할마님 신디로 므음이신 사름은 풀찌거리 두마헿 가정오고, 또 옷옷헿 혼불 가정오곡, 으세 멧 사름정도나 늬이 헿는걸 뵈봐서 옷헿 가져가는 거라. 어디 일본 끝은디 갓당 온 사름이나 옷헿오고 헿주.

조사자 : 신과세에 당에 갈 때 제물은.

구술자 : 미리 헤영 쓸 혼 웨 헤영 백 돌레 헤아지고 행강. 그저 불 붓정 절헿 할마님 그자 율허랑 만스를 이루게 헤 줍서. 속으로만 세멍 절 헤. 그 심방한테 산 밧곡 경헿 왕. 그거 기 주게.

조사자 : 할마님한테 갈 뻤 심방한테 산 받젠 행 가는 거주만 출령 가는게 정성으로 구나 예.

구술자 : 응. 심방한테 산 받는 게 아니란 이. 이녀이 정성을 드령. 잘 출령 가사 부정 말앙. 일웨 정성 행 부정 헿거 웨지고기니 뉘니 부정헿거 먹지 말앙 그만이 난 이제 그만이 누웁 어디 손도 다치지 말고.<자신의 반창고로 감은 손가락을 내보이며> 난 이거 뉘 벌러정 영 헿세. 손도 다치지 말 곡 그만이 일주일 동안 집이서 그만이 놀아 낱. 할마님 쓸 강 물 적정 낱당. 그걸 아시날 물에 컷당 푼아 가민 푼으민 헤변 강 곶아당 어두거 가민 뉘들영 뉘둔다. 난 뉘들영 낱당 뉘 아칙 이민 메 헤영 으네. 이 구신은 김을 말으는 거라. 그 석섯헿걸 허는게 아니라.

<녹취원문 II-7>

구술자 : 옛날 친정어머니가 하던 제물 준비는, 아마 살아시민 20년 전이 92살로 돌아 가시난 지금헿민 112살 되실거라. 이제 쓸이 혼전 헿난 옛날엔 쓸이 귀헤엿주게 쓸이 귀 헿난. 밥 헿 사발 헿곡 그 도쉽쓸 그걸 가짓쟁이, 밥사발 두경에 그것에

조금 그저 좁아질 정도로만. 경만 행 갖젠 흐는 걸 어떻 흐느니 경 흘 수 밖에 잇는 걸 잇딩 흐느니. 경 못살아난 돈도 어렵고. 거 쓸도 어렵고 계난.

조사자 : 계난 우리 생각엔 옛날엔 당에 가는거가 돈이 하영 들어부니까안 부담돼 네에 해나신가 해가지고.

구술자 : 부담돼 주 서숙밥행 가지 못 흐난.

조사자 : 서숙밥은 어떤거마썸게

구술자 : 서숙밥은게 보리밥이나 조 거시기 흘 떼난 좇밥이나 그거 흐곡 제숫흐곡 또.

조사자 : 감주흐고, 술흐고.

구술자 : 주로 술 거시기 헛주게 그거 가늠이 좀 잇어어. 가늠이.

조사자 : 건디 할망한티 가명 술은 무사 행가신고.

구술자 : 저 술도 아니고 저 무시거 막걸릴 행가사 텔 거라게. 청주. 그 오메기술 헤 낫단. 그것이 제준디. 다 이젠 거시기 좋게시리 술을 산 가는거주. 청준 그거 술 이 아니고 감주 돼는 거주게. 그걸로 행 막걸 리가 감주랏덴. 저 제주랏덴 옛날에 막 걸린 웬만 흐민 조금 거시기 헤도 쓰젠 흐민 헤 낫당 거 딸뿡 쓰주게 계난 우리어명 거시기흐는거 보민 웨 할망네 제스떼나 꿈 누르뽕으네 조금행 그 딸뿡 앓정이 알려 레 흐끔행 반사발 썸이면 됐주. 자꾸 그걸 행. 계난 돈들 거엔 흐 건. 초가 돈들어. 초 못 사민 그자 춤지름 헤여그네 그걸 써. 제숙이나 무시거 그 메졸은 그 산디흐고 흐난에 제숙만 해당 곡숙항에 묻으민 돼시난 이제사 어디 경 험시냐.

<녹취원문 II-8>

구술자 : 저기 손당 데천동 할망이 흐 번 간 떼. 거시기 흐난 떡을 이거 먹어보라 떡을 하영 헤와 선게 마는 메뉴리덜 저 어디 각시 시에 강 돌레떡 행 오랜 흐난. 경 헤와선게 마는 아 소금을 낫 헤오지 안 헤시냐. 계난 믰음이 벵이랑 건디 부디 그 따문에 거냐마는 그 후에 할망 경 아파서. 그 메뉴리 헤올 떼 ㄱ지도 할망 아니 아 팟주게. 경흐글랑 그거 앓아 뿡 경 판거라도 헤그네 흐지 아녕 그 떡을 그냥 당에 앓어 강 썸주게 몇게 아니라도게.

조사자 : 계난 흰 떡만 쓸떡만 허다가 허기도 흐느디 믰물 떡을 막 하영 흐지 안 험닛가.

구술자 : 믰물 떡을 흐게 된 거렌. 원래 거 믰물 갈안 거 흐 거난

조사자 : 백미술이엔.

구술자 : 백미썰이나 그 믰물떡이나 다 그 곱은 거난. 믰물도게 썰도게 믰물묵
곡 썰도 흐민게 그거 젓떡도 흐는거. 경 몯은 거엔 거주 그거 흘떼 잘도 멍심혜사웨
에. 얼마 안헨 것이

조사자 : 경흐난 무사 영흐엿젠 험디가.

구술자 : 아니 돌래떡 혜주렌 혜웨네. 어딘가 간 오란 혜 놔시난 앓언 오란. 웃더
레 앓아 뒤네 아랫건 아메도 두어텃 치는 혜 온 모양이라. 아메도 흐 되만 맞추기도
뽀 허곡. 아니 세상 소곰냥 혜오라네. 야 소곰냥도 돌래떡 흐느냐. 흐난 모르쿠다.
겐 주난 나도 먹어보난에 또 쩌게 헛주. 어이구, 글축 혜젓글랑에 암만 미시거 혜도
말양 또 뚝 갖당 강 혜오던가. 잘 못흐민 세로 흘수 잇주만은 잘 못 흐걸 그거 쓰지
는 말아사 주게. 데단 잘 못이라 거. 그 추룩헌 정성은 뽀. 췌 받을 짓 헛젠. 곱을
혜도 소곰 아니 는 떡 흐는다. 경혜그네.

<녹취원문, II-9> <매인심방본풀이전문>

즈손에 소천국 메를 받음웨다. 옛날 소천국하르방 할로영산 외동전 외작주에서 솟
아나백즈 할마님전 원정드리 읍기는 백즈할마님네 살아온 역손 옛날소천국 하르바님
이 할로영산 기습이 웨동즈 이작주에선 탄생흐여습네다. 글도 활도 못 흐난 스농이
나 흐명 사는게 가족모즈 가족 웃 거느리고 여허, 밀남드리체를 거느리고오 너눈이
반동게 거느리어 스농 흐레 당기는게 할로영산으로오 어시성 단골머리로 큰지거리
죽은지 거리로 이제는 선흘곳으로 비즈당곳으로 데춘이 오름으로 땡기고오 흐 믰음
곳으로 이제 스농흐레 땡기곡 노리 스습 마쳐다 그날그날 생활 흐는다 흐를 날은 강
남천즈국 허정승 따님에기가 부모 우이 흘리나고 싯찌 낫구나. 어서나고 가라 일러
나는구나 어디 명령이라. 거역흘 수 엿어지고 딸아기이 성창머리 오란 동서남북을
투망을 흐 다야. 제주도 손당가며 흐는 말이 소천국 하르방이 나와 기년이 될 수다.
영흐여 그제는 성창머리에서 베를 빌려타고 제주절또 어서 오누나 이젠 아끈드랑 큰
드랑으로 이제야 비즈 당곳으로 영흐연 이젠 웃손당으로 셋손당 알손당으로 땡겨 보
야도 소천국하르바님 못 보난 어떻흐민 좋으리요. 영흐여 할로영산으로 흐여 웃드리
알드리 훗아보고 없어진다. 선흘 곳으로 흐 믰음 곳으로 춤오름으로 데춘이 오름으
로 비즈당곳으로 땡겨도 못 촛지난 이제는 알드리 알벵뒤에 건당흐난 소천국 하르방
만나 그제는 소천국흐는 말이로구나 어디서 온 여청이 웨겟느냐. 나는 강남천즈국
허정승 따님 예기 부모 눈에 흘리나곡 싯지나곡 영흐여 이제는 제주도 오면 나의 천
상흐연 흐젠 소천국하르님이 웨여지난 훗양 오라 수다. 영흐난 네가 소천국이로다.

일어나 가는구나. 그제는 소천국 하르바님은 흘목을 비여 잡양 어덜로 가리오. 이거
브름웃도 웃손당 당오름 오란. 엄막지언 그 때 시절은 초가 삼간 집도 어려운 때이
난 이제야 부베간을 무어놓고.

소천국 하르바님 스농흐레 땡기명 노루 사슴 마쳐다. 그날그날 생활을 흐는게 그
젠은 아이고 살아오는 것이 아기 유테를 가지난 아들 생불 탄생흐다. 이제 다시 아
기 나는게 아들 총총 다섯성제 탄생흐는 구나. 이제는 노루 사슴 마쳐 그날그날 아
기들 뻘이며 사는게 아기덜은 비비장 흐곡 베고프난 아이고 설운 낭군님아 농스가
데군 일이 올리난 농스나 지영 이 에기덜 구명도식 흐게 흠이 어찌 흐오리까. 말을
흐난 어서 걸랑 기영 흐라. 어디가면 농스 질디가 잇겟느냐. 일러나 가는구나. 오봉
이 굴왓 강 바러보민 이제는 웨지긴뱃 들진뱃 뱃이 잇엇구나. 그때는 소천국하르바
님 어덜 가리오[<심방:목소리가 간절해진다>]흐 므음긋 간 바러보난 실구도긋나무
잇엇구나. 그 남을 비어놓고 농잠테를 설연흐다. 동더레 바러보난 검은 암쇄가 잇어
지난 그젠 시절 웨 임제가 엇어 지난 그웨 잇거다가 오봉이 굴왓 간 농잠테 매완 이
젠 동경 가림테 세경 부림테 거느리어 이제는 밧을 갈아가는 구나. 그때야 백즈할마
님은 아이고 설운 낭군 밧 가느디 점심밥이니 행가주기. 밥을 헤영 동그랑헤 존뜩
헤연 간 밥이나 먹영 밧이나 갑서어. 일러나 가는구나 아이고, 나 이제 밥 아니 먹을
로구나 저 잣우이 강 이제 놔두곡 우장 썩와두곡 쉼질메 뒤어 두영 아기덜 거느령
저 다오름 더레 드올라 가라. 일러나가는 구나.

남편 곧는 말이라 아니들을 수가 엇어지언 그제는 와부난 밧을 가는데 중이 데스
가 넘어가명 밧가는 선관님아 아이고 우리가 데스중이 웹네다. 먼길을 행노 흐는데
시장흐고 베고프고 영흐난 먹단 밥이라도 싯건 흐끔 줍서 말을 흐난. 저, 잣 우이 강
보민 밥이 잇노렌 말을 곁으난 쉼질메 가달 앓아웬 우장 걷언 바러 보니 밥이 잇엇
구나. 베구픈짐에 그밥을 문딱 먹어 앓언 가 불엿 구나아.

소천국 하르바님은 밧을 갈담 베 고프난 밥이나 먹영 밧을 갈저 영흐연 이제는 잣
우에 간 쉼질메 가달 앓아 놓고 우장 앓아두언 바러보니 동그랑창 올양 보난 밥 문
딱 먹영 가부난 아이고, 베고프고 시장흐여 밧을 갈 수가 엇어진다. 아이고, 아멩흐
민 어떻흐린 영흐여 밧가는 검은 암쇄 잇거다가 뜨런 잡아 앓언 삭다리 멩게남 슬단
불 헤여 놓고 익어시냐. 흐 점 설어시냐 흐 점 흐단 바러 보난. 그 웨 흐 므리에 다
먹어웨도 간이 아니 훗구나. 동더레 바러보니 잣아이 우아레 이제는 얼룩 송아지가
늘암시난 으것도 심어단 뜨런 잡아 먹음구나. 잡아 먹으난 먹은간 썩간 흐엿구나. 이
제는 잣웃더레 웨가죽 두게를 올려 놓아놓고 이제는 소천국 하르바님은 농잠테 뱃다

지에 특하게 걸쳐 놓아 동경으로 세경드레 세경으로 동경더레 밧을 갈아 가는구나.
 그제는 헤는서산에 떨어지언 이제는 소천국하르바님 이제는 당오름더레 내려오고 백
 즈할마님은 아기덜 업은 예기 업곡, 걸립는 예기 걸립곡, 안은 예기 안곡 아니 헤언
 이제는 오봉이 굴 왓 간 바려 보난 하르방은 엇어지곡 잣 우이 바려보니 별경흔게
 잇어지난 아이고 탈도 별경케 잘 익은게 잇구나. 저거나 탕 아이덜 백이자 간 바려
 보난 탈이 아니랑 쉼가죽에 두게로구나. 아이고, 으눔으 즈석 쉼 도둑눔 흐고 네가
 이때까지 살명 이야기들 나아 지엇구나. 이젠 집으로 오란 설운낭군님아 우리가 혼
 품안에 즈을 자곡 혼 슬안에 밥을 먹어도 이제야 그르친 말을 곱아야 흐쿠다. 일러
 나 갑니다. 그제는 아이고 베고프건 이녁 쉼나 잡앙먹주 늬이 쉼가장 잡아 먹읍디가
 나 아명헤여도오 소천국하르방 흐고 살젠헤여도 콤 네 나곡 네가 도저히 살 수가 엇
 이난 살림을 분산흐서. 일러나 가는 구나 어서 걸랑 기영흐라. 이 아기덜 들앙 어서
 나고 갑서. 경흐난 소천국 하르바님은 알손당 정동벌침뜨님에기 호첩삼안 살아가는
 구나. 그제는 백즈할마님 은 베어진줄 모른 예기가 다시 이제는 베어진 다시 으서
 일곱 으둑들 건당 헤여가난 동동 베가 웨여 아흐 올들은 유성츠난 난건 바려보니 다
 시 아들을 탄생헤엿구나. 이야기 탄생흐난 헛 듯 두듯 넘어가난 홀로레기가 씨여지
 곡 너른 날레 헛어불곡 싱근 묘중에 메어불곡 트다불곡 영흐연 가는구나. 하간 종이
 에 낙서헤여 불곡 영흐여 말 문 묘중에 콕지 헤여불곡 영흐난 아이고 이에기도 지에
 비신디 돌아다 불저 영흐연 아니웬로구나. 이야기 지에비 신디 돌아다 불저헤영 알
 손당 돌아다 불엇구나. 이제는 아방은 이야들 킵젠흐난 홀로레기가 씨어지어 득세어
 들앙살수가 엇어지어 간다. 귀양정베를 마련헤저어 영흐영 이제는 요왕황제 이제는
 쉼철이 아들 불러다가 무쉼설갑을 짜놓고 혼 두 슬에 입단 이복이여 이제는 족은 아
 들 무쉼설갑 안에 들여놓안 무쉼설갑을 채와 놓고 이제는 저어 바당더레 내려산 짠
 물거리가 건당흐난 야 무쉼설갑을 띄우난 그제는 물이들면 동이와당 물이 짜면 서이
 와당 물미어 가는구나. 이제는 삼월브름 건당흐민 물이 바싹 쌀데난 그제는 황제국
 에 딸삼형젤를 탄생헤엿구나. 이제는 황제국이엔 부즈로 잘 살아가는 구나. 그때야
 손당족은 아들은 무쉼설갑이 무에낭 상가지에 걸어 지엇구나 큰딸에기 나고나 가라.
 아이고, 아버지야 무웨낭 상가지에 무쉼설갑이 걸어지엇수다. 셋딸아기 나고 보라 아
 니 보염수다. 족은딸에기 나고 보라 아니보염수다. 일러나가는 구나. 다시 강보라 간
 바려보난 아바님 무에낭 상가지에 이제는 무쉼설갑이 걸어지어수다. 큰딸에기 느려
 오라 못네려 온다. 셋딸에기 네려오라 못네려 온다. 족은딸에기 네려오라. 그제에는
 정동곶은 풀따지 걸어 놓고 통술 곶은 주먹으로 혼번 두 번 삼식번 둘러치난 알더레

무쉐설잡이 떨어지난 큰딸에기 무쉐설잡 올고 오라 못 올쿠다. 셋딸에기올여 오라
 못 올쿠다. 죽은 딸에기 올여 보라. 그때야 통솔 곁은 주먹으로 삼식번을 둘러치난
 이제는 무쉐설잡이 술강스짜 올라지난 바려보니 눈은 통데홀 곁은 눈이고 목은 스펀
 만이 혼 목이고 얼굴에 붉은 목칠흔이 목칠흔 데길이 어디 갖다 오는 태즈님이 웹네펴
 과. 나는 저 강남데국에 세번난리를 막아두고 오다가 이거 무에남 상가지에 걸어지
 었구나. 그젠 날은 큰 딸방으로 돕서. 아니 들어가키여. 셋 딸방으로 돕서. 아니 들
 어갈로구나. 죽은 딸 방으로 들어삽서. 어서걸랑 기영하라. 서른 으둡 이빨을 허우딩
 썩 웃어간다. 그젠 날은 아홉가지 구에반상을 즐려놓고 먹음직하게 즐려 놓난 이거
 츠국이 음식이라 츠마이 먹을 수 없언 아이고 태즈님 뭘 음식이 좋아 짐네펴까 나는
 밥도 장군이고 케기도 장군, 술도 장군이고 영호렌호난 그젠 날은 술이여 케기여 밥
 이여 즐려다 주난 문딱 먹어가는구나. 죽은 딸 호고 눈이 맞안 살게뎨여 가난 이제
 는 일년동안 사난 동창케도 비여간다. 서창케도 비여간다. 이제 다시 일년간 사난 남
 창케도 비여간다. 서창케도 비여가는구나. 아이고, 이제는 죽은딸에기 우른 일이여
 이거 아니 뎨로구나. 어허영 남편 돌아정 어서 나고가라 널로 얻은 시름이난 아이고
 아바님아 우리가 가면 어딜로 잡네펴까. 영호여 곱아가난 아이고 아니뎨다. 나고가라.
 경호진 베나 혼척 지어줍서 어서 걸랑 기영하라 베를 지어놓고 영기몽기 돌아줍서
 데추 살 돌아놓아 오는다 강남천즈국 오란 백물레왓디 들어산 잇이난 강남천즈국 데
 장수들이 넘어가다가 어떤일로 이거 백물레뎨디 베를 데어시니 영호연 그젠날은 어
 디서 오는 태즈님이 웹네펴까강남데국에 세번 난리를 막아두레 온 길이웹네펴다. 아이고,
 경말양 강남천즈국에도 세벤 난리가 나난 세벤 난리를 막아 질 수가 잇습네펴까 호난,
 막을 수가 잇노라 말을 호난 그제는 기즈 천군 네여다늘라 일러나 가는구나. 기즈
 천군 네여 주난 태즈님은 늙이 나라 장수덜을 목을 헛헛하게 비완 세벤 난리를 막앗
 구나. 막아놓고 이젠 장수님을 맞아 땅 혼 착을 마련호겿느냐 경안호민 물 혼착을
 갈라주건 물 빨아 먹영 살겿느냐 아무것도 필요엇수다 일러나 가는 구나. 케건 큰베
 로 호나 지어줍서 호난 어서걸랑 기영하라 큰베로 호나 지어주난 그때는 요왕데부인
 호곡 부베간 베를 즐령 탕 종달리 무수불게로 어서 들어간다. 아끈드랑 큰드랑으로
 비즈당콧으로 이젠 당오름 오란 바려보난 어머니은 느진덕정하님을 거느려 콩을 네
 어 콩까지를 날르멍 먼정 올레레 바려보니 아이고 백즈할마님 난 아덜. 죽은 아덜이
 귀양 정베 간 에기 살안 오랏구나. 상즈님아 죽은 아덜 살안 오랏수다. 건 뭘 말이나
 아이고 어느 누계가 밥을 주고 옷을 주고 물을 주어 살안 오랏젠 말 일러호난 아니
 살안 소천국 죽은 아덜이 들어사명 나사명 어머니신디 삼세번 절을 호면서 어머니아

죽으라고 귀양정배 혼에기가 살안 오랏습네다. 아이고 설운 나 아들이 어느 누계가 밥을 주고 옷을 주고 물을 주어살안 오랏느냐. 아이고, 요왕데부인 덕택으로 네가 살안 오랏수다. 일러가는구나 요왕데부인은 어디 잇느냐. 저 먼정 오라수다. 영흐니 요왕데부인은 춤에서 청폰체 앓아네여 삼식번을 붓구난 어머니님 눈에 콩깍지가 들었구나. 게난 눈 어둑언 바릴 수는 엇어지난 그젠날은 춤에 춘 청폰체로 삼식번 붓구난 어머니님눈에 콩깍지가 알려레 다르룩 하게 떨어지엇구나. 그젠 죽은 아들 메누리 들어사명 아이고 어머니님 얼굴 모른 메누리 선신문안 흡네다. 아이고 서룬에기야 착하다. 고맙다. 아이고, 어머니야 아버님은 어디 가수과. 영헨 말흐난 아버님은 알손 당양 오봉이 툄 초남뵈디 간 보민 아버님이 잇저 흐곡 곶으난 아버님이 시난 죽은 아들흐는 말이 아버님야, 죽으라고 귀양 정배 보넨 아기 살안 오랏수다. 절을 굽박흐난 소천국하르바님은 이거 어떤 일이고 가슴이 잘락하게 털어지언 솟국 혼게이 쿡박아지언 옷긋 인간 하직을 흐엏구나. 그제날은 설운성님네 다섯 성제 다 불러다 놓고 아버님 업토감장 시겨놓안 어머니야 어머니야 우리 낫젠 흐난 고생 많이 흐여수다. 우리 스능혜여단 노루 사슴을 혜영 이제는 어머니 잔치혜여 안네쿠다. 어서 결랑 기영흐라 어떻 잔치 혜여두곡 나도 입장들런 혜야쿠다. 노루 사슴을 마쳐다 갈림을 혜여 놓고 이제는 설운 성님네 우리가 어머니 실아에서 우리 다 살 수가 엇이난 우리 각방 분식이나 하게 맞습. 어서결랑 기영흐라. 큰성님이랑 검흠 문국성으로 어서 들어강 산신데왕으로 상반아 먹읍서 일러나 가는 구나. 들췌 성님이랑 정이 광정당. 셋췌 성님은 데정 옷검은 질 한집으로 들어서곡 네췌성님이랑 시네 네윗당 한집으로 들어서곡 다섯췌성님이랑 드리 산신하르방으로 들어서곡 죽은 아들 2만이 후망을 흐다가 아이고, 이거 아무디 가민 어떻흐런 제일 므일이 널르고 영흐디가 저 김녕이 웨어지난 김녕 이제는 퀘네기로 들어산 즈손들에 상받기 마련을 흐엏습네다. 소천국 백즈할마님 난산국을 풀엏습네다.

<녹취원문 Ⅲ-1>

구술자 : 그저, 옷손당 당 할망한티 옷손당 사람덜 땡기는거 뿐반 이제 4·3 스테 올라온 후제 문 딱 텡겸주.

조사자 : 알손당 사름덜도.

구술자 : 응 교 믿는 사름이나 안 오주.

조사자 : 그전에는 옷손당에서만 광산 김집이만 허난 하질 안 혜엏주.

구술자 : 응 옷손당 사람덜 그자, 이젠 스뭇 다 시에서 영. 손당 사름덜. 웨손지

영 다오곡 경허난이 여기서 어멍 아방네가 살앙 허민 딸도 나민 분향에 올령. 이 에
 기 펜안혜게 혜게 혜줍서 혜영. 성은 김씨 몇 설. 난 난 손지 아덜 손지 즈손은 네
 중에 텅길걸로 봐. 올리곡 딸 손진 아니 올려. 거 늬이 집이 가불거 텅기지도 안헐거
 올령 뵈 허나. 예멍 올령 산 받을 거 아니 네중에 아이 텅기민 아니 뵈여 우리 웨
 조할망, 죽은 아방 난 할망. 우리 죽은 고모 오직 올려실거냐. 그 두르벵이 닳은거
 아이 텅견 허난게 그디 간 큰 아덜도 난 죽어, 그거 큰 아덜 장계간거 바당에 간 셋
 아덜은 육지 간 공장에 간 붙언, 전기에 붙언 죽어부러 이제 큰아덜은 딸 흐나두고
 예기벵 각시 되된. 친구영 바당에 직장 텅기단 친구영 바당에 간 허난 바당더레 는
 착흐난 빠진 죽어부러 시방 죽은 아덜 두르에 닳은거 흐나 시어. 죽은 아덜은 흐나
 싯주만은 삶이 삶이 아니라.

<녹취원문 Ⅲ-2>

구술자 : 역데 허민, 제주 입도한 하르방이 우리가 삼십 육데 일거라. 계난 제주
 입도에서 저디 온게 몇데덴 하르방이엔 현디. 나 그거 딸이난 그 알아 봐시냐? 계난
 그디 오란 경헨 어멍 아방 천리 혜단 묻언 손당을 오란 발 붓던 살기 시작 헛주게.
 처음에 선달하르방 아방이. 송씨하르방이 췌 올게, 뵈켄 오란 오랑 산신도 모사단 사
 라에 모시고 살안 잘 사난 몰 테우리 질 허레 왓 주겐. 못 사난 아덜 여라게

조사자 : 송씨하르방 잇을 떼도 백조 할망이 잇어던가 마시

구술자 : 아니 아멩혜도 송씨하르방 그디 흐디 헨 당허게 뵈난 송씨하르방 오기전
 이 백조 할망은 모신 걸거라. 으라게 난 잘 몰라도 송씨하르방이 송당 게백 헛젠
 허난 그 다음 광산 김게 오난 할망 신위가 잇어네 허기 시작 헐테주게.

조사자 : 송씨하르방이 개벽허난 송당이렌 혜신가

구술자 : 응 맞아 송씨하르방이 게백허난 송 ,저기 당이 이시난 당 헨 송당

조사자 : 게메 그런 말 들은 도레는 어수과.

구술자 : 응 엇어, 그걸 듯젠 혜시민 들주만은 그거 네 들음은 안돌 오름 안돌오
 름 영영현 말도 앳안 봉덕우이 불 추민 조제기 앳아둬서 들엇주게. 경혜도 그런 말
 이 잇어시민 ㄱ라실 건디 엇이난 아니 곶아 싯테주. 나 들은 건 곧곡 아이 들은 건
 아이 ㄱ라.

<녹취원문 Ⅲ-3> ◇ 광산김씨 집안의 광대굿 본풀이.

구술자 : 칫땃거리, 옛날 선달 놀러 난거, 저디가 칫땃 거리주. <집에서 위쪽을 가

리킨다>옛날에 손당 송씨하르방이 계백해연 살때 송씨하르방네 모시테우리질허레
우리 광산짐칩이 우리 선달 하르방 아방이 완. 선달하르방 아방이 이젠 손당 안돌
오름 그 버덕 질 염이 앓안에. 송씨하르방네 모시 테우리질을 헤서. 못 살안에. 모시
테우리질을 흐는다. 중 데서 서이 내려 오단 요디 쓰민 동방급제 과거 시험 아덜 두
이 나겠다. 시님덜은 그거 잘 땅을 알안 경그른 거라. 경허난 천리 벳긋디 시님 앞이
간 절을 엮디흐연 허붓허게 엮디흐난. 어평연 아이가 선 아까 그른 말 그자 살려
줍서. 난 못 살안 영 모시 테우리질을 험수다. 벌써 임제가 낫구나. 그르쳐 주그렌
게난 그 안돌오름 시방 우리 선달 하르방 그 선달하르방 하르방을 이디 온 아덜 선
달하르방 난 아방이. 말췌 아덜인가 죽은아덜인가 허덴 흐여. 성덜 모르게 고산이 묻
은거 저 밤네 천리헤단 그디 강 물어 부러주. 어멍 아방을. 그디 묻은난 어따 경헌
아들 안티 아덜 성제가 과거 시험을 봐네 선달베슬을 헛주. 경헌 오난 이디 그 무시
거 허는 늣덜 노념놀이 허는 늣덜 그디 그 광데들이 돈 받아 오랜 들라 오란. 줄 영
흐거<팔을 위로 뻗으며> 지붕 둘룬거. 줄로 글로 칫데거리 데 세워놓안. 네 제주가
좋으냐 허멍 막 빨환. 두일퀘일 열나홀 곳흐멍 아덜 성제 헤여노난 오죽 거득허게
살아시냐. 경헌 잘 살안 흐단 하르방 누이가 경 고운 천하일씩이 잇어낫젠 헤라게.
시집 아이간 처녀가. 그 광데가 일곱이 온디 다 가단 흐나가 그 선달하르방 누이광
미청 가질 아니헤. 웨 아이 감시니 저거 실러다 불렌 강 퀘기 벳 잡안 실러 불렌 퀘
기 벳 잡안 실러분디. 선달하르방 아방이 밤이 누난 꿈에 꾸안. 아 그제 즐즐흐게 시
리 물 적전 완. 지방우이 앓아버언. 이런[미다지 가리키며] 마리 지방에 거 아무덜
강 알아 보렌. 알아보난 옷긋 바당 파도 테완 죽어부러트젠 퀘기 베난 업테전. 그 귀신
이 오란 선달하르방 우에 붓던 그게 선달 하르방. 동박낭도 팔팔 날고 그자 지방도
팔팔. 니 제주가 좋냐 네 제주가 좋주. 허멍 게멍 난 그 귀신이 들영 딸은 죽은딸
곱게난 딸. 죽은 딸 부제칩 광산짐칩이 딸 무슨거 허민 구신 붓덩 무신. 어스룩 더스
룩 허영 곳헨 추어 나시네. 스나이 나면 술먹영 어스룩더스룩 술광질허영 딸은 곱게
난 딸은 그 구신이 붓덩. 어스룩 더스룩 붓덩 느 제주가 좋냐 네 제주가 좋다 흐멍
발앗다 흐다. 게난 옷손당 칫멧거리 광데구신 놀리느네. 그 후로 아프민 구신으로
흐는걸 형 그 구신 놀리곡 곳을 헨 경헤그네 그자 어스룩 더스룩붓덩 헨 어장 미장
헤가민 그 곳허영 종암도 허곡. 그 곳헨 이제 할망본도 풀곡. 저승본도 풀곡 이 광데
본도 풀곡. 광데가 문 늣 곱닥흐 딸광 미청 아이 가젠만 허는걸 보네 난 .가단 바당
에 빠전 죽어부난. 그 구신이 오란 붓던 딸광 붓던. 광데구신이 주게 광데 놀아댕기
는 광데. 심방은 옷손당 고봉선이넨 옛날 알안 막 응 풀엇주. 옛날 헤나난 광산김씨

역슬를 알 주게.

<녹취원문 Ⅲ-4>

구술자 : 저디 ○○이엔 현 우리 조케 츠레가 할망디 텡기단 두가시 뵙난. 무신 세화리 무신 바다에 무신 해신님 무시거흔 교회에 텡기명. 그 딜 아이 텡견 아이덜 이력이 아이웁. 고무라저가. 네 흐를 저녁이 가서 담 두르젠 흘 떼라. 가네 야, 느 교니 뵘니 해도 손당 백조 할마님 이제 담두르곡 희스 문 헐거여. 느네 회사 돈 네 어 놓고 그 할망 한티 텡기라. 아 ,경허난 이제 잘 뵘젠 허난. 아이 이테 부턴 잘 텡기켄 잘못 해수다. 나 열두시 뵘 놀단 와 부난 앞으로 잘 텡기쿠다 기도 행 질 해 가난 글로 희영현 장독이 나완. 꼬끼오, 꼬끼오, 거 할마님 이주 본향에 득이 주게. 놀게 독독 두들멍 막 울언 허영흔 장독은 흰강생이로 변색웁 집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붉은 장독은 그디 잇단거 검은 강생이로 변색웁 이녁 줄음에 들랑 오젠 헤렌. 게 난 확 곱아 부난 아, ㄱ만이 시민 출령완 잘 허곡 허젠 해신디 들라 오젠 경헤네 곱아 부난 돌아가 뵘테다. 웁, 아척이 새벽이 와서 나신디. 난 곱아서 가켄 허난 나 딸 착허다 웁 백조 할머님이 지꺼지언 담 들르고 문 비석헤언 문화제에 올라갈 떼 지꺼지언. 독독 허주게 놀게 두들기명 그 할머님 변색웁 건 들어 가불곡. 거 붉으게 변색 현건 붉은 장 독변색 현 건 송당머뵘에 일뤼 할망. 저 허물 네왕 먹는 허물할 망, 눈에 뵘네와 먹는 할망아니가 그 할망이 들라텡겨 곱아 부난 잘 헛저. 나, 그 후로 가네 쉼 질르멍 아이덜 다 장게 보네멍 잘 뵘저 잘 살암서. 할망이 도와 췌게 그 뒤로 할마님이 꿈에 깬지 싹뵘그네. 광산 김가 우리 팔촌 오라방 아덜 우리 조 케 뵘 철이주. 응 그거 이제 희스도 허곡 돌 싹거당 담도 다 담고 흘건디 일도나곡. 할망 흐티 텡겨 다룬디 헤뵘겨도 시원 안허메 뵘도 좋아 불메. 뵘도 좋아 불고 헛주 게. 경험 그 아이 네 지휘 시켓 주게. 보난에 아니 텡겨네 모든 이력이 아니 뵘거 답 안 허연게. 가인, 막 잘 뵘 아이덜도 다 장게 보네헌고.

<녹취원문 Ⅲ-5>

조사자 : 당에 이제 ○○며느리는?

구술자 : 메느리, 텡긴만이라 텡기당도 남을 걸. 사라에도 확허게 날 실러가곡. 이 디 백조할망한티도 어멍 못헤게 뵘민 나 텡기쿠다. 허난 아이 건 문 걱정이 었어. 응 그게 중요허여 시방 ○○이 오라방<육촌사이> 각시 죽나 이디 오라. 경허난 잘 살아가는데 큰 불화는 아이 닥칠 거 아니라. 경호난 아방, 저디 막 힘이 텡겨나난 경헤

도 경 텡김이 어려와 잘 텡겡주. 셋 ○○어멍이나 죽은 어멍 어디 본향에 혼 번 와 가시나.

조사자 : ○○아들이 시험을 혼 20년을 보아도 안되네 예.

구술자 : 경허난 나 곧지 안햐시나. 어디 옛날 초상 부모 초상 텡겨난 질이라도 오란. 어뎡연 저거 뉘게 헤주고 사름.

조사자 : ○○ 할아버지는 열심히 다녔젠.

구술자 : 어 으게 하르방 막 열심히 텡김만이라게 경헛주 경헌디 바로 ○○, 거시기 아방난 할망은 아무디도 아이 텡겨. 응 정윳 할망, 게난 살앗주. 삶도 메 어렵고 뉘 그 닳은디 텡겡 무시것허리 구신이 어디시니 경헛 산 거주. 텡기는 말이 엇어나 서.

<녹취원문 Ⅲ-6>

구술자 : 저 예기 데학시험 붓드게 현 예기 서월에 항공에 시험보레 감시난 사신 데왕 산신백관님 강원도 금강산 산신님 한티도 기도 들영 산신님이 흐곡 다 도와줍서 산신님 어뎡흠니다. 그저 우리 거시기현 인간 도와줍서 허멍. 산신님 한티 절 허 붓허붓허멍 캐우리어 텡 와서 메누리 시집 아이온 메누리가 아이고 어제 간. 오늘 시험 보난 이녁 와이사쓰 세거 안 쓴 와이사쓰 걸영 놔두난 곁은 일행이 못 텡 늡 털. 늡이 곁이 간 일행 와이사쓰 세거 건거 확 앓아 입어 부런. 도둑늡이 세끼 거 아 이뉘어 경허난 가네 시험은 본디 멘접시험에 용심나고 흐난 멘접시험에 더듬어진 거주 말을. 떨어진것 닳아네 아이뉘수다 흐연, 뉘실건디 나 속으로만 산신님이영 백조 할마님이영 도와주난 뉘실건디 게민 경허냐. 일주일 시난, 은행에서도 오라. 항공에서도 텡겡 또 강 본거라. 그자 우리 엇은 불쌍현 인간 다 도와줍서. 영흐는 곁 하늘 옥황상제님은 우리 흰허게 눈턴. 우리 인간현겡 다 못 텡 일 현겡 좋은 일 허는거 다 보암서.

<녹취원문 Ⅲ-7>

◇<할머니가 푸는 백주할망본풀이>

구술자 : 백주 할망이 처녀 떼 거시기 손당 어디 외할마님칩이 훗아 와서. 그 어디 원청강 풀즈 스주를 보난 할망이 제주도 가 그네 인연을 뉘엿 살렌 혼 팔자난 웨 할망 집일 오난 웨할망칩 사는디 시방 알 손당 고부니물 잇인 하르방 소리소천국 하르방이 거시기 세화서 하도 장계만 들켄 하도 허난 돛 전 머리, 쉘 전 머리 먹는 하

르방 혼틴 곱네 나고 아니 가키엔 해도 저 느 먹으라 난 안 먹키여 저 듯 전 머리도
 쉼 전 머리도 아니 먹영. 할망이 하도 종와 노난 장게 들켄 헤연 옛날에. 겐헨 이젠
 장게 들어네 아들 일곱성제 딸 일곱성제 난 살젠 혼난 어려우 난에 저 거시기 오봉
 이 곱왓 강 밧을 갈켄. 이녁 쉼 잇거 앓안 할망이 저 점심을 지완 보네어도. 하르방
 이제 밧을 어떻 갈암시닌. 예기 업고 걸릅고 헨 하르방을 보레 가서, 간 보난 그 하
 르방은 넘어가단 시님데서가 베고프난 점심이나 잇건 혼 술 줍서 혼난. 저 쉼질메
 아래 잇저 혼난. 쉼질메 아래 가네 그 늙으 그 염치 엇은 데선 폰 찍 다 먹언 가부
 런. 하르방은 점심 먹젠 보난 밥이 혼 직도 엇이난에 쉼 벳건 먹넨 이젠 할망광 약
 속도 잇어 불고 베고픈 짐에 그만 밧 갈단 쉼 잡안 먹으난. 이 큰 창에 전갈도 안간
 더 먹구정. 영 베려 보난 늙이 농에가 시난. 옛날 농에주. 얼룩뻥이 송에쉐가 시난.
 그거 낱지 잡아먹어 가족 들러 췌겨뵤. 하르방은 영,두손을 모아 앞으로 수그리며 받
 을 가는 시늬를 하며> 땅에 쟁기 질런 그레 갖다. 저레 갖다. 헤어 노난 밧은 쉼 전
 머리 듯 전머리 먹는. 할망은 업고 걸릅고 하르방 밧가느디 보레간 보난. 쉼은 어뵤
 뻗겨뵤 두고 밧을 갈암젠. 이 하르방아 쉼 어뵤 뵤디겐. 넘어가는 데서가 베고프덴
 밥 혼 술 떠 가렌 저 쉼질메간. 잇젠 혼난 들러 반씩 다먹언 가부난 베고판. 이녁 농
 에 또런 먹으난 전갈 안 혼난 저디 얼룩뻥이 송에기 낱지 또려 먹엇젠. 아이고 이
 어른아, 이젠 아니 이녁 농에만 먹주. 늙이 쉼낱지 잡아 먹엇냐고, 도둑 늙 이 예기.
 일곱 열네 오누이 어디강 써먹으린 나고 가렌. 서방을 네췌차부럿주 그 하르방은 그
 하르방 할로 영산 오백장군 딸 언영 살아 불엇주. 살아부난 이젠 할망은 이젠 하르
 방 엇이 사느디 흐루는 이젠 하르방을 좇아 바사 허키여 생각이 난. 할로산 이 낭
 꼬망. 즈들 낱지 좇당 보난. 네난 가오리 션. 들어 간 보난 션. 그게 하르방을 들안
 이젠 살레 그 오백장군 딸이영 들고행 이딜 오난. 저디 완 좌정 혼연 당오름에 앓언
 마즈막 난 아덜 이것 빈복으로 우리가 이별뵤가 시메. 때문에 이결랑 이제 무췌설각
 에 저 거시기 게영으네. 바당에 들이쳐 불겐 이거 빈복으로 우리가 이별 뵤가 잇젠
 경헨거. 하르방이 경헨할 할망도 경헨 무췌설각에 가된 바당에 가네 뻗겨 부난. 낮
 삼년 밤 삼년 그 바당 무우낭에 걸어젼 혼난. 그디서 막 아래서 득이 하도 우는 소
 리가 나난. 요왕에서 요왕 황제가 큰 딸에기 나고 가라 혼난. 아무것도 못 뵤 뵤다.
 셋딸에기 나고 건 낭에 무웨낭에 금궤 들라젗주마는 그거 느려올수가 엇언. 죽은 딸
 에기 강 나고 보렌 죽은 딸에기 그 느리난 달각 느려웨지난 큰 딸에기 올렌 해도 못
 열언. 셋딸에기 네려오렌 허난 못허연 죽은 딸에기 그자. 영 슬락허난 중근 무췌설각
 문에 중근건디 슬락 올라전 네리난. 이 세상에 하늘이 통데 홀만 허곡 얼굴이연 통

데 흘만허곡 이 세상 장군곰 이난 어디레 이제 혼 도령님이네 혼 난. 어뒤 거시기. 이제 서천국 도원수 막으레 가단에 영 초과렌 그르난. 허단 거짓말로 혼 그 하르방이 죽은 딸광 결혼을 헤난 쉐 전머리 듯 전머리 거시기 그 장군은 영혜연 살아간다. 그 어디 이제 서천국이 그 난이 일언 막허난 그 난을 막으면 물 혼 착 땅 혼 착 주켄 혼 간 그거 막아두고 그 난간 막아두고. 이제 요왕황국이 딸 들고 어멍국 이디 아방이여 어멍이영 아방이여 브레 띄와 벼도 오란. 이디서 아는 시난 아이고 땃겨분 예기 죽으렌 땃긴 예기. 이제 남 저 거시기 저 어디 서천국이 난헨 막고. 이제 물 혼 착 땅 혼 착 도렌헤도 말아네. 군함 혼나 지어 도렌헨. 이제 왓젠 혼난. 죽으렌 땃겨분 예기. 어멍 만나린 혼게 하르방은 주 헌 짐에 든게 줄줄 든단 보난. 오봉이 굴왓 간 이 세상을 떠나 불고. 할망은 나난 아들이 날 껌으로사 꺾이리엔 헨. 당오름에 오란 당물우이 올란에 보아네 혼난 이제 아들이 경헨 할망은 콩을 불럼시난 들어완. 어머니영 아버지엔 만난 아, 하르방은 도망가 불고. 어멍은 콩 불리단 눈에 그만 콩깍지가 들언. 그 아들이 폰체로 세 번 할딱 부치난. 콩깍지가 도망가 부난. 그제 이제 그 아들이 이제 큰아들은 어느당 땡서 김녕당 어디 췌네기 어디 제주도 일주 당을 메엿주게 메어네 할마님은 당오름에 올란 이 세상을 속곡 허난. 당오름에 모산 살안. 이제 그 디서 이 시난, 우리 옛날엔 옷손당에 단골 할망이랏주 셋손당은 일절 땡기지도 안 혼곡 할망이 아니. 옷손당 상단골이엔 광산 김계덜 문출려 앓영 강. 심방 고대중이 아방 살아실때 일등 심방이난.

<녹취원문 Ⅲ-8>

구술자 : 저 당에 오랑 혼민, 거 나이 한 사람 놀떼에, 곳 흘 떼에 춤 잘 추는 할망 서 인가 너 인가 잇젠헨게 그 중엔가 혼나 할망이 무시거엔 글거 아니 글암저, 것도 넘어 감저 먼담 넘듯. 저거보라 저거저거 아멩아멩 글아살거 글축 자꾸 곧드라고. 겐디 그 이름을 혼나토 모르크라. 그 할망이 누게 어멍이엔 혼민 알건디. 겐디 한복 입곡 강. 경 거시기 춤 추레 잘 나가주게. 경헨 할망이 둘이 서이 너인가.

조사자 : 거긴 메뉴리 털이영 오는건 안 뵈디가.

구술자 : 예그, 걸 슬퍼시냐 경 글아가민 난 영 울커니 무시거엔 틀렷구나 이 할망네가 다 잡아 네엄구나 경헨주 아멩토 글을걸 것도 안 헨 보라보라 뛰와시네. 저 물 탄 들암시네 보라 허멍.

조사자 : 계난 곳을 잘 헤야 백주 할망한티 정성이렌 혼는디 그걸 츠레를 다 안 지켜부난.

구술자 : 그렇지 할망 본풀이 흘펜 다 허영 여쭈어사 흘건디 겨영 역까지 아니허 영 경 먼담 넘듯넘업덴 경.

<녹취원문 Ⅲ-9>

조사자 : 고봉선 심방 죽어부런에 바로 그 대중이 심방이 심방을 물려 받아신가 예

구술자 : 응.

조사자 : 바로 안 흐켄도 안 헤그네.

구술자 : 응응.

구술자(강○순) : 고대중이, 그 각시 등똥하고 저거 다 데학생이엔 두게라. 아털 네게 다 데학생이렌 흐명. 우린 그 때 볼 펜 아들 두겐 대학 교수라. 두겐 어느 대학 어느 대학 멧 학년 멧 학년이라. 허명 탁 하게 앓앙 우리 그 때 처음 갈 때.

구술자 : 그 펜 그 하르방 뭐니까 바로 흐 거라.

조사자 : 아방이 흐니까 바로.

구술자 : 응 그 전인 안 흐고, 하여튼 이제 글루행 뭐행. 경흐곡 그 딸도 그것이 뭐이주게. 부산 살암시덴 그디.

구술자(강○순) : 죽은 하르방죽은 때 바로 그때 완에 질치명 헤시네.

구술자 : 그디가 부산서 크게 험서. 그때부터 송당부터 그때 송당부터 그디가 잘 험져. 잘 흐고. 그디 여즈가 문 헤났져.

조사자 : 딸이 좇아멩기멍 헤났구나예. 아들은 안 흐고예 할아버지보단 열나 위정 도 됨신가 고대중 심방이예.

구술자 : 경 뭐흐진 아녀어. 우리 보단 조금 뭐 흐주. 어어 거 부산 지금 살암 실 거여. 응. 그것이 그 때부터 누게는 흐단에.

조사자 : 고대중은 안 흐고.

구술자 : 응, 안 흐곡 누이가 흐단 그 때부터 문,

조사자 : 송당은 남자만 헤야 돼니깐 예 경헤네. 계난 나가 책을 봐신디 그때가 오십팔년(칠년) 흐 살때 두 살펜가 그때 고봉선 하르방이 일흔 네 살이라예. 일흔 네 살인디 서울에서 내려와네 모셔다네 방송국에 가네 녹음헤네 그 걸로 책이 나완 예. 고봉선 하르방은, 경헤네 얼마 엇언에 돌아가고 그다음 나중에는 오년 잇영 고대중 심방이 곁아주난에 글로 쓴거라. 백주할망 이야기 본풀이가 흐끔 뜬나]

구술자 : 그디, 누이가 지금도 뭐헤시민 그 사름 흰 흘 거여.